

202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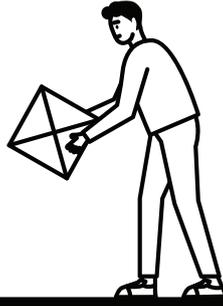
제1회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2022년도



제1회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목 차

대 상

- 친구 같은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 5
이유빈 / 유아교육과

최우수상

- 세상을 녹여버릴 다정한 따뜻함으로! ----- 13
김민영 / 국어교육과
- 교육봉사활동 수기 영상(찾아가는 수업지원단) ----- 20
방유진 / 음악교육과

우 수 상

- 꿈을 만들어준 나의 첫 교육봉사 ----- 24
조현서 / 컴퓨터교육과
- 동백나무와 동백새처럼 ----- 30
강하빈 / 영어교육과
- 새내기 초보교사, 숙련된 교사가 되기까지 ----- 38
현윤아 / 일반사회교육과
-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송 ----- 46
권혁주 / 일반대학원 음악교육과

장 려 상

- 교육봉사 7문 7답
황채운 / 컴퓨터교육과 ----- 49
- 그것이 알고 싶니
나은하 / 컴퓨터교육과 ----- 54
-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도전의 교육을 경험하다
남규빈 / 국어교육과 ----- 61
- 해피 음성스타그램
김지호 / 국어교육과 ----- 66
- 두 계절 속 아름다움
안유림 / 윤리교육과 ----- 77
- 반짝반짝 작은 별이 큰 별이 될 때까지
김다운 / 초등교육과 ----- 85
- 아이들의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장윤희 / 교육학과 ----- 92
- 유아교육현장 경험이 준 깨달음
전진우 / 물리교육과 ----- 100
- 음악으로 감정을 말해요
권혜주 / 음악교육과 ----- 109
- 교육봉사를 하며 볼 수 있는 선생님 유형
김시은 / 초등교육과 -----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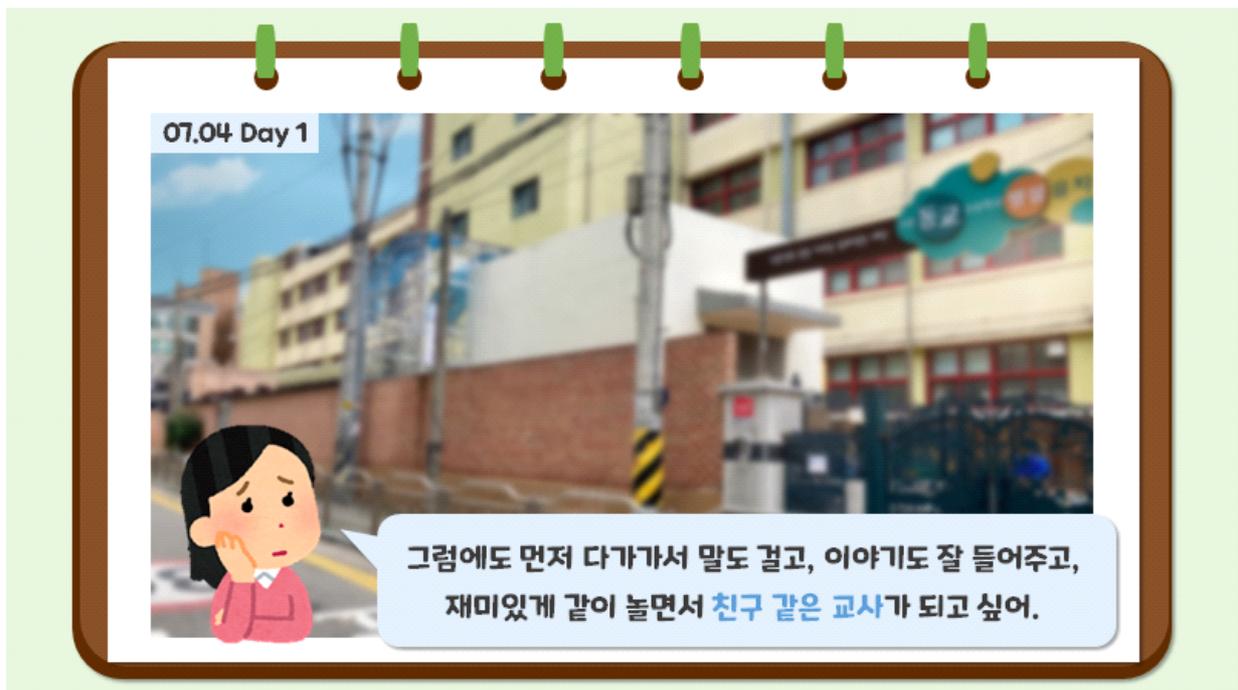
참 가 작

-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다 ----- 121
김유찬 / 화학교육과
- 행복한 꿈을 꿔던 교육활동을 마치며 ----- 133
나혜지 / 교육학과
-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 ----- 140
신지혜 / 유아교육과
- 멀리서 봐야 보인다 ----- 150
안소정 / 컴퓨터교육과
- 똑같은 것보다 조금씩 다른 것이 더 좋아 ----- 154
양소영 / 윤리교육과
-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 162
이예은 / 초등교육과
- 사범대생의 유치원 봉사 일기 ----- 165
이주현 / 수학교육과
- 여름에 남겨온 아이 ----- 172
차시운 / 음악교육과
- 순간이 영원하기를 ----- 182
홍운재 / 윤리교육과

<대상>

친구 같은 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유 빈
유아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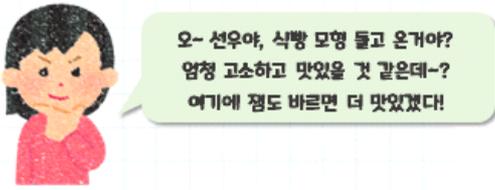


첫날의 나를 다시 보니, 지금이랑은 다른 점이 보인다. 저 때는 다정하고 재미있는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다정하면서도 껍데기 교사가 되고 싶다. 껍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일기장의 끝에 알 수 있을 것이다.

7월 5일 화요일

선우의 맛있는 샌드위치





오- 선우야, 식빵 모형 들고 온거야?
엄청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잼도 바르면 더 맛있겠다!

선우는 무엇으로 식빵의 잼을 표현했을까?
한번 맞춰봐.



정답!!

7월 5일 화요일

선우의 맛있는 샌드위치



처음에는 우유곽 뜯어달라는 말도 어려워했던 선우가 같이 놓고, 또 그 기쁨을 나눴더니 마음을 열어줬다는 게 느껴져서 몽글했어. 처음에는 선우가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성이 또래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많이 고민했었거든 😞

그런데 자신이 관심 가진 놀이를 **존중**하고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선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

선우는 특수교육 대상보다는 식빵 놀이를 좋아하는 만 5세인 아이, 혼자 노는 시간이 많지만 혼자 노는 것만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거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선입견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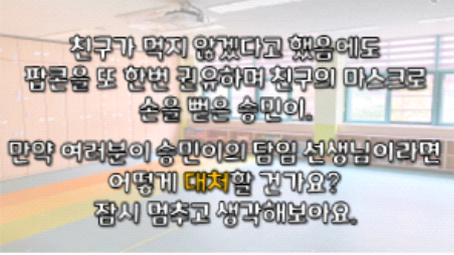
END

다시
답력으로 갈래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성이 또래에 부족하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놀이를 존중하고,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는 아이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같은 눈높이에서 선입견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7월 8일 금요일

장난꾸러기 승민이의 영화 관람



친구가 먹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팝콘을 또 한번 권유하며 친구의 마스크로
손을 뺐은 승민이.
말약 여러분이 승민이의 탐임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요.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집중력이 부족한 승민이가 영화와 상관없는 말을 작은 목소리로 재잘대니 특수 에듀케어 선생님께서 단호하신 목소리로 '홍승민 조용히 해.'라고 말씀하셨어. 웃을기 없는 모습에 나까지 긴장되어, 승민이가 조용히 할 수 있게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

우리 반에서는...

승민이가 손을 뺐은 그 순간 담임 선생님께서 '홍승민'이라고 승민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시고는 승민이의 좌석을 혼자 앉는 구석으로 옮기셨어.



7월 8일 금요일

장난꾸러기 승민이의 영화 관람



어떤 게 옳은
교육방법, 교육관일까?

선생님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선생님들의 태도를 보며 친구같이 다정하고 친근하게 대하려던 내 교육관이 잘못된 건 아닐까 고민이 돼. 나는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고 긍정적인 말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엄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를 상대하는 교사의 입장은 나와 다를지도 몰라. 내 전공지식과 현장 경험의 부족에서 온 고민인 걸까?

ADHD에 초점을 두자

아예 말하지 않는 건 어려웠지만 조용히 말하려는 노력은 한 승민이가 계속 떠올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어 매번 외톨이처럼 되어가는 게 안타까워. 혹여나 스스로도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할까봐 걱정도 돼. 승민이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보다 다정하게 곁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몇 번씩 더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있어주고 싶어.

END

첫째 주는 학기 중보다도 고민이 많았다.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승민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교육방식을 보며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던 내가 틀린 건지 고민이 되었다. 친구 같은 교사는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지만, 매번 다정하고 재밌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맡았을 땐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친구라는 게 무조건 다정한 건 아니고, 도움이 된다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7월 13일 수요일

토마토를 싫어하는 선생님



지윤아, 토마토 더 먹고 싶으면
선생님 토마토 먹을까?

아 진짜 그렇겠네.
선생님이 마치 생각 못했어.
그러면 선생님 마음만 받아 줄래?..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 토마토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저한테만 토마토를 주면
다른 친구들이 속상하잖아요.

7월 13일 수요일

토마토를 싫어하는 선생님



오늘 낮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줄이야.
오늘은 토마토를 넘겨주려는 비교적
사소한 일어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 했어.

오늘 잘못의 원인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었고, 그동안 아이들과 대화도 잘
통해서 아이들을 학생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하게 여긴 것
이 원인이었어.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결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하는 내가 어떻게 경각심 없이
행동했다니 아직도 당황스러워.

나의 역할과 본분

나는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교사로 이 교실에 있는 거야.
더군다나 아이들과 친구처럼 편하고 허물없이 지내는 게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뜻도 아니었지.
마땅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목적을 가지고 교실에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잊지 말자. 무엇보다 친구 같은 교사
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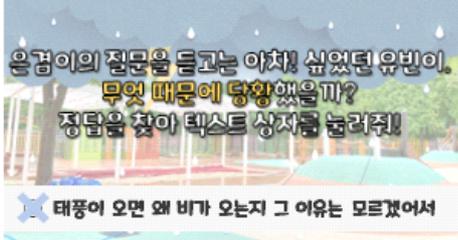
다시
답력으로 갈래

END

토마토를 한 아이에게 넘겨주려는 실수를 했는데, 아이들을 학생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하게 여긴 것이 원인이었다. 아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교사로 있는 것이고, 마땅히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목적을 가지고 교실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무엇보다, 친구 같은 교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7월 14일 목요일

한마디 말에도 신중을 가하자



은경이의 질문을 듣고는 아치, 싫었던 유빈이. 무엇 때문에 당황했을까? 정답을 찾아 텍스트 상자를 눌러줘!

- 태풍이 오면 왜 비가 오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서
- 태풍이 오면 비가 오는게 사실이 아니어서
- 유아에게 적합한 과학 개념이 아니어서

어제 봤던 뉴스 영상이 갑자기 떠오르네 😊

애들아, 밖에 비 온다- 너희 태풍 오면 비가 무조건 온다는 거 알아?

그런데 지금 비 오는데 태풍 안 왔는데요? 왜 태풍이 오면 비가 와요?

아아 그건 말이지...

7월 14일 목요일

한마디 말에도 신중을 가하자



대화를 나누는 대상을 명확히 인지하자

그동안 유아와 대화할 때 내가 주의했던 것은 오직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기', '웬만해선 모든 아이의 이야기에 반응해주기' 였어. 그래서 내가 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는 과정은 뛰어 넘겨버린 거야. 앞으로는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만 n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만 n세와 개별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문을 던지는 교사가 되고 싶어.

교사의 사소한 발문이 지나는 책임감

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의 사소한 한마디도 엄청난 힘을 갖게 해. 그 한마디가 유아의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촉발제가 될 지, 아니면 호기심마저 없애는 독이 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걸 깨달았어. 즐거운 마음만 가지기 보다는 책임감도 지니고 교직에 임하는 교사가 될거야.

END

그동안 유아와 대화할 때 주의했던 것은 오직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기, 아이의 모든 이야기에 반응해주기였다. 그래서 유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과정을 뛰어 넘겨버린 것이다. 앞으로 만 n세와 개별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발문을 던지는 교사가 되고 싶다. 교사의 사소한 한마디가 유아의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촉발제가 될지, 호기심마저 없애는 독이 될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7월 18일 월요일

선생님은 되지만, 우리는 안된다고요?



우리 물총놀이 하기 전에 지켜야 할 **약속**부터 이야기 할게요.

첫째, **사람을 향해 쏘지 않아요.**

둘째, **바다에 미끄러우니 놀이터 언덕으로는 올라가지 않아요.**

셋째, **주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아요.**

만약 약속 안 지키는 어린이 있으면 **선생님이 물총으로 쏠 거니까** 약속 잘 지켜야 해요~

선생님, 아까 사람한테 물총 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선생님만 할 수 있는거야 :)

7월 18일 월요일

선생님은 되지만, 우리는 안된다고요?



**다시
답력으로 갈래**

능동적인 상호작용

안전한 놀이

주도적인 놀이



규칙은 어려서 중요해

교사가 교실의 주체로 존재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해 졌어. 적절한 규칙 또한 절대 빼먹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해!

END

바람직한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규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필요한 규칙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의 주체인 시대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해졌다. 적절한 규칙 또한 절대 빼먹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7월 20일 수요일

올바른 식습관 지도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제점 1) 교사 간 통일되지 않은 기준

얼만큼 먹었을 때 식판을 정리할 수 있는지, 추가 배식은 어느 정도일 때 가능한 지 등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하모니 선생님 간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 아직 많이 남았는 데도 추가로 줘서 결국 버리게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났지.

문제점 2) 아이가 존중되지 않는 식습관 지도

유치원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 반찬을 골고루 많이 먹는 것이 미덕**이었어. 그래서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여러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평소보다 덜 먹으면 더 먹을 수 있다고 부추김을 받았지. 그리고 한번에 많이 먹을 수 있게 국에 밥을 말고 그 위에 각종 반찬을 올려서 막게 했는데, 이는 음식을 즐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받기 쉬워 보여. 즉 아이의 취향과 컨디션은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더라.

7월 20일 수요일

올바른 식습관 지도



다시
답력으로 갈래

내가 생각하는 식습관 지도 방법

내가 생각하는 지도의 목적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쉽게 남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음식이라도 조금씩 도전할 수 있는 즐거운 식사 태도를 길러주는 거야. 그런데 이를 위해서 배식받은 것을 무조건 다 먹도록 교사가 억지로 먹여 주기보다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끼며 먹도록** 이끄는 교육자가 되고 싶어 😊

교사는 아이가 특정 식품군(야채, 육류 등) 중 일부를 싫어한다고 어어기할 때 싫어하는 그 마음도 **존중**하는 것부터 지도를 시작하자!

반찬은 자율배식에 맡겨보자! 싫어하는 반찬 이더라도 한 개는 꼭 먹겠다는 등의 약속을 정한다면 스스로 먹을 종류와 양을 정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볼 수 있을 거야.

적게 먹으면 핀잔, 많이 먹으면 칭찬 NO!

자신의 양에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해.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즐겁게 먹자는 마음가짐을 심어주자!



END

식습관 지도의 목적은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쉽게 남기지 않으면서, 새로운 음식이라도 조금씩 도전할 수 있는 즐거운 식사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끼며 먹도록 이끄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 아이가 특정 식품을 싫어하는 그 마음도 존중하는 것, 반찬은 자율배식에 맡겨보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을 보며 배우고, 조금 더 실질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보았다. 열정과 패기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알맞은 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이 교사의 전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다. 앞서 어떤 교실과 교사를 꿈꾸는지 고민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 다짐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다.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아주 크고 멋진 비행기의 꼬리날개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비행기에 탄 우리 반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탐색하도록 지원해주고 싶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유아의 자율성을 북돋아 주는 교사의 실질적인 기술을 쌓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친구 같은 교사에 갇혀 마냥 다정하기보단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확고한 자세를 지니는 내가 될 것이다. 교실의 규칙 준수, 생활지도 같은 영역은 올바르게 확고한 규칙이 있어야 자유로운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첫 주차에는 친구 같이 다가가서 친해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즐거우면서도 이게 맞나 의심을 많이 했다. 둘째 주차에는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새로운 교육관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교사의 실질적 기술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맨 처음 다정하면서도 모호한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다정하면서도 확고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최우수>

세상을 녹여버릴 다정한 따뜻함으로!

김 민 영
국어교육과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최근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으로 등장한 인물이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다. ‘어린이 해방 선언문’이라고도 부른다. 어린이를 웃게 만들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방구뽕’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도 하고, 어린이가 학교, 학원에 갇혀 자유로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인물이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승합차를 대신 운전해 어린이들을 뒷산으로 데려가 함께 논 탓에 납치 의혹으로 재판에 오르기까지 했지만 말이다.

나는 2022년 5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교육 봉사에 60시간 참여했다. 그리고 방구뽕의 에피소드가 방영된 7월 27일에는 부설 유치원에서의 교육 봉사를 두 번 남기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학교와 학원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던 학창시절을 위로받는 느낌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방송을 보면서 세 번이나 울었다. 드라마는 법정에서 방구뽕과 어린이들이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제창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됐다. 어린이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으려면 세상이 발 벗고 나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어른이라 칭하기도 매우 어색한 나이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상 앞에 앉아 활자와 영상으로만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눈과 마음에 직접 담고 마음껏 뛰

어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외에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배우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는 친절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은 채 살아가고 있을까?’ 복잡한 마음을 안고 밤늦게 잠에 들었다.

유치원에서 교육봉사자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주로 하는 일은 빈 교실과 장난감 소독이다. 아이들이 모두 하원하면 청소기를 돌리고, 교실 바닥을 물걸레 청소 포로 닦으면 된다. 가끔 환경미화를 돕거나 작품에 쓴 아이들 이름을 보고 종이봉투에 나눠 담기도 하고, 정원에 물을 줄 때도 있다. 처음 유치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 텃밭에 토마토와 콩을 심었다. 땅에 구멍을 파 모종을 넣고, 거름과 흙을 적당히 덮어 꺾꺾 눌러 준다. 땅이 흠뻑 젖을 만큼 물을 주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도 뽑았다. 봉사 마지막 날에는 2층 테라스로 나가 큰 화분에 있는 식물에 물을 줬다. ‘5월에 심은 모종이 세 달 만에 벌써 이렇게 자란 걸까?’ 생각이 들다가도, 첫날과 마지막 날 모두 화분에 물을 주다니 나의 교육봉사 경험이 작품이라면 꼭 수미상관을 잘 갖춘 시처럼 느껴진다고 혼자 킁킁대기도 했다.

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 번에 두 명씩 참여하는데, 감사하게도 다양한 학부 선생님들을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분들도 자주 만났다. 가끔 교실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거나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재밌게 대화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유치원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쓰는 교실에 가면 다른 반과 다르게 아기들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던 후배도 기억에 남는다.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감동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이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대화할 기회도 없어 복도에서 이동하는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때, 마스크 위로 최대한 웃으며 밝게 인사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자주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다정이었다. 여섯 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어린이와 친하게 교류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에 붙인 포켓몬스터 스티커를 자랑할 때, 예전에 동생이 만화책을 읽으며 자랑한 걸 들은 기억을 떠올려 얘기할 때도 있었다. 깜짝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리액션을 취하는 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지기

도 했는데, 신이 나서 캐릭터의 여러 이름을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 다행이다.

장난감을 소독기에 넣어두고 다음 할 일을 배정받을 때까지는 주로 2층 자료실에 앉아 대기한다. 자료실 앞에도 교실이 있는데, 동요 '수박파티'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노래 후렴 부분에는 수박을 먹는 소리가 '쭉쭉 쭉쭉쭉, 쓱쓱 쓱쓱쓱, 싹싹 싹싹싹, 쭉쭉 쓱쓱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쭉쭉 쓱쓱 싹' 부분을 여러 번 연습하고 있었다. 반복해서 함께 불러 성공했을 때 들리던 환호성과 노랫소리를 들으니 나까지 행복해졌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작은 행복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린이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요가 어린이에게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놀이시간에 장난감 때문에 교실 바닥이 어지러워졌을 때, '모두 제자리'를 틀어 주면 재밌게 놀다가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장난감 정리를 한다. 다른 친구에게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고, 원래 있던 통을 찾아 정돈한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은 날이 있다. 나도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수화를 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뤄지는 날 환하게 웃으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라는 부분을 부를 때, 눈물이 차올라서 도저히 노래를 부르지 못할 정도였다. 어린 시절의 나는 부모님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며 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쌓아 온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TV를 볼 때 슬퍼하는 지점이 비슷해졌는데, 어른들이 눈물이 많은 이유는 이해할 수 있는 슬픔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와닿은 순간이었다. 아이들도 노래 가사를 이해할까? 나처럼 슬퍼서 중간에 못 부르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모두 씩씩하게 불러 우렁차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꼭 타인의 슬픔을 마주해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꾸밈없고 순진하게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 덕분에 의미가 더해져 노래가 완성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 '어떠한 분야에서 미숙하거나 초보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뜻으로 단어 '어린이'의 절단형인 '-린이'를 붙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유튜브나 sns만 켜 봐도 '헬린이(웨이트 트레이닝 초보

자를 뜻하는 말), '요린이(요리 초보를 뜻하는 말)', '골린이(골프 초보를 뜻하는 말)과 같은 한글 신조어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어린이'는 대개 4,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이를 이르는 말로, 나이가 어릴 뿐이지 미숙한 존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처음에는 그 일을 막 시작한 자신을 어린 아이처럼 귀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감싸는 뜻으로 쓰였는데, 점점 미숙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같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다. 그냥 두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져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지적하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반짝 쓰이다 사라질 수도 있는 단어인데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처음부터 어린이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만든 단어도 아닌데 그냥 써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서툰 사람을 설명할 때 어린이라는 단어로 대신하는 것은 어른의 시선만으로 어린이를 재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삼가게 좋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 시대의 모습을 담는다. 그리고 유행어는 종종 작은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던 한국 사회가 합리적 개인주의자로의 전환에 관심을 기울일 때 '혼밥', '혼술'과 같이 '혼자 생활하는 문화'를 담은 단어가 많이 형성된 것처럼, 언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시대를 훨씬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침투하여 당연하게 쓰이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어린이는 나이로 구분한 범주일 뿐, 미숙한 존재를 나타내는 대명사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그 나이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이 당당해진 시대이다. 아동 혐오로 인한 소음이 특히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요식업 가게나 문화생활을 하는 곳도 안전상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시끄럽고 분위기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의 출입과 이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아이의 손을 잡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노키즈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다는 부모님들의 경험담도 가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왜 가게 출입이 안 되는지 물을 때 사실대로 설명해 주기에 막막하고, "제 나이가 어려서요?"라고 묻는 자녀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할 방법도 없는 데다, 아동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권한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에 묵묵히 다른 가게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한

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눈앞에서 차별을 경험한 아이에게 미안하고 화가 났다.

내가 어린이일 때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나를 생각해 봤다.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동생이 어린이일 때도 거부당한 적은 없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노키즈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항상 어린이 세트라는 이름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먹고 나오는 길에는 작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으며, 동네 감자탕 가게에 가더라도 국물이 끓어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놀이방 볼풀에 들어가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수 세기가 지난 것이 아닌데도 세상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운전, 수리, 서빙 등 간단한 일부터 섬세한 일까지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는데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의식은 퇴보하고 있다. 어린이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한 채, 조금만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하게 성장하며 배울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아이의 작은 소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야 한다. 경험이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며 가정과 사회가 나서서 도왔으면 좋겠다. 더불어, 어린이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어른의 진정한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부설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 있는 것 같다. 여름방학을 막 앞두고 있는 시점에 몇 밤 자고 다시 만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수요일 밤..." 하며 말씀하시는 모습, "우리 열 밤 자고 만나요~"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어느 날은 2층에 올라갔는데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슬쩍 봤더니, 작은 병아리를 구경하고 있었다. 빼약거리는 병아리를 둘러싼 아이들 뒤에는 선생님들이 서 계셨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이 병아리처럼 작고 보송보송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을 가끔 만나는 나조차도 병아리에게 말을 건네며 귀엽다고 말하는 원생들을 보면서 '아기가 아기를 예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치원을 졸업한 지 15년이나 됐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의 얼굴만 가물가물하게 떠오를 뿐 지금은 성함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나도 저런 사랑과 돌봄, 관심과 보살핌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지!' 생각이 들었다.

부설 유치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생도 살갑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봉사 마지막 날인 것을 말씀드리자 파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축하해 주셨던 선생님도 계셨고, 또 다른 선생님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고생한다며 사탕을 한 손바닥 가득 쥐여 주셨다. 한여름에 봉사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한데, 격려와 응원의 말씀 덕분에 60시간의 교육 봉사가 좋은 추억으로 코팅되는 기분이었다.

집에 가려고 가방을 멘 아이가 선생님과 포옹을 하고, 두 사람을 둘러싼 다른 선생님들께서 뿌듯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어린이가 살아가는 사회가 큰 유치원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어제도 만났지만 오랜만에 본 친한 사이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으면서도 헤어질 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곳.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이 당연해서 모래 놀이를 하고 들어올 때 신발을 탈탈 털며 왜 신발 안까지 모래알이 들어오는 것인지 묻는 것처럼 작고 사소한 질문도 괜찮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놀이시간이 마무리될 때쯤 각자 어지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책임과 정리정돈 하는 법에 대해 배우고, 이동할 때 한 줄로 줄을 서 질서가 무엇인지 몸소 경험한다. 하고 싶은 얘기가 하루 만에 많이 쌓여 아기 새처럼 재잘거리도 절대 미움 받지 않는 곳. 경찰관이 됐다가, 요리사도 됐다가, 또 어느 날은 공룡이 되기도 하고 물고기가 될 수도 있는 곳, 유치원처럼 어린이가 가정과 유치원을 벗어나도 언제나 환영받고, 친절과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였으면 한다. 약 네 달 동안 유치원에서 교육 봉사를 하면서, 유치원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큰 키를 가지고 어린이라는 세계를 엿본 결과 어린이는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이의 존재를 언제나 환영하고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들이 많아져서,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고 다정하게 대하는 사랑스러운 문화가 더 크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굳어버린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다정한 따뜻함으로!

<최우수>

교육봉사활동 수기 영상(찾아가는 수업지원단)

방 유 진
음악교육과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예술기반 교육봉사 활동수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음악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함께 즐기고, 함께 연주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다른 수업처럼 굳어있는 게 아니라 풀어진 상태에서 진행해서 좋았어요”
“저의 목표를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적인 관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수평적으로, 제가 오히려 더 힐링을 받는 기회였습니다.



학창 시절 아픔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혜린 선생님께서 항상 한 명만 살리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명이 제가 된 것 같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교단에 서게 되면 학생의 영혼을 살려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상 시청하러가기>



<우수>

꿈을 만들어준 나의 첫 교육봉사

조 현 서
컴퓨터교육과

처음엔 단순히 교육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미래의 교사라고 소개되는 사람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없었다. 직접 학교 현장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 경험을 얻는 것은 나중에 교사가 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경험은 교육 실습 때나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냥 졸업하기 위한 교육 봉사나 채우자' 하지만 교육 봉사 후 나는 바뀌었다. 난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단단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 대학교에 들어오고 처음으로 하는 교육 봉사라 많이 떨렸다. '학생들이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교육 봉사를 하다가 교사가 내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 난 교사에 대한 꿈이 확실치 못했다. 그냥 어찌저찌 떠밀려 오게 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이 앞섰던 것 같다.



처음에 들어간 학교는 '풍광 초등학교'였다. 오랜만에 오게 된 초등학교의 풍경은 꽤 충격적이었다. 6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책상에 똑같은 태블릿을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 들어왔는데도 관심조차 주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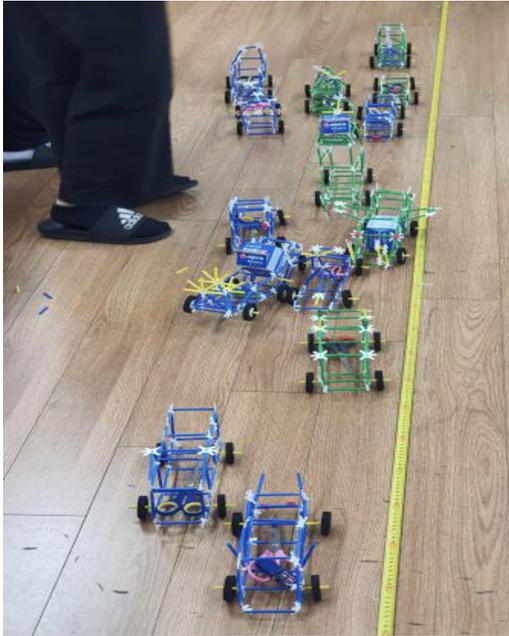
오로지 태블릿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반기지 않아서 놀란 건 아니다. 그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인데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한 명 없이 모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에만 열중한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때 다짐했다. 내가 봉사를 하는 수업 시간 동안 태블릿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어주겠다고.



수업이 시작하고 4D 프레임을 통해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설명을 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튀어나왔다. “아.. 오늘 원래 이 시간에 체육이었는데..” 나도 초등학교 때 체육 수업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느꼈기 때문에 체육보다 더 재밌는 수업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소장님이 간단하게 자동차에 대한 설명과 4D 프레임을 발명하시게 된 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소장님은 수업 전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식은 인터넷에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이를 찾아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얻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해주셨다.

아이들에게 교구를 나누어주고 4D 프레임으로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만으론 지루함을 느끼고 하기 싫어했던 친구들이 점점 몰입하는 것이 보였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더 잘 갈 수 있는지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아졌다. 그 학생들의 질문에 그냥 답만 내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함께 고민해주고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시도해주었다. “자동차들의 모양이 어떤 게 좋을까?”, “자동차의 무게에 변화를 줘볼까?” 등의 질문을 하면서 함께 자동차가 더 멀리까지 가는 방법을 찾았다. 학생들은 절대 그 과정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그냥 답을 달라고 싫증내는 학생도 없었다. 오히려 그 과정들을 즐거워했다. 처음 보는 선생님들이라 우리를 경계하



고 질문하기 힘들어하던 학생들도 함께 수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계를 풀고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었다.

자동차가 잘 나가게 실험을 한 뒤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자동차를 디자인하도록 했다. 교육 봉사를 오기 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봤었다. 내가 디자인한 자동차는 실제로 많이 보이는 자동차의 모습으로 디자인하였다. 나는 학생들의 디자인에 놀랐다. '자동차는 당

연히 이렇게 생겼지'라는 생각이 아닌 정말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나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서 배울 점도 있다고 느꼈다.

학생들과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활동을 끝낸 뒤 인사를 나누고 교실을 나가려 할 때 수업 시작 전과 다른 풍경에 너무 뿌듯했다.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보여주며 학생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첫 교육 봉사가 끝난 뒤 난 생각했다. 학생들이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얻게 도와주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가 되자고.

'풍광초'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그 뒤에 진행되었던 학교들에서는 더 능숙하게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말에 학생들이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수업의 참여도가 좋았다. 중학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약간의 반항심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처음 '일신 여자중학교'로 봉사를 가게 되었을 때는 살짝 긴장했다.



다른 학교에서의 봉사는 한 반씩 담당했지만, 이번에는 2개의 반을 한 번에 맡는 수업이라 더욱 걱정되었던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소장님이 수업 초반 간단한 설명을 할 때 제대로 듣지 않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앉아서 춤을 추는 친구들도 있었다. 활동이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4D 프레임 재료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먼저 하도록 하였다.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은 제대로 활동을 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일단 난 학생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로 했다. 아이돌 걸그룹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내가 아는 아이돌 걸그룹 이야기를 하며 조금 친해질 수 있었다. 학생들도 처음 보는 선생님에 대한 경계심을 풀게 되었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덕분에 학생들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놀이처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과 가까워지게 되니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질문도 어렵지 않게 하고 4D 프레임 재료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에게 자랑도 했다. 특히, 마지막 기념 촬영 때 학생들이 가운데에 자리를 만들어주며 "선생님 여기 앉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되어서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주었을 때 아마 내가 선생이 되어서도, 오랫동안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았다.



나는 어느 정도 학생들과 선을 지키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너무 친구 같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항상 엄격한 선생님이로서 남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너무 엄격했던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겨도 질문하기 힘들었다. 또한, 진로에 대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등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힘들었다. 학생들과의 선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정하기 어려운 기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전, 그리고 교사가 된 후에도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이번 봉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가까워지는 방법과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선생님, 이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 해주시면 안돼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다. 난이도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일이라도 자신이 해서 자동차 전체를 망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저 머리가 진짜 안 좋아서 느리고 공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못해요.” 순간 너무 안타까웠다.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했다. 학교의 공부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까. 조금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나는 그 당시 학생에게 “절대 아니야.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친구가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봤을 때 친구는 제일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해주었다. 내 말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는지, 친구는 자기가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던 단계까지 스스로 했고, 결국 멋있는 디자인의 자동차도 만들어 자랑하였다.

이 일을 이후로 또 하나의 다짐이 생겼다. ‘학생들이 성적만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지 말자’ 라는 다짐이다. 교육과정 상 아이들을 성

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등수를 매기는 것까지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테지만 적어도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야겠다는 다짐이었다. 어떤 한 드라마에서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하고 온 친구가 70점을 맞았다고 삼촌에게 자랑한다. 삼촌은 앞으로는 100점 맞도록 노력하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아이는 “괜찮아. 백 점 맞은 애보다 행복하게 살면 돼.”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학생들이 할 수 있음에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 다그치고 잘못됐다고 화를 내어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음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해도 그 학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세상에 많고 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 닷새 동안 참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갔다. 교육 봉사 전 누군가가 “왜 교사를 하고 싶어?”라고 묻는다면 “그냥... 방학도 있고 어쩌다 보니 사범대에 오게 되어서...”라고 답했겠지만, 봉사를 마친 지금의 나는 “나 때문에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 보람차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 행복해서”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떤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처음으로 하는 교육 봉사라 많이 부족했겠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교사로서의 그려지지 않았던 나의 미래가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수>

동백나무와 동백새처럼

강 하 빈
영어교육과

나는 한국교원대 교육기부추진단에 소속되어있기에 총괄단의 지위를 갖고 22 하계 방학에 무극중학교 교육현장활동(교육봉사)을 가게 되었다. 무극중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진행되는 어울림 캠프였다. 나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많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어울림 캠프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다른 때와는 조금 달랐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번에는 설렘보다 걱정이 컸다. 나는 학생과 교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울림 캠프의 특성상, 아이들과 언어 자체만으로 소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사전답사 때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 선생님께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나는 '학생증'이라는 단어 외에는 어떠한 말도 알아듣지 못했다. 학생들이 해당 단어 외에는 러시아어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니 '아이들과 유대감을 쌓고 가까워질 수 있을까?' '심지어 캠프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걱정이 되었다. 두 번째 걱정은 나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었다. 나는 주변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만나본 적이 없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캠프를 하기 전까지 해당 가정의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혹시 내 무의식중에 편견이 있으면 어떡하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하였다.

걱정을 한껏 갖고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 되었다.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생각보다 한국어를 잘하고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는 거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의 한국어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었다. 아무리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해당 학생들을 위해서 번역기를 활용하여 소통했다. 다행히 학생들 또한 번역기를 활용해서 소통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대화하려는 모습을 비춰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이들이 캠프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언어와 관련된 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나는 학생들을 만난 당일 아침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내 수업 시간 배정이 그렇다 보니 수업 준비는 학생들의 언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고 어떤 수준의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였고, 시각 자료인 그림과 사진을 많이 첨부하였다. 또한, 수업의 키워드는 학생들의 언어로 수업 자료에 적어 놓았다. 다행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잘 따라 오고 있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고, 안도했다. 그런데 해당 수업 시간에 정말 놀라웠던, 아니 사실은 충격적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건 바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본인들이 편한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로 대화를 하니 정말 혼란스러웠다. 그래도 나중에 무슨 대화를 했냐고 물어보니 다행히 한국어로 대답은 해주었으나, 그 대화를 듣던 그때의 심정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다. 세상이 나를 왕따 시키는 느낌이었다. 정말. 수업 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교사는 수업 진행뿐 아니라 교실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위해 학생들 간의 대화 내용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들이 학급 친구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으며 혹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지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본인이 편한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한국어로 해달라고 부탁

을 해도 무의식중에 해당 언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솔직히 정말 답답했다. 왜? 아이들이 본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없어서. 해당 캠프 기간 동안은 학생들이 다 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누군가를 따돌리는 상황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혹시 내가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걱정도 많이 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수업에 대한 내용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해한 척을 한 것은 아닐까?', '본인들끼리는 이게 뭘 소리냐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우려 또한 되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동시에 한 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 갔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해당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말도 많이 걸고, 더욱더 많은 관심을 주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처음에는 낯을 많이 가려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는 러시아어로 잘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어라...? 한국어가 서툴러서 말을 안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그렇다기에는 우리의 질문이나 말은 또 잘 이해한 거 같은데...?' 라는 의문도 들었다. 물론 친구들과는 이미 안면이 있고 친하기에 대화를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 한국말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또 대답을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언어가 서툴러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많은 고민을 했다. 만약에 내가 캠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일 때 저런 학생을 만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언어를 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지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우선일지. 내가 실제로 교사가 되어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이 언어가 잘되지 않아서, 다른 언어가 훨씬 편하니까, 본인들끼리는 해당 언어로 소통이 되니까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에 그런 모습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실 이번 활동이 끝나고 계속 생각을 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까지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학부 생활을 더 하고 많은 교육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거 같다.

교육현장활동에서는 교과 수업뿐 아니라 멘토링도 이루어졌다. 내 멘티 학생

은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었다. 내가 하는 말도 집중해서 듣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다. 학생은 본인이 12살 때 한국에 입국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다. 현재 15살이었기에 한국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뛰어나서 많이 놀랐다. 그리고 이때 내가 'ㅇㅇ야! 너 한국말 엄청 잘한다' 라며 칭찬을 했고 학생은 '아니에요... 아직 잘 못해요' 라며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근데 이날, 잠에 들기 전 내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말을 잘한다' 라는 표현이 과연 진짜 칭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내 무의식에 편견이 있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학생들은 한국인이다. 다만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너 한국어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가? 나는 한 번도 주변 친구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다. 사실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말한 것이었고 학생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이런 무의식 속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 내가 아직 정말 미숙한 사람이고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학생과의 대화에서는 일상 얘기나 좋아하는 것 등의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진 점이 있었다. 요즘 중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지. 그래서 멘티 학생에게 학교 다니면서 힘든 점은 없냐고 물어봤다. 답변으로는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하게 쉬는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수업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등 내가 10대일 때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고 웃음도 나왔다. 그런데 저러한 답변들 외에 그때 말해준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바로 전교생 중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은 본인 혼자라 외롭다고 한 점. 사실 저 한 마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내가 캠프기간 동안 맡은 학생들만 봐도 다수의 학생이 러시아에서 왔다. 그렇기에 해당 친구들은 본인들끼리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본인들의 음식, 가수 등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혼자만 온 경우에는 참 외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내 멘티 학생의 경우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였기에 괜찮았지만 만약에 한국어 수준이 좋지 못했다면 학교에서 특정 내용을 번역해줄 수 있는 친구도 없을 것인데, 외로움 이외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다. 학생과의 대화에서 한국어 학급의 선생님 중에서도 베트남어를 구사하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더 마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한 명의 학생을 위해서 교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멘티 학생이 말한 '외롭다' 저 단어를 듣고 참 마음이 복잡했다. 학교 교사는 한 학생만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실제로 저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학생들을 챙겨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른 한 가지는 코로나로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붙어있으면 선생님께서 떨어지라고 말씀을하시고, 급식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못 먹는다는 것, 하루 종일 마스크 쓰는 것 등이 조금 속상하다고 말을 해주었다. 참 내가 뭐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다. 물론 나도 10대 때 코로나를 겪었기에 그리고 지금도 같이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의 마음에 정말 공감이 갔다. 학생 때 친구들과 재잘재잘 얘기를 하며 밥을 먹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생활 중 가장 큰 재미였는데 이걸 못 하게 막는 상황이 참 잔할 뿐이었다. 동시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시면서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도 이번 캠프 때 마스크를 잘 쓰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마스크를 잘 써달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미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떼어놓아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불편하셨을 거 같다. 내가 10대일 때 선생님들께서 나와 내 친구들에게 '떨어져라', '붙어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괜히 서운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니 늦게나마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얘기 뿐 아니라 멘티 학생이 학교에서 외부인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갑고 재밌는 거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다. 이 얘기를 듣고 캠프기간 동안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 같다.

학생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 선생님들 그리고 무극중학교 담당 교사와 대화를 통해서 '다문화 학생 학급'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무극중학교의 한국어 학급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할 때 선생님들의 태도가 몹시 중요하다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다문화' 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그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된다면 1년 내내 혹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 내내 학생의 이름은 '다문화'가 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이 '야 다문화, 너 교무실로 오래.' '재는 다문화라서 그런 말 이해 못 해.', '다문화! 너네 대상으로 진행한 캠프 재밌었냐?' 등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문화' 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한 표현인가? 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 저 단어 자체의 의미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과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저 말 자체가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해당 표현을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제 '아 재가 다문화 학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학생들이 한 교실에 함께 있을 것이기에, 누가 다문화 학생이고 누가 한국인 학생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물론 나부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미 '다문화 학생' 혹은 '다문화 가정' 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내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번 경험은 새까맣게 잊고 또 자연스럽게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 같다. 그렇기에 나부터 해당 단어를 지양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캠프는 아이들에게 정말 정이 많이 갔다. 한국어가 잘되지 않아서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서투른 한국어 실력임에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모습 자체가 너무 예뻐고 사랑스러웠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문화'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굳이 사용하자면 다문화 학생 아이들의 매력인지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것을 잊을 수 없다. 또한, 내가 이번 캠프에서 배운 중요한 한 가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 내가 교육현장활동을 가기 전 가장 많이 걱정했던 부분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거 같다. 학생들은 교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잘 파악하더라. 몇몇 학생들이 ‘○○쌤은 ○○랑 친한 거 같아요!’, ‘○○쌤이 ○○이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같은 조에 속한 교사와 학생이었기에 내가 봐도 충분히 아이들 눈에 티가 날 수 있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특정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아낀 것은 사실이었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해당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부분이었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작년까지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학생일 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더 좋아하는지 혹은 싫어하는지,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지 등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학생들에게는 다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진심이 더 잘 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유대감을 쌓고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단순히 언어가 통하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오히려 그 어떠한 것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고 진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학교 현장은 정말 변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배웠다. 변수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이번에 경험한 것만 해도 갑자기 텔레비전 전원이 나가버린 경우,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른 점, 수업에 필요한 교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학생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 상황 혹은 오지 않겠다고 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서 발생한 인원수 변동, 시간표 변경, 수혜 학생 코로나 확진 등 변수가 많았다. 사실 나는 변수를 정말 싫어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겉으로는 변수가 발생해도 애써 관찮은 척,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척을 한다. 하지만 나는 변수가 발생하면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사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변수를 해결하는 능력치가 좋지 않기 때문인 거 같다. 하지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변수를 마주했을 때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나의 능력치를 기

를 수 있었다.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겪은 일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범위의 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에 변수를 마주했을 때 차분히 대응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고 이번에 그러한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이번 교육 봉사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 봉사와 달리 뿌듯하다는 감정 외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 내 무의식에 있던 나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 다문화학교 현장의 모습,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학생도 교사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학생이 교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나 또한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제목을 '동백나무와 동백새처럼' 라고 정한 이유 또한 앞서 말한 것에 근거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이번 경험이 내가 미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 같다. 이번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우수>

처음이라 서투른 새내기 초보교사, 숙련된 교사가 되기까지

현 윤 아
일반사회교육과

귀여웠던 꼬맹이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항상 답은 같았다. “제 꿈은 선생님이예요” 초등학생 땐 다양한 문구류와 함께 잘 배치되어 있는 선생님의 책상, 그리고 교실을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선생님의 권한이 부러웠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을 땐, 학생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화기애애한 반 속에서 선생님의 밝은 웃음을 많이 봤다. 그 웃음이 너무 예쁘고 행복해 보여서 나도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난 늘 교사를 꿈꿨다.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진 내 모습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고 너무 일편단심이었던 탓에 고등학생 시절 혼란의 시기도 있었다. 내가 진짜 교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너무 오랫동안 꿈꿔와서 그 껍데기만 남은 채 맹목적으로 쫓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교사라는 직업과 잘 맞을지, 너무 다른 미래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닐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 하지만 진로에 관련하여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꿈을 다잡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아낌없는 애정으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나만의 교직원관을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교원대에 입학했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기분에 난 너무 행복했다. 교원대에는 의지만 있다면 교직에 관해 고민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매 방학마다 진행되는 교육봉사인 교육현장 활동이다. “교원대생이라면 교활 한 번은 꼭 가보는 걸 추천해

드려요” 라고 워낙 많은 선배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활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SNS에 너무 뜻깊었다고 언급하며 게시물을 올린다. 그래서 갓 입학한 새내기 시절부터 교활은 꼭 한번 가고 싶었고, 마음이 맞는 동기와 열심히 준비해 그해 겨울 첫 교활을 가게 되었다.

2022.1.15 / 동계 교육현장활동 직후 작성했던 일기

교활을 다녀오고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미안함’인 것 같다. 아이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의 반의반도 돌려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이번 경험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의 노력을 통해 더 큰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활을 준비하며, 모든 선생님들이 그랬겠지만 정말 실제 수업 시간의 몇 배가 되는 시간을 부었다. 아마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수업까지 합쳐서도 가장 준비시간이 길었던 수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준비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듬은 수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걸 배웠다. 보드게임을 만들며 그 속의 요소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용할 언어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했다. 노키즈 존, 이주민에 대한 복지 등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다뤘기에 더더욱 조심했던 것 같다. 그리고 수업 후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왜곡 없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실제 수업을 진행하며, 아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학생들을 앞에 두고 내용을 설명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나 표정 등이 나에게 너무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나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수업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며 의기소침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며 내가 아직 많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아직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도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교사마저 혼란스럽다면 그 교실은 분명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교활을 통해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방

법으로 강해질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러한 점은 보조교사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더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 강한 선생님들이 참 많았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생님 같고 굉장히 그 속이 단단한 것 같은 선생님들. 정말 부러웠고 배우고 싶었다.

너무 예쁜 수곡중 아이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지금 모습 그대로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 앞길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만 있길, 그리고 언젠가 닥칠 힘든 일도 아이들이 더 먼 길을 나아가는 데에 자양분이 되길!

교활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행복하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수곡중 아이들을 쏘스윗 칠드런으로 소개했다.

쏘스윗 칠드런 알럽유.

“초보교사와 숙련된 교사의 차이는, 초보교사는 ‘난 지금 잘하고 있나’를 물어보고 숙련된 교사는 ‘학생들이 잘하고 있나’를 물어본다는 것이다.”

교직으로 교육심리학을 공부하며 인상 깊게 본 문구이다. 첫 교활, 처음으로 교단에 서보고 학생들을 마주한 나는 아마 꽤 많이 어린 초보교사였던 것 같다. 내 설명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내가 수업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이전의 수업 경험이 없었기에 나 자신을 믿고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 되뇌었다. 무언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내 수업과 내 설명에 나조차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교활을 통해 나의 부족한 점을 인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확신이 있어서 어딘가 나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지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부드러우면서도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강단과 포스가 멋있었고, 나도 꼭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교활을 끝마치며, 난 내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여러 고민거리를 선물 받았다. 하지만 큰 걱정은 되지 않았다. 학교생활을 하며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 언젠가 나도 숙련된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응원이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며 힘들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리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은 꼭 좋은 교사가 되실 거예요”라는 아이의 편지는 책상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는 2학년이 되었다. 사실 새내기 때는 정말 자유를 만끽하는 1년을 보낸 것 같다. 밤새도록 술도 마셔보고, 무계획으로 여행도 떠나보고, 다양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 가장 걱정 없이 행복했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학교 활동은 열심히 참여했는데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도 이수해보고, 교내 기자단 활동도 했다. 놀기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학교 활동도 해야 해서 정말 바쁜 한해를 살았지만,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다면 바로 학업이다. 정말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들만 해서 겨우겨우 이수한 느낌이었다. 코로나 19로 대학에 와서 강의실 한번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만을 했기에 내가 대학생이라는 것과, 대학 수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으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참 해맸던 것 같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교활을 다녀온 후 2학년이 되어서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교활에서 느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앞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수업마다 교수님이 발표자를 지원받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학생이 되려고 노력한 것 같다. 사실 가장 자신이 없는 한국 정치 과목의 발표를 지원할 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지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해보자!”라는 생각이었다. 사회학 과목의 발표는 수업 시간 3시간을 책임져야 하는 발표라서 부담이 컸는데 그래도 일단 지원했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단순히 체력적인 힘듦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과 압박감이 다가왔다. 정치 과목 같은 경우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분야기에 여러 논문과 책 한 권을 읽고 발표 자료를 구성했는데,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의 걱정을 넘어 내가 지금 구성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 적절하게 분석한 걸까?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한 건가? 라는 생각에 정말 오랜 시

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다. 발표를 어떻게 할지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이날은 혹시 없을까 봐 아침에 밥도 못 먹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안고 도전한 이 날의 발표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나에게 정말 새롭고 마법 같았다. 뭔가 이 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불안해서 머릿속을 막 굴리기보다는 머릿속은 정말 안정적인 상태였음에도 말이 술술 나왔고, 무언가 발표에 내가 홀린 듯한 느낌이었다. 또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나의 발표에 홀리듯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발표는 잘 끝나있었다. 입시에서의 공정에 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친구는 입학사정관 한 명이 왔다 간 것 같았다고 해주었고, 교수님 또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을 잘 짚었다고 칭찬해 주셨다. 이날을 계기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나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달될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후 다른 발표들을 하면서 이 확신을 더욱 확실하게 쌓아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수업에 대한 확신이 생겨갈 즈음에 여름방학이 되었고 나는 하계 교활을 떠났다.

2022.7.16. / 하계 교육현장활동 직후 작성했던 일기

이번 교활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다. 뭔가 체력과 마음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은 시기에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애정과 사랑을 쏟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행복한 교사만이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반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밝고 행복한 기운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에 아이들과 함께할 40년, 늘 컨디션이 좋고 좋은 기운을 많은 주는 교사가 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이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 교사,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좋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강한 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도 나의 문제로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무지막지한 교사가 아니었음에 다행하면서, 그래도 교활 시간만큼은 즐겁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칭찬해 주고 싶다. 이러하여 교활 일과 후 시간

에는 정말 말 그대로 죽어있었던 것 같아서 다른 선생님들과 더 친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혹시 피해를 끼쳤을까 봐 걱정되기도 한다. 이후 교사 생활을 하며 퇴근 후 내 일상을 위해선 정말 체력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rule of law 수업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끝난 것 같다. 피구 같은 경우 여러 학생들과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크기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피구 진행 시간이나, 그 게임의 밸런스 같은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3분반 모두 잘 끝마친 것 같다. 또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며 수업을 하는 경험을 몇 번 겪고, 이번 교활에서 같은 수업을 3번 진행해보며 이제는 수업 전에 심적으로 많이 긴장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가장 부족한 건 교과 개념에 관한 공부와, 여러 배경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시켜주려면, 내 확실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회적 현안과 배경 지식을 정확히 알아야 그냥 글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개념을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번 수업에서도 그저 법의 글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 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뉴스도 잘 챙겨보는 편이 아니고 배경 지식이 많은 편도 아니다 보니 평소에 스쳐 들었던 이야기들을 엮어서 예시를 겨우겨우 들었다. 내가 더 똑똑해 지면 더 좋은 이야기와 설명을 통해 더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가 교사의 역량과 굉장히 직결되기에, 이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현안도 자주 들여다봐야겠다.

5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 그렇지만 교활에서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추억들은 빨리 휘발되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내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새내기 때와는 달리 나에게 대한 확신을 채우고 간 하게 교활에서의 수업은 만족스러웠다. 아이들이 내 설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눈빛으로 전해져서 너무 뿌듯하고 안심이 되었다. 이번 교활에서 새로 생각하게

된 것은 교사의 마음 건강에 관한 것이다. 사실 1학년 때는 마냥 해맑고 걱정도 없었고 “사람”이라는 존재를 꽤 좋아했던 것 같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즐거웠다. 그런데 2학년이 되어서 휴·복학 등으로 인간관계가 변하면서 혼돈이 있기도 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주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상처받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무언가 사람을 좋아하고 쉽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사람을 경계하고 마음에 벽을 세웠던 나날들이 있었다. 지금은 다시 회복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고 잘 지냈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며 힘들었을 때였고, 교활도 그 기간과 겹쳤었다. 사실 교활 같은 경우는 시간이 5일 정도로 짧은 편에 속하고, 나의 힘듦도 심각하다기보다는 가벼운 정도였다. 그러기에 내가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까칠하게 굴거나 애정을 쏟지 못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 남은 힘을 다해서 적어도 같은 조 아이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러나 분명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다른 분반 아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은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체력이 가득하다면 지나치면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이름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는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이번 교활을 하며 이후에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잘 추스르고 최대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일상에서 행복을 잘 찾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속한 반이 아닌 다른 분반에 수업하러 갔을 때, 사실 나는 그 수업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저 내 수업을 실수 없고 깔끔하게 잘 끝마치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분반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분반에 속한 선생님과 후에 이야기하다가 그 분반의 한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남겨준 코멘트를 보게 되었다. 선생님 한 명 한 명 이름마다 특징과 매력이 매치되어 있었는데 내 이름도 있었다. 그 종이를 보고 처음에 그 선생님께 말했다 “난 이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친구는 나를 되게 잘 기억해주네. 신기하면서도 고맙다.” 그러자 그 선생님은 “우리는 아이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아이들은 다 기억해요. 선생님들의 수는 적고, 한 시간 동안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니깐요.” 정말 당연한데 그동안의 나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수업하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

면 나는 한 명인데 아이는 여럿이다. 아이는 오직 나만 바라보며 수업을 듣지만, 나는 눈앞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갈 관심과 애정의 정도가 작아진다. 반에 아이가 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아이들 각자에게 줄 수 있는 애정의 정도가 1이라면 내가 받는 정도는 20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적기에, 그리고 내가 흘러가며 한 말도 아이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에, 교사는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만큼 내 개인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낀다. 또 한창 사춘기의 예민한 아이들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한 마디 한 마디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아직은 이렇게 내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교사가 되기엔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작년 교활에서 느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반드시 채워나갈 것이다. 교육 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조금 더 명확해졌다. 이렇게 계속 성찰하며 열심히 달려간다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지식 전달의 측면에서도 숙련된 멋진 교사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새내기 초보 교사, 숙련된 멋진 교사가 되는 그날까지! 나의 여정을 응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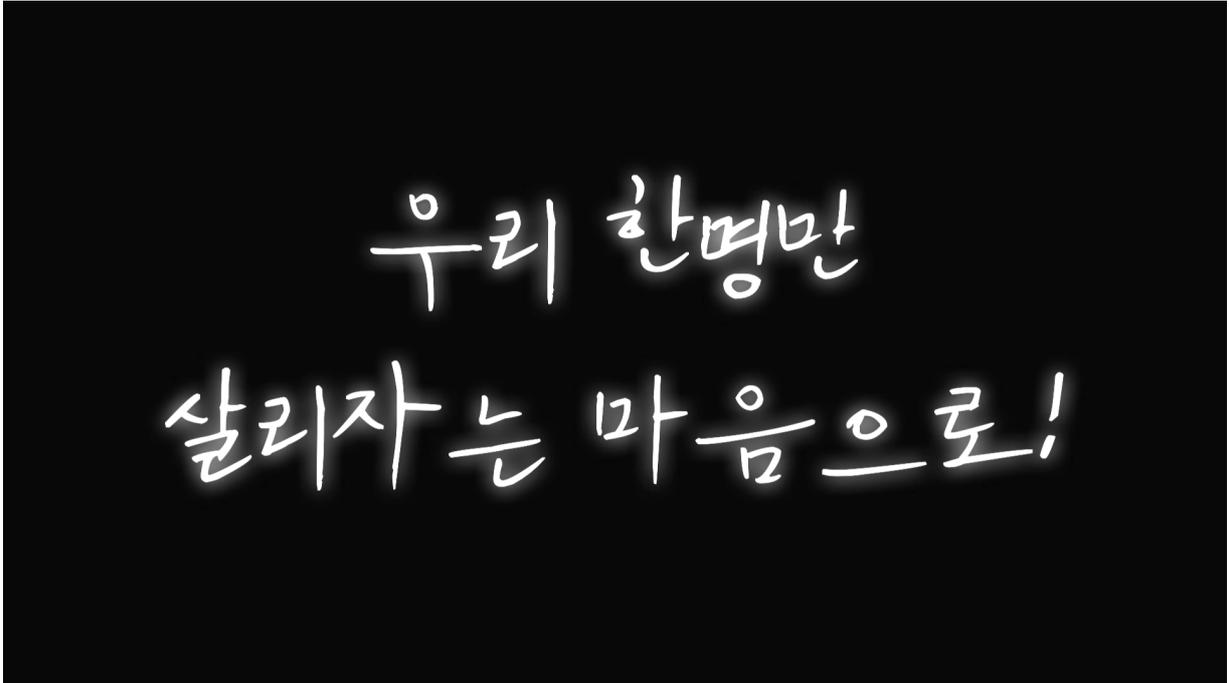
<우수>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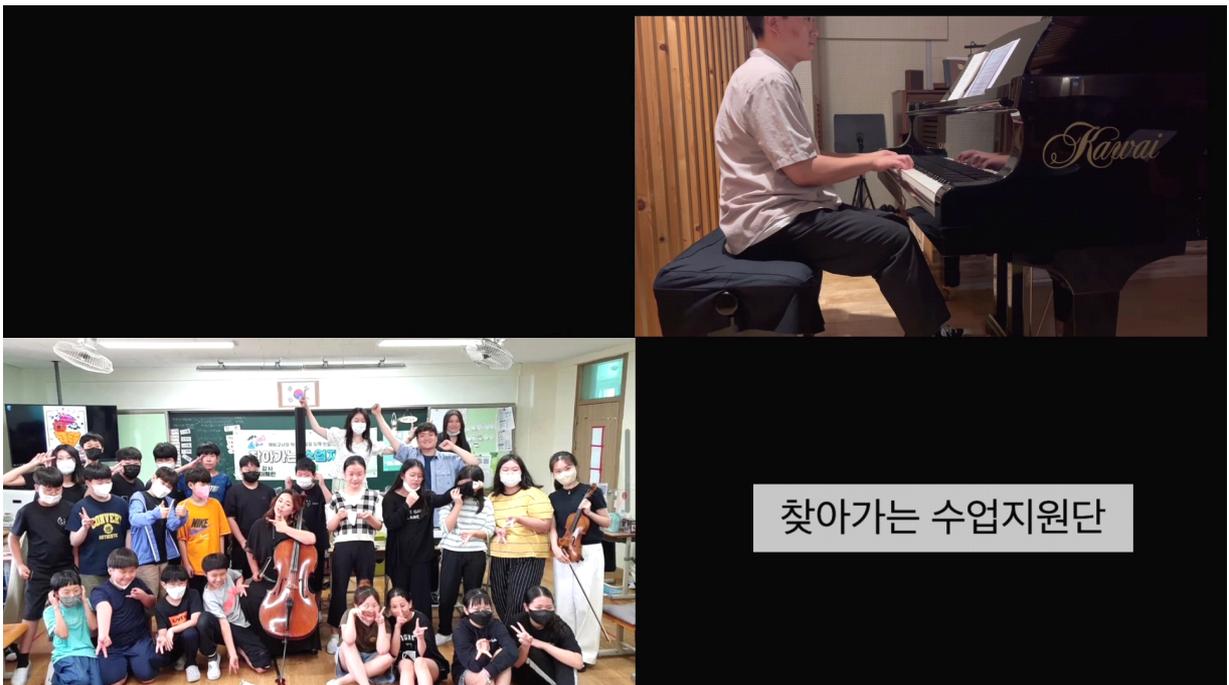
권혁주
일반대학원 음악교육과



여러 진로 탐색 프로그램 중에 예술기반 자아 탐색을 했고, 학교 현장이 처음이었던 난 신나고 설레고 또 두려웠지 학교 경험이 없던 나였기에 아이들 앞에 서 있을 손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지. 방해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첫 학교 들어가기 전,
첼리스트 이해린 강사님은 우리 예비교사들을 모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한명만 살리자는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나중에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가
된다면 이번 교육봉사의
기억들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제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생들을 마주해 예비교사의 면모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가 된다면, 이번 교육 봉사의 기억들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러가기>



<장려>

교육봉사 7문 7답

황 채 운
컴퓨터교육과

Q2. 어떤 교육봉사를 하셨나요?

A.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 참여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전문가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주로 보조하는 교육봉사였고,
전문가 진로탐색 프로그램 4가지 중
저는 **4D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Q3. 프로그램 4가지 중 왜 4D프레임을 선택하셨나요?

A. 전문가 진로탐색 프로그램에는
4D 프레임, 키네틱 아트, 밸런싱 아트,
예술기반 자아탐색이 있었는데,
재료를 이용해 **무엇이든 만들어 낼 수 있는**
4D 프레임에 끌려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4. 교육봉사 중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A. 전문가님께서 4D프레임으로 **무동력 자동차**의 원리와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저는 보조교사로 학생들을 도와줬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Q5. 교육봉사 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처음으로 교육봉사를 하려고 하면

'내가 직접 수업을 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 있는 데 제가 한 교육봉사는
처음에 전문가의 교육 활동 보조로 참여하여
수업 진행에 대한 부담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며

교사보다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6. 교육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A. 마지막 활동에 처음으로 **교단에 서서 수업을 진행** 했는데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2학년이라 아직 실습을 나가지 않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삼아 미리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원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떨리고 걱정도 많았는데 학생들이 대답도 잘해주고 잘 따라와 줘서 수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장려>

그것이 알고 싶니

나 은 하
컴퓨터교육과

Q1. 교육봉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듣기, 인디, 북
그것이 알고 싶니?

CERI
융합교육연구소
Convergenc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나은하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나은하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 융합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수업지원단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체험활동과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수업은 밸런싱 아트로, 초, 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사님의 소개와 강연, 공연, 교구 체험, 협동 학습까지 크게 4단계의 수업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Q2. '소개와 강연'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나은하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강사님이 걸어오신 길들을 소개하는 중입니다.

강사님께서 본인은 40살의 늦은 나이의 중심잡기라는 재능을 찾았다고 하시고 그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가능성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셔서 올라가기 무서워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다리 중심잡기를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중심잡기를 시작한 데에는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고정된 관념에 머물지 말고 항상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얻는 강연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40살의 늦은 나이에 중심 잡기라는 재능을 찾았다고 하시고, 그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가능성이 담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오셔서 올라가기 무서워하는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불어 넣어 주니까 많은 학생들이 사다리 중심잡기를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중심잡기를 시작한 데에는 사물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고정된 관념에 머물지 말고 항상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얻는 강연이었습니다.

Q3. '공연'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나은하

빈병들을 활용해 중심잡기 공연을 하는 모습입니다.

강사님께서서는 중심잡기 전문가이시지만 가끔은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저도 가끔 실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분명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라고 하시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구나를 알려주는 인생관이 담긴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사님께서서는 중심잡기 전문가지만 가끔은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실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분명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때까지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구나를 알려주는 인생관이 담긴 수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4. 왜 하필 빈병들을 사용했나요?



나은하

공연에 사용되는 병들은 모두 버려진 병들입니다.

병들은 버려지면 부서진 다음 낮은 단계로 재활용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너무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구가 오염되면서 또 어떤 전염병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버려지는 빈 병들을 공연에 재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지구와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사다리 중심잡기에서 사용했던 사다리 또한 버려진 사다리를 재활용 한 것입니다.

병들은 버려지면 부서진 다음 낮은 단계로 재활용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너무 많은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구가 오염되면서 또 어떤 전염병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버려지는 빈 병들을 공연에 재활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지구와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또한, 사다리 중심잡기에서 사용했던 사다리 또한, 버려진 사다리를 재활용한 것입니다.

Q5. '교구 체험'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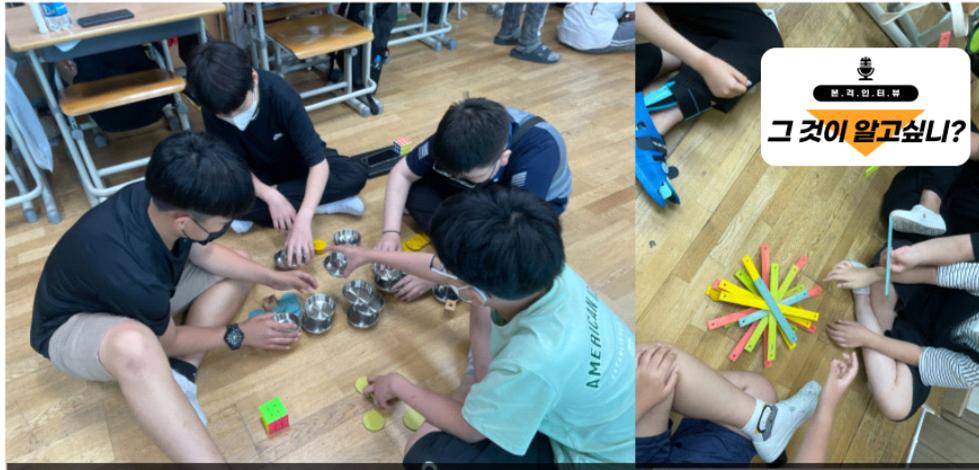
나은하

교구는 동전, 그릇, 스틱 세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교육봉사 기간동안 만났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준비된 교구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 중심잡기를 위해 호흡은 가다듬고 천천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밸런싱 아트의 특성상 한 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쌓아줄 수는 없고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도록 의욕을 돌아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면 기특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평소 생활 또한 끈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교육봉사 기간 동안 만났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준비된 교구로 1단계~4단계까지 한정된 시간 동안 중심잡기를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밸런싱 아트의 특성상 한 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쌓아줄 수는 없고 옆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도록 의욕을 돌아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성공해내는 모습을 보면 기특함을 느끼는 동시에 나의 평소 생활 또한 끈기 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Q6. '협동학습' 부분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나은하

4명씩 모둠을 형성하고 사용했던 세가지 교구들을 모두 사용합니다.

형성된 모둠별로 지금까지 배웠던 중심잡기 방법들과 가지고 있는 교구들을 모두 모아 창의적인 본인들만의 중심잡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학습입니다. 혼자서도 물론 새로운 중심잡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여러명에서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내는 중심잡기는 비교도 안되는 크기와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협동학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다른 모둠의 중심잡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를 막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심잡기 수업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형성된 모둠별로 지금까지 배웠던 중심잡기 방법들과 가지고 있는 교구들을 모두 모아 창의적인 본인들만의 중심잡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학습입니다. 혼자서도 물론 새로운 중심잡기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여러 명에서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내는 중심잡기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와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협동학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다른 모둠의 중심잡기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고, 이를 막지 못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중심잡기 수업의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Q7. 마지막으로 느낀점 말씀해주세요.



나은하

교육 봉사에 수업을 돕는 역할로 참여했지만 저 또한 수업을 들으며 얻는 점이 많았습니다. 요즘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조금씩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하는 재능을 결국 찾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의 수가 많을수록 한마디씩 더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정말 어려웠고 주의집중을 위한 나만의 수단을 마련해야겠다고 느끼고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봉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 신청하세요!

교육봉사에 수업을 돕는 역할로 참여했지만 저 또한 수업을 들으며 얻은 점이 많았습니다. 요즘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을 찾기 위해 조금씩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하는 재능을 결국 찾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한마디씩 더하게 되면 수업 진행이 어려웠고, 주의집중을 위한 나만의 수단을 마련해야겠다고 느끼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접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봉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찾아가는 수업지원단에 신청하세요!

<장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도전의 교육을 경험하다

남 규 빈
국어교육과

교실에 변화가 있기까지

“이 균형잡기를 할 수 있다! 손들어 볼까요?”

처음에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을 때, 반에서 한두 명만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수업 막바지에는 과연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지금부터 학생들이 이토록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수업 진행

나는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 활동에서 ‘밸런싱 아트’ 보조 교사로 수업을 진행했다, 다양한 교구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처음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그렇기에 수업 참여도도 수업 초반에는 낮았다.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대부분 학생이 생각하기를, 이러한 균형잡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다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봉사에 임했다.

우선, 균형 잡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 한 명 한 명 순회를 돌며 연신 “할 수 있어!”를 외쳤다. 중간 중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직접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쉬운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성취를 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더 쉬운 단계에서 성공한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결과물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 학생이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을 칭찬해 주었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나는 균형잡기를 잘할 수 있다!”를 다시 물어봤을 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손을 들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균형잡기 결과물을 만드는데에 성공했기 때문에 손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물을 다 완성하지 못한 학생들이 손을 들기도 했었는데, 도전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러 학년을 찾아가 교육봉사에 임하면서, 학생들을 도와주며 관찰해본 결과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우선,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반에 부정적인 반응,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는다. 실패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주변에서의 부정적인 반응이 점점 쌓이면서 ‘역시 난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이러한 생각이 결국 도전을 막게 된다. 부모님 다음으로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인 교사로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게 실패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취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나는 교육봉사로 수업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과제를 직접 해주지 않았다. 교사로서 안내자의 역할만 했을 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결과물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했다.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렇기에 나는 교사로서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노력한 과정

을 칭찬해 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음에 따라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도전을 계속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전의 용기를 줄 수 있음을 학생들의 반응에서 직접 배울 수 있었다.

용기를 주는 교사

처음에는 ‘놀이 교육을 지도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물론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교사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에서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도전을 통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우선, 실패를 지적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노력한 과정을 인정해주자. 학습자가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주어야 하며, 도전을 통해 학습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느꼈다.



교실에 변화가 있기까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수업 지원단' 활동에서 '벨런싱 아트' 보조 교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교구를 가지고 균형을 잡는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의 처음 반응은?

부정적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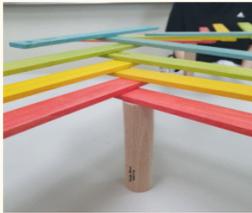
"대신 해주세요"



"못하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ㅋㅋ"

"어차피 안 될 걸요?"



교실에 변화가 있기까지

두렵다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봉사에 임했습니다.



"넌 특별해"



"다음 단계도 해볼까?"

"우와, 해냈는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교육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학생들에게 안겨주는 데에 꼭 딱딱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놀이 교육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교육에서 도전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도전을 통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교육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학습자가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주어야 하며, 도전을 통해 학습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 느꼈습니다.



<장려>

해피 음성스타그램

김 지 호
국어교육과



Happy Eumseong ♥



_zz1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1일 차



♥ 좋아요 210,125개

_zz1ho 오늘은 음성고 2분반 아이들과 2분반 총괄선생님으로서 처음으로 만난 날이다!
어색하고 낯선 교실 분위기를 풀어 줄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준비해 갔는데
아이들이 좋아해 줘서 기분 좋았던 하루 !!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던 1, 3 모둠 친구들과 가까워져서 좋으면서도,
다소 조용한 2 모둠 친구들과는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고민이다 ㅜㅜ



Happy Eumseong ♥



_zz1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2일 차



♥ 좋아요 210,126개

_zz1ho 2일차인 오늘은 1모둠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은 날!

총괄 특성상 수업 시간엔 뒤에서 사진을 찍거나 선생님들 수업 보조를 해야 하기에 온전히 수업을 들을 시간이 적은데, 이렇게 모둠의 일원이 되어 아이들과 소통하니 훨씬 가까워진 것 같다. 함께 모둠활동을 하다 보니 전날엔 몰랐던 점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나에게 조금씩 장난 치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고 교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면 아이들도 그에 화답해 마음을 연다는 것을 깨달았다!



Happy Eumseong ♥



_zz1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3일 차



♥ 좋아요 210,127개

_zz1ho 3일 차,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간 날 ♥

어느덧 캠프 중반부에 접어들며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건네는 인사가 익숙해졌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았다. 아침은 먹고 왔는지,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부터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명확해졌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살갑게 맞이해주는 아이들이 유독 예뻐 보였던 하루 :)



Happy Eumseo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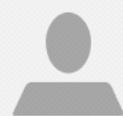
_zz1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4일 차



♥ 좋아요 210,128개

_zz1ho 4일 차, 담임 선생님은 잠시 내려놓고 멘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가간 날 3일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맞춰 강연을 준비하였다. 4개의 분반 중 우리 반을 제외한 다른 반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 이어서 설레기도 하였고, 내가 준비한 주제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긴장감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목소리도 떨리고 준비했던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ㅜㅜ



Happy Eumseo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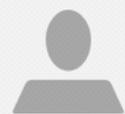
_zzl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4일 차



♥ 좋아요 210,128개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멘토링, 첫날부터 파워 E 성향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었던 나의 멘티들이 복도에서부터 나를 반겨주었다. 강연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아 풀이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였다. 긴장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며 열심히 위로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고마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동안의 나는, 교육봉사를 내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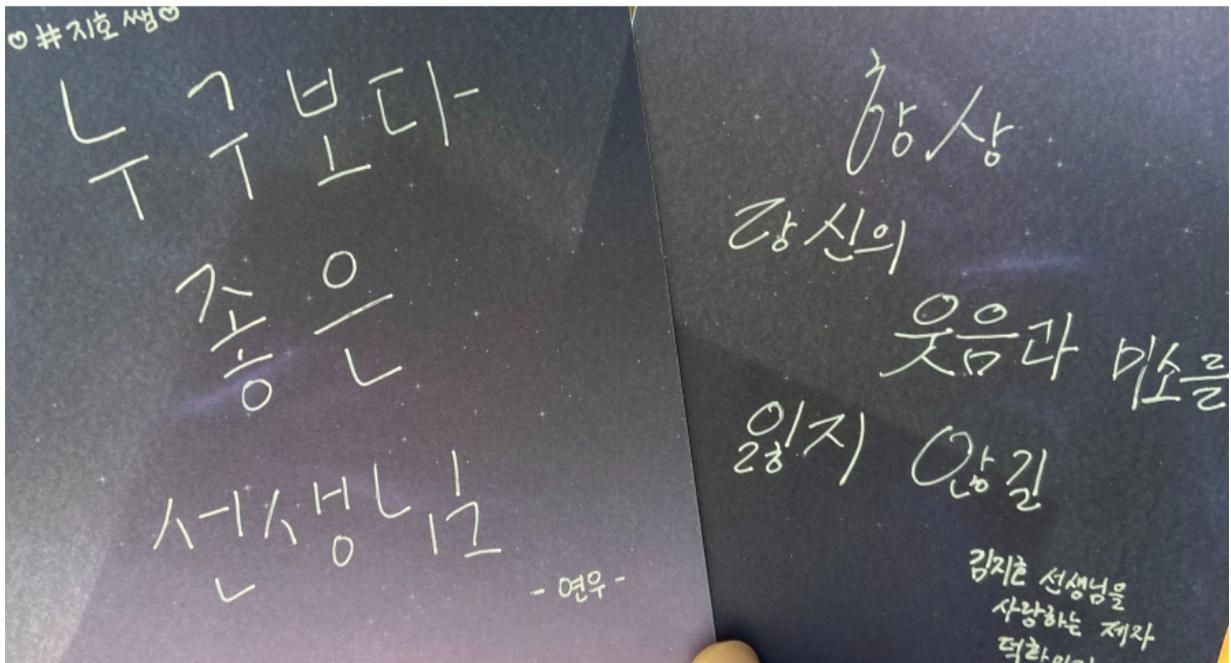


Happy Eumseong ♥



_zzl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4일 차



♥ 좋아요 210,128개

이제 겨우 4일을 함께 보냈을 뿐인데, 나를 '누구보다 좋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나의 웃음과 미소가 영원하길 바라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예쁜 마음들이, 또 그러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교육 현장 활동이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내일이면 이 아이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이 마냥 서운하고,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하루였다.



Happy Eumseong ♥



_zz1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5일 차



♥ 좋아요 210,129개

_zz1ho 5일 차, 이렇게 벅차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던 우리들의 마지막 어느 추운 겨울날, 조금 더 자고 싶은 방학의 유혹을 이겨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보냈던 4박 5일간의 음성고등학교 교육 현장 활동도 끝이 났다. 처음엔 카메라를 낯설어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카메라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을 보니 새삼 귀엽고 5일 동안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는 선생님이로 다가가고자 했던 나의 진심이 전해진 것만 같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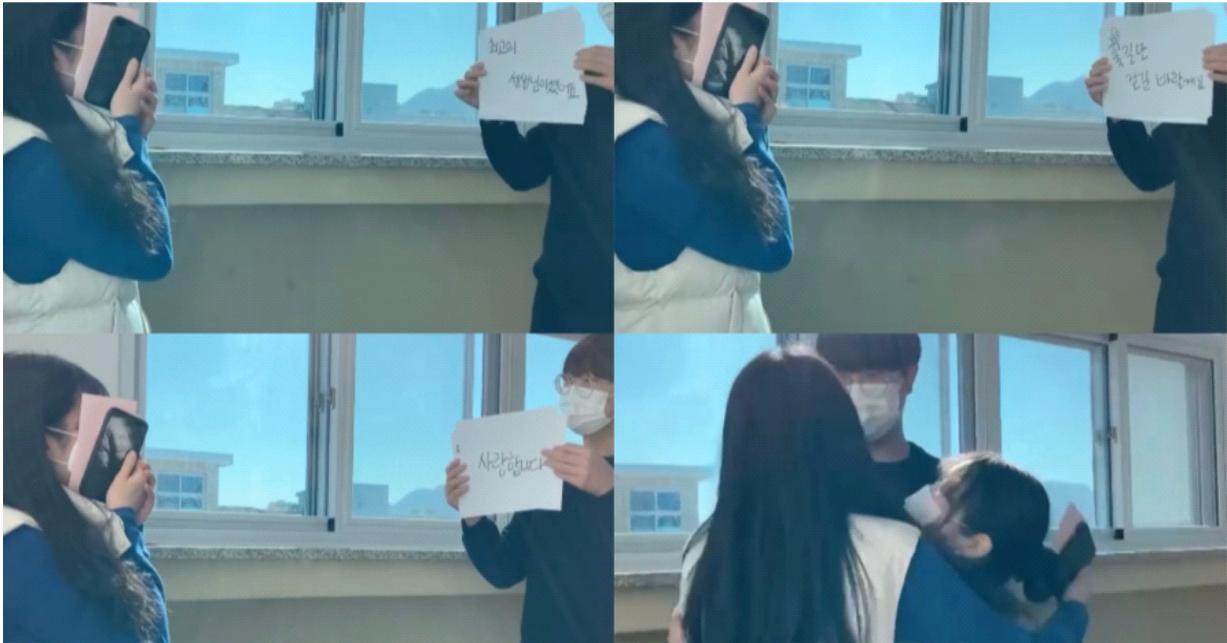


Happy Eumseong ♥



_zzl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5일 차



♥ 좋아요 210,129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로 정신없던 나를 멘티들이 급하게 찾길래 나가보았더니, 세상에... 이렇게나 귀여운 스케치북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었다...♥
나를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캠프 기간 내내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용기를 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우리 아이들은 캠프가 끝나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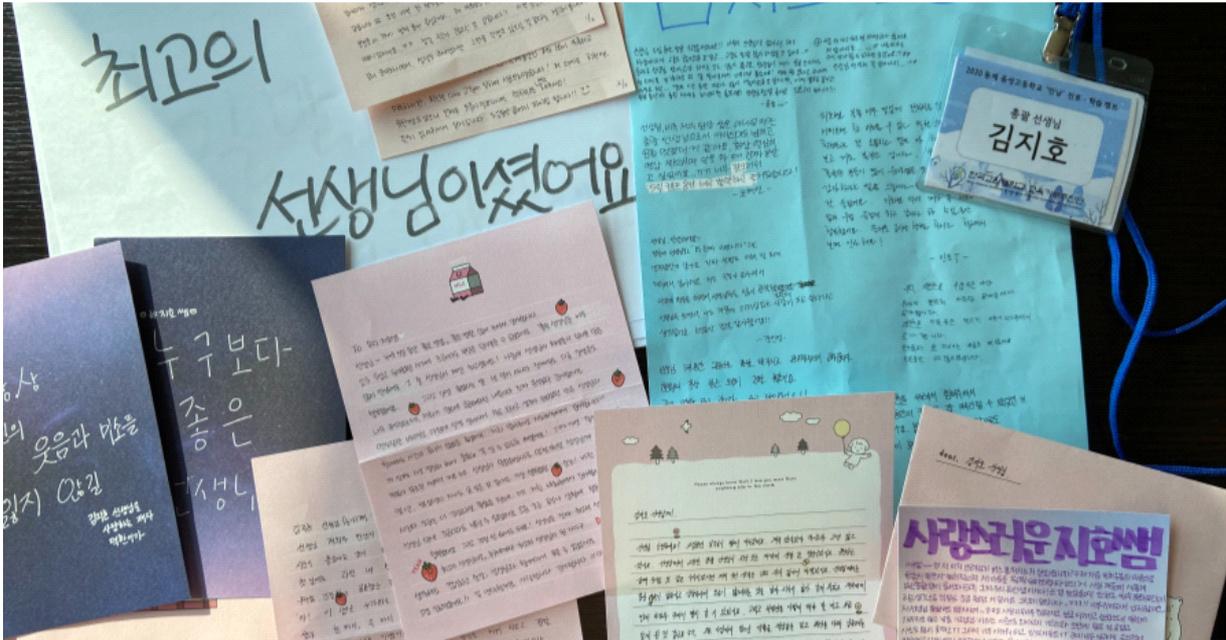


Happy Eumseong ♥



_zzlho

두근두근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5일 차



♥ 좋아요 210,1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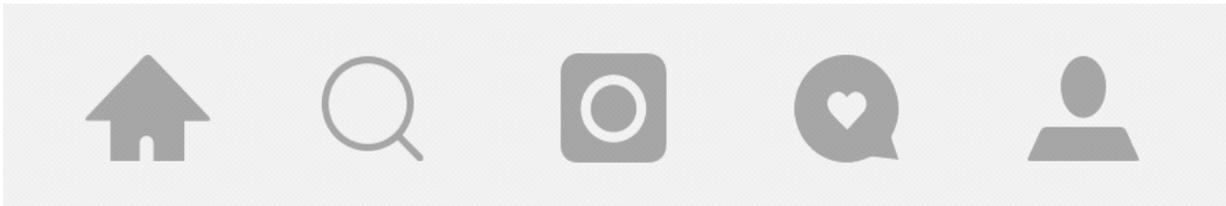
음성고 아이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행복은 '나는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아이들과 있을 때 행복하고

내가 받았던 것만큼 나도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음성고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은 앞으로 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힘이 되어줄 것 같다.



Happy Eumseong ♥



_zzlho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 그 이후

:01 ↩



지호쌤~요즘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텐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안부인사 드리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라 저 쌤이랑 한 국어 1등급 받기 약속 1학기에는 지켰어요~ 😎

공부하면서 쌤이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공부하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학기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국어 1등급 굳히겠습니다 🔥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올려볼게요 ㅎㅎ

아 그리고 공부하면서 궁금한 거 있음 종종 여쭙봐도 될까요?^^

쌤 감사합니다~ 😊

저 이번에 3모 국어 2등급 받았어요! 이 기세로 중간고사 국어 1등급 받을겁니다 ㅎㅎ 쌤도 화이팅하세요~!



넘넘 기특하다 🥺🥺❤️❤️ 올해 너가 하는 일들 다 잘 풀릴거야 ✨ ✨ ✨ ✨ 수고우 ㅎㅎㅎ 앞으로도 파이팅 (3 3) 3 3



♥ 좋아요 220,826개

음성고 교육 현장 활동이 끝난 지 일 년이 훨씬 넘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수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까지도 나에게 꾸준히 연락을 주며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신뢰감을 주었던 멘토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고마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직 교육봉사가 낯선 당신이라면,

내가 느꼈던,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행복을 꼭 !! 느껴보길 권한다.



<장려>

두 계절 속 아름다움

안 유 림
윤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기부추진단원으로서, 2022년 1월에 진행된 2022-1학기 동계 교육현장활동과 2022년 7월에 진행된 2022-2학기 하계 교육현장활동을 모두 청양읍에 위치한 청신여자중학교로 다녀오게 되었다. 교육현장활동이란, 방학 중 교육 소외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교원대 학부생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수업하며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캠프이다. 캠프를 이끄는 총괄단의 위치였기에 프로그램 선생님이로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반의 담임 선생님이로서 반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교감한 시간들이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소중하여 글을 적게 되었다. 하나의 학교에서 진행한 두 번의 교육 봉사 활동이 나에게 가져다준 것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전한 소중한 마음들을 되짚어보며 웃음과 열정이 넘쳐흐르던 청신여자중학교의 따듯했던 겨울과, 시원했던 여름을 기록해 보려 한다.

여름의 청신여자중학교. 방학 전 수도 없이 선생님들의 수업 약안을 읽고, 피드백하고, 여러 회의를 거듭하며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표를 걸고 학교 현장에 들어갔던 순간이다. 교원대학교 학생들과 총괄단을 환하게 맞아주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앞으로 교사로 나아갈 수많은 노력들 속에서 청신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떠올리며 지치지 말고 좋은 교육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해주신 말씀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해 주던 학생들의 환한 얼굴에 가물가물해서 잊

히고 있었던 나의 중학교 시절이 겹쳐 보이며, 정말 선생님이라는 역할로 교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유독 빠르게 뛰었다. 담임 선생님께서 맡은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아홉 명의 선생님과 열두 명의 아이들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나에게도 낯선 아이들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낯선 대학생 선생님들과 갑자기 수업하게 된 아이들이 훨씬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어색하게 진행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다. 교사라는 꿈을 안고 교원대학교를 진학했지만, 한 번도 교탁 앞에서 본 적도 없었으며, 어린아이들을 마주하는 경험도 처음이었다. 나의 미숙함이 혹여나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수업을 재미없어 하지는 않을까 하며 교육현장활동이 시작되기 전날 밤까지 수없이 고민했다. 결국 다짐한 것은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오자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많은 교육 봉사를 경험했지만, 시리게 추웠던 1월의 첫 교육 봉사 경험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말 많이 바꾸어주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이 세다. 그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 이유가 물론 미래의 교직 생활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기억 속에 행복함을 가져다준, 따스했던 선생님이로 남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학생이 내 이름 석 자를 떠올릴 때,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을 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벅차게 행복할 수 있다.

아이들의 속도는 모두 달랐다. 한 아이는 계속되는 질문에도 쑥스럽고 부끄러워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반면, 한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호기심을 보이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빠르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다가오는 아이도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대답 대신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참 귀여워서 내 방식대로 학생에게 마음을 표현했다. 대답을 재촉하기보다는 응원과 칭찬으로 말을 끝맺고, 한 번이라도 이름을 더 불러주며 인사를 건넸다. 지칠 때쯤 수줍게 대답하고 배시시 웃는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기특해서 밝음을 유지하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고, 또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기에 더욱이 학생들 앞에서는 밝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수업이 끝나고, 활기차게 마무리한 종례가 끝나면 저절로 끝났다는 생각과 함께 피곤함과 지침

이 밀려 들어왔다. 이 상태로는 절대 다음 날 조례를 활기차게 시작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일이 많아 잠을 설치 눈동자가 뻥뻥해도, 교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눈꼬리가 휘어지게 웃어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절로 지친 마음이 다 내려가는 듯했다. 눈웃음으로 가득 찬 인사 한번이면 하루 종일 활기차게 수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실제로 그랬다.

학교라는 공간은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발을 들여놓는지에 따라 참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다. 교복을 입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니. 교탁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처음 겪는 상황들에 당황하다가도, '나도 중학교 때 이러했지, 나도 선생님께 이렇게 대했지'와 같은 생각을 한번 떠올리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아이들의 경계하는 눈빛이나 어색함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선을 넘어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만이 들 뿐이었다. 진심을 전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5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다. 처음에는 인사도 잘못하던 아이들이 5일차가 되면 눈물이 그렁그렁 한 채로 다가와 안긴다. 빨개진 눈가로 편지를 슬쩍 건네며 가지 말라고 발목을 붙잡는 아이들. 이렇듯 순수한 마음을 또 어디에서 조건 없이 받아볼 수 있을까. 오직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나눌 수 있는 진심과 사랑은,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성적이던 친구가 수료식이 끝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다가 펄펄 울며 내게 폭 안겨 오는데,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고 있다. 혹여나 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더 신경 써주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지 밤마다 뒤척이던 시간들이 그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의 첫 교육봉사와,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던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때 확신했다. 동계 교육 현장활동이 끝난 후 기억을 되짚어가며 부족했던 점을 찾으려 했을 때도 오히려 사이사이 깃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나를 웃음 짓게 만들어주었다. 나는 생각보다 이런 작은 기억들에 행복해하고, 어린아이들이 건네는 한 마디에 마음이 아려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온 시간이기도 하다. 선생님의 역할로 참가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 배워온 것이 더 많다. 내가 선생님이로 아이들 앞에 서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이들의 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에 대해 배웠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들은 교육현장활동의 마지막 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능력일까?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청신여자중학교에서 잊지 못할 따뜻함을 선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2학년의 신분으로 다시 청신여자중학교로 교육봉사를 떠날 기회를 얻었다. 겨울과 달라져 있을 여름의 아이들이 참 궁금했고, 살면서 처음 느끼던 새로운 감정들을 안겨준 중학교 건물에 다시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했다. 처음의 미숙하고도 벅차던 경험을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겨울보다 더 성장한 내가, 겨울보다 더 성장했을 아이들을 다시 마주하고 나눌 여러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되었던 것 같다. '처음'이라는 딱지를 뗄 때, 느낄 또 다른 새로운 감정들도 기대되었다. 청신여자중학교의 시원했던 여름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눈이 펄펄 내리던 기억 속의 교정과 달리 햇살이 짹짹 내리쬐고 있는 푸르른 교정이 눈에 들어왔다. 6개월 만에 다시 청신여자중학교에 들어서자, 첫 교육현장활동에 참가하여 정신없이 수업 준비를 하던 모습, 설레던 조례와 종례 시간의 교실, 휴게실과 교실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던 모습, 종례를 마무리하며 다 함께 웃던 모습, 수업 보조와 식사 보조를 위해 총괄단들과 함께하던 겨울의 추억들이 진하게 남아있었다. 또한, 들어가자마자 마주친 학생들은 "유림 선생님!"이라고 소리치며 나를 꼭 끌어안았는데, 지난겨울보다 훨씬 밝고 성숙해진 학생들을 보자 아이들 한 명 한 명과의 추억이 떠오르며 웃음이 났다. 같은 학교를 연속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6개월 전과 달라진 아이들의 성격, 아이들의 성장 같은 것들 말이다. 중학생들은 날이 다르게 빠르게 크지만, 그것을 실감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감이 났다. 발표하는 걸 누구보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던 1학년 친구는 2학년이 되어 학년이 높아지며 먼저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고, 나서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타인보다는 자신의 말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던 친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과 기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잣말을 하던 친구는 이제 상대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상대의 말을 귀담아듣는 성격으로 변했다. 잘 웃지 않던 친구는 눈만 마주쳐도 배시

시 웃는, 웃는 게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키도, 마음도 쑥쑥 자란 아이들을 다시 마주하고, 5일간의 교육현장활동 동안 아이들의 성장을 하나씩 알아챌 때마다 그 크고 작은 성장들이 반갑고 기특했다. 다시 청신여자 중학교를 찾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아이들을 처음 만났던 겨울의 설렘이 나도 모르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편 성장한 사람은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뜻하지 않게 발견한 나의 성장도 꽤 많았다. 지난 교육현장활동 중에는 한 번도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롭게 겪는 일들이 꽤 많았다. 같은 조에서 작은 트러블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그 특정 조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수업을 보조할 때마다 살짝 아슬아슬했었는데, 결국 한 친구의 감정이 상해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에 울먹이던 친구를 데리고 자초지종을 묻고 위로해 준 기억이 난다. 내게 털어놓으며 울먹거리던 친구가 씩씩하게 다시 그 친구와 웃으며 지내는 모습이 기특하고 예뻐서 아직 생생하게 기억난다. 잘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옴과 동시에 뿌듯함이 밀려 들어왔다. 감정이 상한 학생을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불리 아는 척하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게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나에게 낮을 가리던 그 친구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경계를 풀고 다가와 주기도 했다. 중학생은 감정적으로 예민할 시기이고,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이며 주변 친구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전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이다. 천진난만함과 어른스러움이 가장 잘 묻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였다. 나는 이럴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랐는지, 이럴 때 친구들은 어떤 선생님을 원했는지 학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 애썼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교육현장활동이 진행되며 발생한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내가 한 걸음 더 성장했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교육현장활동을 처음 갔을 때도, 다시 갔을 때도 항상 다짐했던 것은 일부러라도 이름 한 번 더 불러주고, 그저 옆에 있기만 해도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눈 마주치며 웃자는 생각이다. 거창한 포부는 가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학부생이며, 진정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에 대한 물음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아이들을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랑은 사소함에서 출발하기에, 위와 같이 사소한 것들로 교육현장활동을 짝 채우고 오자는 다짐을 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사진 한 장, 종이쪽지 한 장에 추억이 담기고 마음이 담긴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사소한 마음 한 조각들이 모여 교육봉사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다. 한 명의 학생과 한 명의 선생님이 인연을 맺는 과정도 같다. 그렇기에 최대한 이름을 빠르게 외워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려 애썼으며 작은 눈 맞춤에도 눈웃음으로 답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두드림으로 변한다. 수많은 학생들 중에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옛 학창 시절 때도 느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어도 특별하게 기억되기 마련이다. 또한, 때로는 말없이 웃어주는 것,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더 큰 친밀감과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나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사소하고 세밀한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다. 편지나 짧은 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에게서는 정신없었던 동계 교육현장 활동의 마지막 날, 일정을 진행하기에 바빠 모든 아이들에게 작은 글귀라도 남겨주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있다. 촉박한 시간이 발목을 잡은 탓에 내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들을 모두 전달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크지만 5일 동안 주고받은 마음으로 오롯이 전달되었으리라 믿었고, 하계 교육현장활동을 다시 참가하며 그 믿음이 사실이었음을 느끼고 왔다. 인연과 인연에서 오는 사랑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현장활동을 다녀오면서, 사소한 것들, 빈말일지라도 건네는 한 마디가 나와 상대를 웃음 짓게 한다면 그 한 마디는 서로의 기억에 얼마나 오래 남을지에 대해 생각하기도 했다.

두 번의 만남과 헤어짐, 청신여자중학교에서의 교육봉사 활동 기회가 앞으로 나에게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이 많았지만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 성격이었기에 이전 교육봉사가 끝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별의 순간은 그리 슬프지 않았던 것 같다. 맑게 웃어주며, 우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 짓고 싶었다. 청신여자중학교를 나와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까지 떠나는 선생님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주는 아이들을 뒤로하고, 대학교로 돌아오는 길에서야 눈물이 났다. 나를 울린 것은 두 명이 건넨 편지였

는데, 겨울과 다르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며 훌쩍 커버린 친구들이 꼭꼭 길게 눌러쓴 편지였다. 선생님은 언제나 웃어주셔서 좋았다. 따뜻하게 다가와 주셔서 행복했다는 내용 뒤에, 어김없이 따라붙은 사랑한다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겨울의 첫 교육현장활동을 마치고도 울지 않았던 나인데, 평평 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글을 써 내려가며 버스에서 울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아리고, 울적함을 가져다준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의 내 시선이 따뜻했다는 증거이기에 이제 그 울적함조차 좋게 받아들이려 한다. 교육봉사를 하며 한 가지 알게 된 점이 있다. 학교에서는 내가 베푼 사랑이 배로 돌아온다. 그 걸 알기에 아낌없이 주려고 했고, 늘 준 사랑의 배로 돌려받았다. 한 명 한 명과 오롯이 나눈 말들은 적었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이 크게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봉사에 참여했다. 진심으로 건넨 말에 아이들이 반응하는 것만큼 몽글몽글한 기분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생각보다 더 어리면서, 생각보다 더 어른스럽다. 가르칠 입장이지만 항상 더 배워오는 건 무슨 일인지. 학교는 아직 어린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다.

‘교사’란 무엇인가? 교사를 꿈꾸는 학부생들을 매일 만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고 해도, 결국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누군가는 수업을 완벽하게 끌고 나가는 교사를 지향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를 지향할 것이다.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답은 나뉘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청신여자중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캠프가 시작되는 1일차 아침마다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언급한 동계 때의 말씀보다 이번 하계 때의 말씀이 더 기억에 남는다. 예비교사로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평생의 교직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셨다. 이후 교사가 되더라도, 대학생 때 가졌던 교사라는 꿈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겨울에 해주셨던 말씀과 비슷했지만 새로움과 떨림에 제대로 곱씹지 못했던 겨울 때와 달리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나의 열정과 사명감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교육 봉사에 참여하는 목적을 ‘수업’에 두지 않았다. 학생들과 능숙하게 교감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회피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수업을 구상

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에는 아직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낼 시간이 많지 않은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학생이며 함께 인연을 만들어 나갈 시간들이다. 사람을 마주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함께 성장하고, 한 명의 사람을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교사'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갈 아이들을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각자의 길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받쳐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나의 2022년도 겨울과 여름은 청신여자중학교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덕에 내가 살아온 어떤 계절보다 빛났다고 말할 수 있다. 종이에 적힌 짧은 글과 길게 눌러쓴 편지에 담긴 사랑,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에 담긴 사랑, 함께 껴안고 울고 웃었던 기억에 묻은 사랑들을, 가벼워서 글로 가라앉힐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감정들을 꼭 기억해야겠다.

<장려>

반짝반짝 작은 별이 큰 별이 될 때까지

김 다 운
초등교육과

1장) 대외활동 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

반짝이는 법을 까먹은 어두운 별 하나. 그건 바로 고등학교 3년간 내신 관리, 수능 공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찌들어있었던 나였다. 반짝거림을 되찾고자, 대학교에 들어가면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해보겠다는 목표 하나로 멘토링, 봉사활동, 국제실습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나의 목표는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외활동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이 고팠던 나는 거의 모든 대외활동에 지원했고, 경험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밤을 새우고 밥을 굶어가며 참여하기 바빴다.

2장) 산 넘어 산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어.

여느 때와 같이 대외활동을 물색하던 중,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쏙쏙 캠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최소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던 나는 같은 과 동기들에게 함께하자고 했다가 '안 한다'는 답변을 받는 게 두려워서, 학교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참가자를 모았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거절당할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는 쏙쏙 캠프에 같이 참가하실 분 계시나요...?”, “저요.”, “저도 같이하고 싶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해요!”로 모이게 된 모두 다른 전공의 학우들. 나 혼자만 초등교육과였는데, 나는 한번도 중·고등학생을 가르쳐본 적도 없었기에 수혜 학년을 정하기에 앞서 걱정을 많이 했다. “초등학생을 수혜 대상으로 정하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초등학생으로 할까요?” 이로써 내가 팀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뿔싸, 내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학년도 낮은데, 몇 안 되는 경험과 지식으로 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으려나? ‘무’ 상태인 2박 3일간의 프로그램을 ‘유’로 창조하여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할지 감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심지어 서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른 전공을 가진 조원 중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는 조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는 조원, 뭐든지 다 좋다고 대답하는 조원, 중간에 나가는 조원. ‘내가 막내이고 어려서 그런가? 그럼 내가 팀장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도맡아서 해야겠지?’ 하지만 팀장이 도맡아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문서를 다 작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인원이 적어도 진심으로 참여할 사람들만 남기기로 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나를 포함한 3명, 이는 모집 조건의 최소 인원과도 같았다.

3장) 최강의 소수 정예, 그리고 고마우신 멘토님

다행히도 열정을 가지고 뚝뚝 뭉친 3명은, 각자가 두 명의 사람만큼의 능력을 내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 ‘선발 합격’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학교 정문에 있는 ‘완행열차’와 이번 활동의 이름인 ‘쏙쏙 캠프’를 합쳐서 ‘쏙쏙 열차’라는 팀명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범죄 수사 해결 스토리로 수업을 구상했다.

처음에는 3명마저도 전공이 다 달랐기에, 수업 구상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오산이었다. 화학 교육과 학우가 있었기에, 학생들이 실험할 때 위험하지 않은 대체 약품을 찾는 것이 수월했다. 그리고 윤리교육과 학우가 있었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간단한 교육과

안내자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고작 3일을 수업하는데, 준비하고 또 고려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아이들이 루미놀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화학약품은 학생들이 실험한 뒤에, 가정에서 처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속담이나 관용구에 대한 개인차가 클 텐데, 모르는 학생들은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수업 내용에 대해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면 어찌지?”

범죄 수사와 과학 교과를 엮었기에 난도가 상당히 높았고, 활동 꾸러미를 직접 제작 및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해 보면서 학생들이 실험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을지 미리 검토하고 보완해야 했다. 또한, 차시마다 영상 자료가 필요했기에, 팀원들과 직접 스토리라인을 짜고, 수정에 수정을 거쳤다. 하지만 우리 팀에게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칭된 멘토님이 계셨기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을 수업을 구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4장) 전쟁터 같았던 교실, 아니 화상 회의실

교실이 아닌 화상 회의실에서 하루에 3시간씩 총 3일. 학생 수는 많지만,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3명. 그리하여 전체 인원의 1/3씩 돌아가며 수업을 맡기로 했다. 아이들과 서로 친해지고 마음을 터놓기에는 주어진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쩔 수 없이 화면만 보여주고 혼자 떠드는 수업이 될 것만 같았다. 열심히 수업을 구상하고 자료를 준비해왔지만 말이다.

D-1일.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지?, ‘화면이랑 마이크를 다 끄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몰래 휴대폰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들로 밤잠을 설쳤다.

드디어 D-day. “안녕하세요. 으뜸 초등학교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과 3일 동안 함께할 김다운 선생님이에요.”라는 말이 무색했다. 아니,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성빈아, 너 잘살고 있냐?”, “우와 아린아, 오랜만이다.”, “나 오늘 아침으로 볶음밥 먹고 왔다.”, “나 철봉에서 떨어져서 깁스했어.”, “선생님은 누구예요?”, “언제 끝나요?”, “저 오늘 가족 약속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채팅을 주고받는 학생들도 다수였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낙서하거나 채팅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해볼까요?”, “킁킁, 싫은데요?” 그리하여 급하게 주석 달기와 채팅을 막았더니 “선생님, 채팅이 안 되잖아요. 화면에 글씨가 안 써져요. 빨리 풀어주세요.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저도 수업 안 들어요.” 나 혼자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고, 혹여나 수업을 잘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결국 쳐 주고 말았다.

어른인 나도 ZOOM으로 실시간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힘든데, 나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힘들까? 그 마음을 알았기에,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과 실험 등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업에서 오는 재미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오는 재미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전쟁을 위해 많은 총알을 준비해두었지만, 정작 가지고 있는 총에는 그 총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과도 같았다.

5장) 년 이름이 뭐니? 저는 귀요미요.

“귀요미가 해볼까?” 학기 초에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했을 때, 혹은 갑작스럽게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귀요미’라고 불러주면 아이들이 거부하면서도 좋아한다는 현직 교사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재미와 웃음을 주고 싶어 수업 초반에 현직 교사분의 방법처럼 귀요미로 불러보았다. 아이들은 ‘귀요미’라는 단어가 좋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웃음 포인트였는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서로를 귀요미라고 부르고, 귀요미로 불리길 원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이들을 귀요미라고 불러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좋아하고, 웃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백 번 천 번 귀요미로 불러줄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일 다른 학생들을 만났지만 ‘귀요미’ 덕분에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으며, 퀴즈, 게임, 영상, 실험 등 각 차시에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발표하고 의견을 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Jam board와 학생들의 부모님이 같이 있는 SNS 소통 방에는 알람이 그칠 줄 몰랐다. “다음에 코로나가 없으면 제일 먼저 신청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뿌듯하고 안게 많아지니 자신감이 높아진 것 같네요”, “저는 선생님의 귀요미로 남을래요”,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었어요”, “3일만 봤는데 한 달은 같이 본 거 같아요”, “영상도 진짜 거기 있는 것처럼 실감 나서 재미있었어요”, “좋은 수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꺽꺽 눌러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별거 아니고, 별말 아니겠지만, 나의 눈물샘을 꺽꺽 자극했다.

6장)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하지는 않았을까?

“선생님, 저는 야광이에요.” 가장 일찍 야광 지문 열쇠고리를 만들었던 무진이가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직 다 만들지 못한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 심심해서 나에게 말을 건 줄 알았기에 단순하게 “무진이가 스스로를 야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야광은 낮에 보면 평범한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 반짝이잖아요. 저도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진이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잠재 능력’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진이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1살인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참으로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먼저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아이들은 하나의 개념을 알려주면 그 개념을 응용하여 스스로 지식을 확장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3차시 지문 모양을 배우는 시간에 두형문, 쌍기문, 호형문 등, 지문 모양의 이름이 어려워서 학생들의 흥미를 저하하고 배우는데 힘들까 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지문이 어떤 지문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했던 것 같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작정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가 과연 교사가 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다. 그

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비계를 설정해주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다.

나는 왜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작은 존재라고만 생각했을까? 그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인하고 큰 존재였다. 그리고 무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7장) 쓱쓱 캠프는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

이번 쓱쓱 캠프는 비대면이기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모든 학생의 의견과 질문을 다 듣고 답해주지도 못했다. 또한, 교사인 내가 ZOOM 플랫폼을 조작하는데 서투름이 있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인터넷 연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었다. 그런데도 영상과 게임을 직접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채로운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다.

조원이 적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 힘들었을 텐데 힘든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잘 해내 주었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해 준 것이 고마웠다. 또한, 여러 활동과 자료로 구성했던 수업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었고, 학생들 또한 활발하게 참여해 주었기에 모두에게 뜻깊은 배움의 시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8장) 오늘보다 1% 더 성장할 내일의 예비교사에게

2021 여름방학 온라인 쓱쓱 캠프는 제가 초등교사라는 목표로 한 계단 더 올라가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예비교사와 교류하며 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했고,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혜안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른 학우들보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학생들과 소통을 잘하지도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예비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학우들이 있었기에 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자신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가 더 나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정의 증표인걸.”, “남과 비교하지 마, 너의 속도에 맞추어 나가도 늦지 않아.”

무진이의 말처럼, 우리는 야광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반짝이는 빛을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예비교사인 우리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빛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과정이 편할 수도 혹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제보다 1% 성장한 오늘, 오늘보다 1% 성장할 내일의 여러분을 믿으며, 여러분만의 계기로 교사라는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장려>

아이들의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장 윤 희
교육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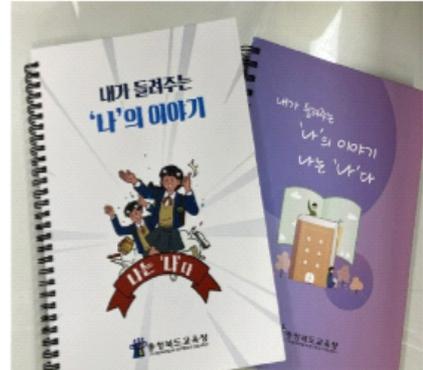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교육봉사에서
봉사의 가치를 느끼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결심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충북교육청 온라인 학습 서포터로 활동하다.

지역적 교육격차를 몸소 느끼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집중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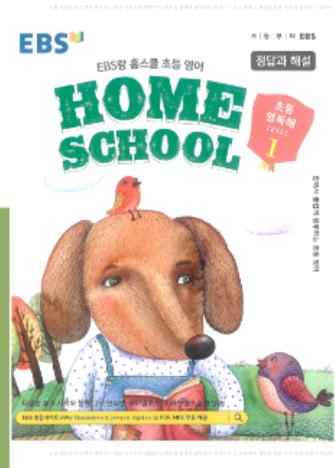


'충북교육청 온라인 학습서포터'로 활동하게 된 저는 충북 지역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과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농촌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역적인 특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EBS 온라인 멘토링을 시작하다.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다.

'충북교육청 온라인 학습서포터'로 활동한 이후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의 고른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의 지역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한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학습 노하우를 전달하고, 진로 고민을 들어주는 EBS사회공헌 프로그램인 'EBS 온라인 멘토링'을 알게 되었고, 이후 EBS온라인 멘토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7명의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 '등대지기'를 설립하다.

더 많은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밝게, 빛나게, 가치있게 등대처럼!”

: 아이들이 밝고, 빛나고, 가치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길을 밝혀주고, 사회 공헌을 통해 밝고, 빛나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적 교육 격차 문제에서 나아가 더 많은 아동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아동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사회공헌협회 청년챔프단 활동에서 만난 5명의 대학생들과 뜻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두운 바다에서 배의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아이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가려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기획하겠다'는 뜻을 지닌 '등대지기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 온라인 학습서포터로 활동하게 된 전 충북 지역 '청주중앙여자중학교' 학생과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그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농촌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지역 특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의 고른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의 지역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봉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 교육 혜택이 부족한 곳에 사는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 학습 노하우를 전달하고, 진로 고민을 들어주는 'EBS 온라인 멘토링'을 알게 되었고, 이후 EBS 온라인 멘토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7명의 학생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교육 격차 문제에서 나아가 더 많은 아동들과 소통하며 더 많은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사회공헌협회 청년챔프단 활동에서 만난 5명의 대학생들과 뜻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두운 바다에서 배의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아이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가려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기획하겠다'는 뜻을 지닌 '등대지기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4 '학교 밖 교육 캠페인'을 진행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밖 교육' 캠페인

: 아이들이 학교 교과 수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교육활동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 지역아동센터와의 자원봉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울동행'에는 2022년 3월 8일 현재 166건의 멘토링 봉사 모집글이 올라와있지만, 이 중 80% 이상은 아이들의 교과를 봐주는 학습 멘토링만 존재한다는 것과 이론학습 위주의 활동들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특성상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남아 있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학교 교과외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던 중, 지역아동센터와의 자원봉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울동행'에는 2022년 3월 8일 현재 166건의 멘토링 봉사 모집 글이 올라와 있지만, 이 중 80% 이상은 아이들의 교과를 봐주는 학습 멘토링만 존재한다는 것과 이론학습 위주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특성상 학교가 끝난 후 바로 집에 귀가하지 못하고 여러 이유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남아 있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학교 교과 외에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거부감 없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 밖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교육 캠페인 <학교 밖 경영 & 경제 교육>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경제, 경영 분야를 공부하고 이를 놀이를 통해 적용해보며 더욱 폭넓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 활동내용

- 1.멘토이자 도매상 역할인 등대지기 팀이 상품을 구비
- 2.소매상 역할인 아이들은 조별회의를 거친 후 필요 상품을 원가로 다량구매
- 3.각 조는 제품 제작 후 물건의 판매가를 매기고 홍보 포스터를 제작
- 4.각 조에서 번갈아가며 상인과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
- 5.피드백과 보상

* 기대효과

평소 접하기 어려운 경영, 경제 이론을 놀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경제 용어를 놀이 속에서 습득하고, 직접적인 거래 경험을 통해 경제관념을 쌓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창업인 또는 기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돋움의 될 것입니다. 또한, 놀이 교육을 통해 학습 의지 향상과 사고력, 응용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3. 18. 장안지역아동센터

두 번째 학교 밖 교육 캠페인 <학교 밖 환경 교육>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 이와 관련된 교육 인프라는 미흡한 편이며, 교내에서 진행되는 환경 교육도 일방향적, 수동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환경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인식과 생활방식 형성의 동기를 심어주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 활동내용

환경오염 물질 중 하나인 커피 찌꺼기로 다육이 화분, 방향제 만들기

1부. 환경 이론 교육

2부. 커피 찌꺼기로 다육이 화분과 방향제를 만들어보는 체험 교육

* 기대효과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환경친화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분 만들기라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고취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화분을 만들고 식물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관찰력과 판단력을 기르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2. 05. 20. 돌산공부방지역아동센터

2022. 06. 03. 장안지역아동센터

5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돕고자 하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한 '사회문제 대안 찾기를 위한 탐색활동 지원사업'에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기획하여 지원 및 합격하였습니다.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는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자립 능력 부족 문제'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까닭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성립하지 못하면서 자기능감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 봉사 프로그램

- 문화 봉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보호종료예정아동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관련 정보를 얻어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제 보육원 출신의 청년 활동가님을 섭외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 봉사를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경험, 사회 공헌 경험은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 1 봉사를 통한 보람과 성취감
- 2 기획 및 실행을 통한 자아 효능감
- 3 여러 문화 체험을 통한 진로, 적성, 흥미 탐색

프로그램 개요

NO.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1	아이스브레이킹	원데이 클래스 2		전시회 준비	
2	원데이 클래스 1	재능기부 봉사활동 기획	재능기부 봉사활동	(글, 그림, 영상 등 자신이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전시회 개최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한 ‘사회문제 대안 찾기를 위한 탐색활동 지원사업’에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기획하여 합격했습니다.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는 ‘보호종료예정 아동의 자립 능력 부족 문제’로, 보호종료예정 아동이 사회의 바람직한 시민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는 까닭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성립하지 못하면서 자기효능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예정 아동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성립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문화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봉사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보호종료예정 아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관련 정보를 얻어 보호종료예정 아동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 실제 보육원 출신의 청년 활동가님을 섭외 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봉사를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경험, 사회 공헌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의 힘을 믿다. 앞으로의 계속된 교육봉사활동을 다짐하다

재확산되는 코로나, 보육원 아이들의 보호 문제상 외부인에 대한 통제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는 보육원 섭외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끊임없는 도전으로 현재 약 10군데의 보육원이 긍정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아동들의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고,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장려>

유아교육현장 경험이 준 깨달음

전 진 우
물리교육과

저의 모교인 인천연학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에서 2021년 7월과 8월에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중등교육을 전공하고 있고 추후에도 중등교사가 되고자 하므로 초등교육 현장과 유아교육 현장에는 직접 근무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중등이 아닌 교육현장으로 교육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유치원에서 교육봉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초등교육 현장보다는 유아교육 현장이 중등교육 현장과의 분위기나 환경의 차이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제게는 많이 낯설고 생소함과 동시에 그 교육현장이 매우 궁금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사립의 형태로 다수 존재했던 반면, 지금은 전국적으로 공립유치원이나 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되어 각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설립될 정도로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 재학 중에 유아교육과의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는 “유아교육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면서 습득한 지식들이 많았기에 그 배움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교육봉사 시기는 유치원 여름방학 기간이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방역이나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이 강조되었기에 유치원 현관과 교

실 출입구를 방역 및 소독하고 유아 거리두기 지도, 유아 교구(장난감) 소독 등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 선생님의 보조로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유아 등원 맞이 보조, 손씻기 등 유아 개인 위생 지도, 유아 간식 보조 활동을 했습니다. 방학에도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이 유치원에 왔고 그 인원은 15명에서 20명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아이들도 예외 없이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려고 노력해도 아직 이목구비가 자라고 있기에 자신들의 의지와 다르게 마스크가 계속 코에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아이들에게 지도하는데 간혹 마스크가 벗겨져 있는 아이들에게 “친구,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세요”와 같은 말을 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방역 지침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한 부분 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 혹시 마스크 쓰는 것이 힘들어요?”, “친구 많이 답답하면 잠시 뒤에 가서 숨 쉬고 와요”라고 말하는 것이 교사로서 혹은 유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해줘야 하는 말이라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어, 아이들끼리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 활동을 할 때는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아이들에게 “3명 이상은 같이 모이면 안 됩니다”와 같은 금지된 사항을 강조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A 친구랑 짝꿍으로 같이 하고, 이따가 B, C 친구랑 함께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인원제한을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여 여러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활동하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간식을 나누어 주는 상황이나 손씻기를 지도할 때 화장실에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되는 제한을 언급하기보다는 순서대로 줄서서 차례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여 유아 학생들이 사회성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들에게 방역수칙과 같은 규칙을 직접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면서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유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설명을 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방학에도 오전간식-점심식사-오후간식 순으로 간식을 2번이나 먹습니다. 저는 유아 간식보조 활동으로 먹을 간식을 준비했고, 다 먹은 식기류를 세척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우려함과 동시에 종종

뉴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나 배탈이 나는 사례를 접했기에 간식 준비나 보관, 식기류 세척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간식시간에는 아이들마다 식사하는 속도나 양도 제각각 달랐고 음식을 흘리고 먹는 아이도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과 지내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 중 하나인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의 특징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창작활동 시간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여 교실을 돌아다니고 식사시간에는 식사 도중 복도로 나가버려서 찾으러 다녀야 하는 등 계속 다른 아이들보다 그 아이를 더 주시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ADHD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어서 무조건적으로 혼내는 데에만 주력했던 것이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아동을 진단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했습니다. 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근래에는 여러 원인들로 인해 발달장애를 진단받는 아동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 이후 마스크 착용은 영유아가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잘 배우지 못하는 언어발달장애를 보이거나 언어발달이 지연되는 영유아가 많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발달은 인지능력발달 등 다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어발달의 문제는 또 다른 발달장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투명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이 곧 유치원에 입학할 것이기에 유아교육계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와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고 학부모들도 유아가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관심을 촉구해야 합니다. 아동이 다양한 문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아 학생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앞으로의 유아교육현장의 새로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봉사 첫날부터 바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는데, 일명 청개구리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한 명은 꼭 있는 유형의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려고 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쉽게 심통을 부리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떼쓰고 장난감도 던지는 폭력성도 일부 보이는 “막

무가내” 스타일의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육봉사 내내 가급적이면 그 아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큰 소리를 내며 울고 떼를 썼는데 막상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달래야 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달래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오랫동안 겪은 선생님께서는 무응답과 무반응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계속 울던 그 아이는 스스로 지쳐서 울음을 멈추었고, 그 후에 자신이 우는 것을 보며 웃고 있던 다른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일화를 겪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일단 울면 마음이 약해져서 달래주거나 다독여 주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가 우는 이유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막무가내인 아이에게는 강단 있게 대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유아에게 그런 강단 있는 행동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삼을 것인가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이라면 상황별로 아이들에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그 능력은 유아교육현장 경험이 많아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교사양성기관에서 예비교사들이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동(학생)은 개개인마다 성격과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유·초·중·고의 교사는 학생들을 꾸준히 관찰하고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가르침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독 낮을 많이 가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이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을 많이 가리는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거리를 두어 다가갔고 최대한 말과 행동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친구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서 먼저 저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점차 대화도 해나갔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으로 선생님께 의지하려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한 간단한 활동도 제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학생이기에 부탁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대신 해주었는데 그것은 아이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후로는 활동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시작하여 점차 아이가 스스로 활동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에

게 독립성과 주체성을 기르도록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 학생에게 어느 부분까지 스스로 하도록 교육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세심한 판단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아 개개인의 능력이나 흥미, 성향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아이들 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유아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도움을 주는 범위가 학생마다 차이가 나게 되며,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유아 학생들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평(Equality)과 형평(Equity)의 차이를 비롯하여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형평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이해시키기 쉽지 않은 개념일 것입니다. 과연 학생들에게 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일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이는 유아교육현장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현장과 중등교육 현장에서도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 교육봉사를 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유아교육과 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도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초등학교 내 여분의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병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고 있고, 저의 거주지 인근의 공립초등학교 대부분은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일정 인원을 정원으로 하여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사 대비 학생 수는 유아 교사의 인력을 조정하면 되지만 보건교사·전문교사·전문강사 등 특수 인력이나 일부 시설을 유아교육 현장에 직접적으로 배치하기에는 유아교육현장(유치원)의 규모상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재 유치원에 유아 보건교사가 배치된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극히 드문 실정인데, 교육법상 가능하다면 긴급 상황 시나 필요시에 초등학교 보건실와 연계하여 보건교사가 유치원까지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도서관, 급식실, 컴퓨터실 등 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나 교육환경은 필요시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공유하고 연계

하여 열악한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유치원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단설유치원보다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의 형태를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초·중학교 과밀학급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교사를 함께 배치하는 “1교실 2교사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나 여론은 부정적이고 교원단체에서도 정책에 반대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교사들도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는 교과지식(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습격차 해소와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교사가 교과학습 외에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1교실 2교사제 형태의 교육 정책을 유아교육현장에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교육계와 교사들은 OECD 국가들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또는 학급당 학생 수)의 평균보다 높은 대한민국의 교육지표를 근거로 하여 교사 대비 학생 수를 조절하여 교육현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단순히 한 학급당(담임교사당) 학생 수를 조절하는 것만이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현장은 특성상 교육과 보육 모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 학생들만 남겨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지양합니다. 교사 1명이 5명의 유아 학생들을 맡는 것과 한 공간에서 교사 2명이 10명의 유아 학생들을 맡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교육환경의 차이가 분명할 것입니다. 한 학급을 구성하는데에도 일정한 최소 인원이 필요하므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는 것에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교실 2교사제는 유아교육현장에 도입해야 합니다. 만약 도입을 하게 된다면 유아교육현장의 특성상 놀이, 창작활동, 체험학습 등 유아를 더 세심히 살펴야 하는

상황에 따라 한 교실에 담임교사와 유아 보조교사(또는 수습교사 등)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을 육아(또는 탁아)를 관장하는 보육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초·중·고에서의 교과지식 습득을 이미지로 주로 떠올립니다. 법적으로도 유치원생은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며 유치원은 의무교육 기관에서 배제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치원을 교육기관으로 여기지 않거나 유아교육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에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았던 영향으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입지를 다지지 못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관념들이 굳어져서 여전히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보육기관이나 탁아시설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봉사활동을 하기 전에는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과 정보가 부족했고 유아교육이 교육보다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했으나, 교육봉사를 하면서 유아교육은 교육의 비중이 아주 크고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육을 하는 방식에 따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기에 보육과 교육이 독립적인 것이 아닌 점도 새로 배웠습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세 하향하는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여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이슈였는데, 학부모들의 큰 반발로 인해 사실상 정책을 철회하며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사퇴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여론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무리라는 근거를 주로 들었습니다. 저도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만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보다는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미취학아동으로서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유아교육권”의 일부 손실을 우려하여 그 정책에 반대한 입장입니다.

유아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아교육을 받는 시기가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아기에 이어 유아교육을 받게 되는 유아기는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과 같은 발

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이성적인 판단과 기억을 관장하는 기능까지 영유아기를 전후로 발달하며, 만3~6세는 전두엽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인격체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기 시기가 1년이라도 줄어든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7살에 받아야 할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의 체제에서 대체할 수 없으며, 만약 대체하려고 한다면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나 유아교육을 광의의 관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포함한 8세까지로도 보기 때문에 입학연령 하향은 그런 관점과는 더욱 상반되는 정책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순차적으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기존보다 1살 먼저 입학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 경우와 초등학교를 1살 먼저 입학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1살 먼저 사회에 나가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실시 가능한 교육적 여건이나 아동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정책에 반대해야 합니다.

유아교육현장이 추후 제가 근무하게 될 중등교육현장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과의 소통과 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현장 중에서 유아교육현장은 유아 학생에 대한 신경, 공감 등 감정적인 소모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아학생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것이고 유아 학생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상태나 심리 등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면, 중등교육현장에서는 학생에게 신경 쓰면서도 교과수업, 학업성적, 입시 등 각기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학생과 교류하게 됩니다.

유아에게 유아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치원(어린이집)은 곳은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사회이고, 거기서 만나는 유아 교사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선생님입니다. 유아들이 발달을 형성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만나는 유치원 선생님은 그들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때 만나는 선생님들과는 역할과 의미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유아·초등·중등교육의 현장은 서로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교사의 적성도 차이가 날 것이고 학생을 대할 때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봉사 중 일화를 겪고 나서 학생을 대할 때 형평과 공평에 대해 생각해 본 것처럼, 교사로서 각자 자신의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쳐야 하는지는 모든 교사들의 필수적인 고민거리이자 교육자로서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학생들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서 교육의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로써 교육의 본질은 어느 교육현장에서나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육봉사의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유아 학생을 만나게 될 때 유아의 특성이나 심리 등에 공감하고 인격체로서 그들을 많이 이해하고 존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더불어 저는 추후 중등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예비교사로서 학생들이 그동안 거처온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학생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장려>

음악으로 감정을 말해요

권혜주
음악교육과



사실 처음에는 교육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임하였다. 그래서 역할도 최대한 쉽고 간편한 것(영상&사진찍기)을 골랐다. 후에 활동을 재밌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로서 자질과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준비사항이 많아졌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1)



감정 표현을 익혀요

나에게도 아직 어려운 것

아이들과 감정카드 놀이를 했다. 놀이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왜 그러한 감정이 들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웠다. 평소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는 '그냥'이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덤덤하게 얘기해주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주어 대견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2)



꿈을 찾는 신호등 4명의 선생님들의 바뀐 꿈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멋진 아이들

아이들에게 나의 입시 실패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삼수라는 타이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나의 아픈 감정을 공감해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나한테 아이들이 달려와서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꿈을 찾는 신호등

아이들에게 나의 입시 실패 경험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삼수라는 타이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나의 아픈 감정에 공감해주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나한테 아이들이 달려와 위로해주기도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3)



힘들었던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았던 친구...
앞으로는 늘 행복하기를



<롤린>춤 추던 귀여운 친구



열심히 들어주고 적극 참여해준 친구들
춤 역시나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20명이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겁이 많이 났었다. 전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갔지만 교단에 서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만으로 자신감이 떨어졌었다. 교육봉사 3회차쯤,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초반에는 허공만 보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여러 친구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아이들과 교감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기도 아쉽기도 했던 나의 교육봉사는 나를 돌아보게 해주었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앞으로의 교직생활이 더 기대된다.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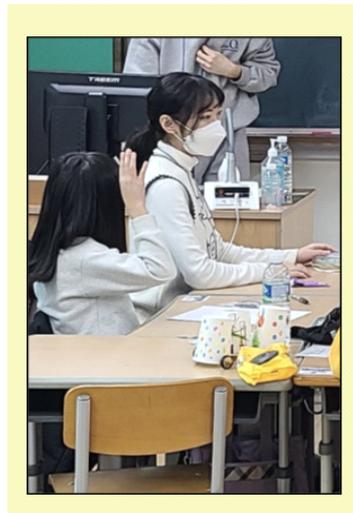
교육봉사를 하며 볼 수 있는 선생님 유형

김 시 은
초등교육과

교육봉사수기 공모전

교육봉사를 하며 볼 수 있는

선생님 6가지 유형



나는 어떤 유형인지 보러가기 >

TEACHER

0 1

TYPE

No. 1 학생들에게 푹~ 빠진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도 반갑게 선생님들을 맞이해주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주는 학생들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특히나 학생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한 마디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Talk

" 쌤~~! 어디 갔었어요? "

" 잠깐 교무실 다녀왔지~ 왜? 쌤 찾았어? "

" 네. 쌤 보고 싶어서요! "

" (울컥) "

처음 만났는데도 반갑게 선생님들을 맞이해주거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주는 학생들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특히나 학생들의 말 한 마디, 행동 한 마디에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TEACHER	0 2	TYPE
---------	-----	------

No. 2

예상치 못한 미션에 당황하는 선생님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종이 접기를 못하는데 종이접기를 해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있게 기다리라고 한 뒤에 구석에서 열심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Talk

"아 쌤 개구리가 이상하잖아요..."

"얘는 점프를 못하는데요?"

""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종이 접기를 못하는데 종이접기를 해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 있게 기다리라고 한 뒤에 구석에서 열심히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TEACHER

03

TYPE

No.3

다나은 수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선생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나서 자신의 수업이 어땠는지 스스로 피드백을 하죠.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예요. 밤을 새며 노력하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듭할수록 수업 역량이 늘어나는 게 확연히 보인답니다.

Think

'동기유발에 쓰인 영상 길이가 너무 길었나?'

'캐릭터 그리기 활동은 재밌어하더라.
근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나서 자신의 수업이 어땠는지 스스로 피드백을 하죠.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예요. 밤을 새며 노력하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거듭할수록 수업역량이 늘어나는 게 확연히 보인답니다.

TEACHER

04

TYPE

No.4 다른 봉사생의 모습을 본받는 선생님

교육봉사를 하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해 보기도 하죠. 나의 수업과 비교해보면서 배울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정말 한 명의 '학생'의 시선에서 수업을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Think

'저 선생님은 목소리에 힘이 있네. 전달력이 좋다. 따라해볼까..?'

"(크흠) 아, 아! 여러분~ 수업 시작합니다~"



교육봉사를 하면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참여해 보기도 하죠. 나의 수업과 비교해보면서 배울 점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에 정말 한 명의 '학생'의 시선에서 수업을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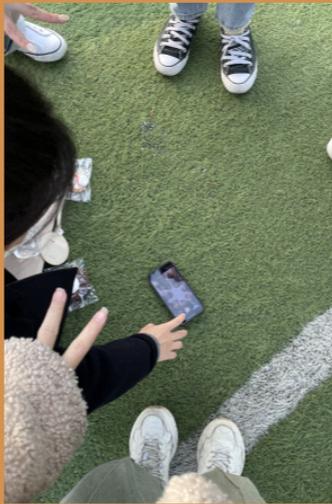
TEACHER

05

TYPE

No.5 여러 선생님들과 유대관계를 쌓는 선생님

이 유형의 선생님들은 친화력이 특히 좋아요. 교육봉사를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억을 남기는 걸 좋아하죠.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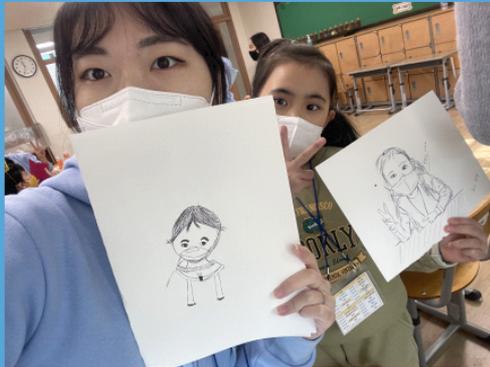
이 유형 선생님들은 친화력이 특히 좋아요. 교육봉사를 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억을 남기는 걸 좋아하죠.

TEACHER

06

TYPE

No. 6 학생들과 선물을 주고받는 선생님



Talk

" 쌤 이거 꼭 챙겨가셔야돼요."

헤어지는 시간은 누구나 아쉬운 법이죠. 이 유형의 선생님은 헤어지는 날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에게 추억을 많이 선물해주려고 노력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랑스러운 추억으로 보답하죠. 서로 그림을 그려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헤어지는 시간은 누구나 아쉬운 법이죠. 이 유형 선생님은 헤어지는 날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에게 추억을 많이 선물해주려고 노력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랑스러운 추억으로 보답하죠. 서로 그림을 그려주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참가작>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다

김 유 찬
화학교육과

#1. 제천간디 여름계절학교

제천간디학교에서는 매년 방학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계절학교를 진행한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는 현행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14세에서 19세)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방학 중에 운영하는 캠프 형식의 계절학교는, 참여 초등학생들이 제천간디학교의 분위기를 느끼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알아갈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방학을 이용해 자녀들을 대안학교의 계절학교에 보내곤 한다.

제천간디 여름계절학교는 참여학생과 자원봉사 선생님(이하 자봉쌤), 간디학교 선생님(이하 간디쌤)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계절학교 참여 학생 모집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받아 참여하고, 자봉쌤들은 공고일에 맞추어 간략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디쌤들이 선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간디쌤들은 제천간디학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캠프에 참여한다. 내가 갔던 여름계절학교는 55명의 학생과 17명의 자봉쌤, 8명의 간디쌤이 함께했다.

계절학교는 3박 4일간 진행되고, 자봉쌤과 간디쌤들은 하루 전날 미리 모여서 계절학교를 준비한다. 계절학교의 대부분 일정은 모둠별로 진행된다. 한 모

뭉에는 3명의 자봉쌤과 9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총 6개의 모뭉이 만들어진다. 그중 우리 모뭉은 조금 예외적으로, 기존 참여하기로 하셨던 자봉쌤 중 한 분이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계절학교 경험이 많으신 간디쌤 한 분이 자봉쌤으로 함께 참여해주셨다. 자봉쌤들은 계절학교 동안 이름 대신 별명을 사용한다. 나는 당근쌤이었고, 우리 모뭉쌤들은 각각 나리쌤과 달래쌤이었다.

#2. 또다시 제천간디 계절학교

내가 계절학교에 자봉쌤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2년 전 여름에 참여했던 2020 제천간디 여름계절학교에서의 기억이 너무도 강렬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획했던 수많은 캠프 형식의 교육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텅 빈 방학 일정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다른 교육봉사 활동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제천간디학교의 여름계절학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전히 학생들을 만나고자 했던 열정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내 생각보다 훨씬 짙은 여운을 남겨주었다.

무엇보다 한 조에 6명의 학생과 3명의 자봉쌤을 배치하는 계절학교의 모뭉 구성이 정말 좋았다(이번 캠프는 9명의 학생과 3명의 자봉쌤이었다). 학생들은 2명당 1명의 선생님이 3박 4일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해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자봉쌤은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르게 비교적 소수의 학생을 돌보면서 학생 한 명 한 명과 더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적은 수의 공동체가 3박 4일 내내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하니 정이 붙지 않으려야 앓을 수가 없었다.

같은 조의 달래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계절학교는 아이들의 예쁜 모습들만 쓱쓱 뽑아서 우리가 다 경험한다. 집이나 학교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여기서도 예쁜 모습만 보여준다. 그래서 자봉쌤은 너무 행복하다."

어쩌면 저 이야기가 내가 계속 간디학교를 찾는 이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계절학교를 마치면 학생들도 행복하겠지만, 사실 자봉쌤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과 진한 여운이, 계속 이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다. 그렇게 나는 2년 전 여름에 계절학교에서 만난 자봉쌤들과 학생들

의 좋은 기억 덕분에, 군 생활 중 또다시 계절학교에 지원했고, 휴가를 나와 계절학교에 참가했다.

#3. 제천간디학교와 대안교육, 자유에 대한 갈망

계절학교 시작 전날, 미리 모인 자봉생들은 제천간디학교 교장 선생님의 특강을 듣고, 저녁 시간에 음식을 먹으며 가볍게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사실 교장 선생님의 특강이라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서는 대안교육이라는 교육의 필수적인 분야를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제천간디학교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107명, 교사 22명으로 구성된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람'을 양성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인 제천간디학교는 현행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1학년에서 6학년으로 명명하여 '4+2' 체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4+2' 체제의 교육과정이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통합반으로 학급을 운영하고, 5·6학년은 각반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시간표는 크게 '필수수업'과 그 외의 수업(선택 수업, 주를 여는 시간, 가족회의, 열린 수요일, 작업장)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필수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업을 선택할 자율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필수수업 외의 다른 수업을 아무것도 듣지 않아도 교육과정 상의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학생들은 1학년부터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여기에 매년 6월이 되면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간다. 학교 밖 여러 공간에서 이동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3학년은 1년간 자신이 주제를 선정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논문 쓰기 활동을 한다. 또한, 6학년은 직접 주제를 선정해서 탐구한 후 5일 동안의 인문학 캠프를 열기도 한다.

교장 선생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자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모든 시간표를 학교에서 정해주었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해진 때가 되면 입시를 준비하고, 정해진 때가 되면 정해진 활동을 해야 했다. 마치 지금 이 시기에 남들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뒤쳐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그것이 억압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과업에 충실했던 것 같다. 하지만 간디학교는 그런 체제에 대한 자유를 외치고 있었다. 제천간디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유와 주체를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왔고, 실제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 속 여러 분야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다. 그런 사례들을 보니, 현행 교육과정 체제를 벗어나 간디학교에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는 수많은 재학생이 대단하면서 부러웠다.

교장샘의 특강으로 시작된 ‘자유’에 대한 고민은, 계절학교 내내 이어졌고, 수필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중이다.

#3. 간디학교의 문화

간디학교만의 문화는 학교 곳곳에 스며들어있다. 먼저는 빈 그릇 운동이다. 말 그대로 받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잔반통 대신, 간디학교에서는 조그만 양동이를 가져다 놓는다. 처음에는, 우리야 3박 4일간 조금만 참으면 되지만 간디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이걸 매일 실천할까 싶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의외로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나도 학생들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계절학교 내내 잔반 처리용 양동이에는, 잔반이 양동이의 절반도 차지 않았다. 학생들이 직접 먹을 음식을 선택하고, 먹는 양을 선택하는 모습은 배식해주는 조리사님들이 계시는 일반적인 초등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학생들이 음식을 조금씩 덜어가서 다 먹은 후, 부족한 음식을 다시 받으러 배식대에 오는 모습들을 보며 참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날 점심에 우리 조 학생 중 한 명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생의 손가락질이 멈췄다. 학생은 잠시 고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눈을 꼭 감고 국그릇을 손에 붙잡고 들이키기 시작했다. 국에 들어있던 당근과 애호박을 먹기 위해 나름의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런 학생들의 모습들이 그 자체로 정말 예뻐다.

두 번째는 기숙사이다. 간디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계절학교

도 예외는 없다. 학교에서 기숙사와의 거리는 걸어서 15분 남짓이다. 기숙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학생들은 그런 언덕을 처음 접하고는 이내 불평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 기숙사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추억거리를 선물해주었다. 아침에 기숙사에서 학교로 가는 길에서 학생들은 곳곳에 피어있는 푸른 식물들을 보고, 만지고, 향을 맡으며 내려왔다. 푸른 식물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걸어 내려오다 보면, 아침잠이 확 달아난다. 밤에 학교에서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에는 하늘을 본다. 주위에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불빛에 의지해 걸어가야 하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의 길가는 밤하늘을 보기에 최적화된 장소이다. 가만히 걷다가 문득 하늘을 보면, 수백·수천 개의 별이 열심히 반짝인다. 그런 별들을 보면서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걸음을 내디딘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오가면서 나누는 학생들 간의 소소한 대화들은 첫날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세 번째는 채식주의자 식단이다. 실제 우리 조의 달래쌤은 채식주의자이셨고, 달래쌤을 제외하고도 쌤들 중에 2분이 채식을 하고 계셨다(유형은 다르지만). 간디학교 재학생 중에도 채식주의자가 한 명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채식주의자를 위해 간디학교에서는 따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을 내어준다. 물론 매 끼니마다 채식 식단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은 계절학교에서도 어김없이 나왔고, 학생들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가진 듯했다. 자유를 추구하는 간디학교의 색깔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문화라고 생각했다. 학생들도 이런 환경에서 밥을 먹으면, 채식하지 않더라도 채식하는 친구가 주위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채식에 대해 인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프랑스에서 온 학생

우리 조 학생 중에는 프랑스에서 학교에 다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온 기간을 이용해 계절학교에 참가한 학생이 있었다.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던 탓인지 한국말 쓰는 것을 많이 어려워했고, 듣는 것도 겨우 하는 학생이었다. 게

다가 성격도 소심한 편이어서 계절학교 동안 우리 모둠 쌤들이 신경을 많이 썼고, 신경을 써준 만큼 많이 변해주었던 학생이어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

서연(가명)이가 계절학교에 입교할 때, 서연이는 이모 곁에 찰싹 달라붙어 이모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절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은 쿨하게 부모님과 인사하고 떠나보내는 유형의 학생과, 계절학교라는 공간이 낯설어 부모님과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유형의 학생으로 나뉘는데, 서연이는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 눈물까지 글썽이는 학생이었기에 처음부터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첫날 서연이는 계절학교 활동 중 눈물을 보였다.

첫날 저녁에는 학생들 개인이 모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모든 모둠 교실의 미션을 완료해서 스탬프를 모아오면 간디쌤이 모둠 문패 만들기의 재료 중 하나를 주는 활동을 진행했다. 활동의 특성상, 개개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모둠 교실을 찾아가고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일하기에 낯을 가리지 않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었지만, 비교적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한 학생들은 계절학교에 같이 온 아는 친구와 함께 돌아다니거나, 혼자서 꾸뻑꾸뻑 용기를 내어 미션을 수행하곤 했다. 서연이는 같이 온 다른 친구가 없다 보니 혼자 모둠 교실을 전전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서연이에게는 부담이 컸던 것 같다. 그날 서연이는 우리 모둠 교실에서 진행한 절대음감 게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만 눈물을 보였다.

학생이 우는데, 뭔가를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으니 답답했다. 왜 우는 거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서연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 막막했다. 혹시나 선생님 세 명이 서연이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잠깐 자리를 피하고 다시 돌아왔다. 다행히 그사이 나리쌤이 서연이를 잘 달래주셔서 서연이의 눈물은 그쳐 있었다. 그리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단순한 질문들에는 답변해주었다. 혹시 모둠 교실 돌아다니면서 스탬프를 모아오는 활동이 힘들었냐 묻자 고개를 끄덕였고, 여기에서 수행하는 미션이 말을 하는 거여서 어려운 거냐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긴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했기에 답변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첫날 일정을 맞추고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에, 서연이는 나리쌤의 손을 꼭 붙

잡고 올라갔다. 나리쌤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서연이를 보면서, 서연이가 가족 곁에 붙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어쩌면 서연이는, 낯선 한국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이는 계절학교가 끝날 때까지 나리쌤의 곁에 꼭 붙어 다녔다. 학생들끼리 어울리지 못하고, 자봉쌤의 곁에 꼭 붙어있는 서연이를 보며 나리쌤이 많이 걱정하셨지만, 한국이 낯선 서연이에게 나리쌤은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런 나리쌤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친구들을 억지로 넣으려 하기보다는, 서연이가 나리쌤에게 의지하면서, 나리쌤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천천히 친해지는 방법으로 서연이의 적응을 돕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리쌤은 그렇게 실행하려 노력하셨다.

첫날 적응하지 못하고 나리쌤 곁에 딱 붙어있던 서연이는, 둘째 날이 되자 가끔 울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같은 모듬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리고 수료식 날, 서연이는 펄펄 울면서 아쉬움을 표하곤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기특했던 것은, 모듬의 친구들이 프랑스에서 온 서연이를 배려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 모듬 학생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서연이가 빨리 모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5. 수업을 따라가지 않는 학생일까, 창의적인 학생일까?

둘째 날 오전에는 골라 배우기를 했다. 간디쌤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수업(국궁, 양말 인형 만들기, 오디쌤 만들기, k-pop댄스 배우기, 스트링아트 등등) 중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하나 선택해 배우는 시간이었다. 나는 처음 계절학교에 지원할 때, 탕탱볼 비행기 만들기 수업을 기획해서 지원서를 제출했고, 운이 좋게도 이번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내 수업 외에도 다른 재미있는 수업들이 많은데, 탕탱볼 비행기를 만드는 수업을 학생들이 들어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8명이나 모여주어서 참 고마웠고, 수업에 잘 참여해줘서 기특했다. 수업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는데, 붕사와 pva 물품을 섞은 탕탱볼을 만들고, 탕탱볼의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탕탱볼 비행기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이 순조롭고 부드럽지만은 않았다. 탕탕볼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에 액체 괴물을 만드는 학생도 있었고, 만든 탕탕볼로 팽이 돌리기를 하며 노는 학생도 있었다. 사실 입대하기 전의 나였다면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탕탕볼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작은 과제라도 하나하나 부여해서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왜인지, 이번 수업에서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탕탕볼을 만들어야 할 시간에 액체 괴물을 만들고 있는 저 학생은 그 자체로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탕탕볼을 만들라고 강요해도 되는 것일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탕탕볼 만들기를 이미 완성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탕탕볼을 만드는 동안 팽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있기를 지시해도 되는 것일까. 어쩌면 봉사와 물품만으로 액체 괴물을 만들어내는 저 학생은, 탕탕볼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같은 재료로 다른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다고 칭찬받아야 할 학생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나는, 수업이라는 틀 안에서 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교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내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의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고, 마치 이 길이 정답인 양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학생들의 럭비공 같은 매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교사가 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 그런 고민이 문득문득 들었다.

수업에서 원하는 결과물은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탕탕볼 비행기를 모두가 만들었고, 액체 괴물을 만든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탕탕볼도 하나씩 만들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업 분위기는 어수선했다는 것.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수업을 진행하는 나와 수업을 도와준 2명의 자봉생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선생님들은 힘들었을지언정, 학생들은 자유로웠던 수업. 그게 이번 간디학교에서의 수업이었고, 난 그 수업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어쩌면 내가 앞으로 추구하는 수업의 이상향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수업 중 과업이 명확히 존재하는 공교육에서는 진행하기 힘든 자유로운 수업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에 만족했다.

#6. 보이지 않는 선생님들의 고민

계절학교의 하루는 밤 9시 30분 즈음 학생들이 기숙사에 도착하면서 끝이 난다. 하지만 자봉쌤들은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10시부터 모여서 모둠 교사 회의를 한다. 모둠 학생들이 계절학교에 적응하는 데에 문제는 없는지, 모둠 교사로서 신경을 써야 할 점이 무엇인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밤 11시에는 간디쌤과 자봉쌤들이 모두 모여서 총화 시간을 갖는다. 모둠별로 오늘 하루 동안 특이사항들을 이야기 나누고, 모둠 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으면 모두와 나누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봉쌤들의 하루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난다.

나는 그런 총화 시간이 정말 좋다. 선생님들이 한데 모여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내놓으며 내가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분야를 전공한 자봉쌤들이 모여서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어제 걱정된다고 이야기를 나눴던 학생이 오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2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뿔 듯이 기뻐해 준다. 다른 조 학생의 변화도 우리 조 학생의 변화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하나 된 간디 공동체의 힘이자 매력인 것 같다. 총화 시간에 항상 진지하게 조언을 주고받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위해 깊이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아이들을 귀여워할 수 있지만, 그 이면까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선생님의 책임이구나.’

#7.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다.

둘째 날과 셋째 날 오후에는 모듬을 3개씩 짝지어 물놀이와 타일 벽화 만들기 활동을 번갈아 했다. 제천간디학교 주변에는 월악산이 있는데, 이 산에 있는 계곡물은 1급수로, 정말 맑다. 학생들은 가기 전부터 신나있었다. 당근쌈을 빠뜨리겠다는 목표가 생겨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기에, 물놀이 간 지켜야 할 안전 약속을 학생들에게 재차 물은 뒤, 물놀이를 하러 갔다.

1시간 30분 동안 물놀이를 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사실 학생

들의 안전 통제를 하면서 적당히 놀아주었어야 했는데, 학생들보다 내가 더 신나있었던 것 같다. 간디학교에서 준비한 카약을 유유자적 타면서 놀기도 하고, 학생들과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면서 추억을 쌓았다. 학생들은 기존에 세운 목표대로 내가 보이기만 하면 물을 열심히 뿌려댔다. 덕분에 나는 물을 많이 먹었지만, 물이 맑다고 했으니 그걸로 위안 삼고, 학생들이 즐거워했으니 그걸로 또 위안 삼았다. 학생들이 행복해한다면, 나 하나쯤 희생하는 것은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셋째 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캠프파이어 시작 전에 레크리에이션을 했는데, 진행은 자봉쌤 한 분과 내가 했다. 나는 많은 학생을 레크리에이션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실제로 그동안 캠프 형식의 교육 봉사를 하면서 이런 종류의 레크리에이션 진행 경험도 많아서 매끄럽게 진행할 줄 알고, 상황 대처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이번 레크리에이션은 말은 시간이 30분으로 짧아서, 오프닝 공연으로 노래를 부르고, 연예인 게임과 탭댄스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학생들은 셋째 날이라 그런지 어색해하지도 않고 다들 즐겁게 참여해 주었다.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이크를 쥐고 있는 진행자의 역량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짓는 것 같다. 요즘은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돈을 주고 배운다는데,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경험 삼아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레크리에이션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의 위기 대처 능력과 말솜씨가 성장하는 장점도 있지만, 행복해하는 참여자들을 보며 덩달아 자신감을 얻고 행복해하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이 내가 계속 마이크를 쥐고 싶어 하는 이유인 것 같다. 행복은 정말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져나가는 것 같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불명도 때리는 시간을 갖다가, 다 같이 큰 원을 만들고 윤희의 포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과 학생들 한명 한명을 만나면서 포옹하거나 악수하는 활동인데, 이것 하면서 많이들 울곤 한다. 모두가 손을 잡고 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캠프를 마무리하는 밤하늘에서 간디쌤이 이런저런 감성에 젖을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나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간디쌤의 목소리를 BGM 삼아, 내 왼손

을 꼭 붙잡고 있는 우리 조 4학년 학생을 보았다. 학생의 눈망울에 물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다.

‘저 어린 학생이 3박 4일간 느낀 것은 무엇이였을까. 무엇이 저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 그 한쪽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학생들이 우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울곤 했다. 아마 혼자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였다는 확신. 그렇기에 학생들의 표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자각하는, 아직은 어린 예비교사이다. 언젠가 내가 정말 학생들에게 100%를 쏟아부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맺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계절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끼리 마지막 소감 나누기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3박 4일이라는 캠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들을 하신다. 나도 정말 공감한다. 친화력이 좋은 학생들은 금방 친해지고 정이 붙지만, 반대인 학생들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내내 낯을 가리다가 셋째 날부터 친구들과 대화의 물꼬가 터져서 계절학교를 즐기기 시작하는 학생들은 넷째 날 아침이 되면 아쉬운 마음으로 떠나게 된다. 딱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그들도 함께 눈물 흘리며 아쉬워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지 못한 나에 대한 피드백으로 돌아온다.

2년 전 간디학교에 참여했을 때는 3박 4일 동안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이런 짧지만 강렬한 캠프가 주는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봉사 경험이 점점 쌓이면서 느끼는 것은, 짧은 기간의 캠프는 학생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와 의 인상 깊은 추억들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은 훗날 내가 지난날을 회상했을 때, 슬며시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기억들로 남는다. 그리고 그런 행복한 감정들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계절학교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다.

#8. 소수라 불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계절학교를 통해 얻은 경험을 갖고 실제로 제천간디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들은 비록 사회에 나가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에 그치거나, 무학력자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디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분명 주체성을 가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간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도 많아졌고, 갖추어야 할 역량도 많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바로 대안학교이기에, 그 속에서 교육자로서 큰 성장과 경험을 거듭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대안 교육과정이 확대되기에는 제한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언론·행정력·법의 벽과 지역민의 반발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안교육의 비전은 어둡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두운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소수의 공동체에 더욱 애정을 갖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나에게 제천간디 여름계절학교는 대안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제천간디학교에 조금 머물다 보면, 이 학교가 걷고자 하는 좁은 길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남녀평등 화장실, 도서관에 게시된 페미니즘 도서들, 채식 식단, 자율형 교육과정 등등... 간디학교에서는 남들은 쉽게 시도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여러 분야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이 모여 만든 공동체에서는, 소소하지만 풍족한 행복들이 가득 차 있었다. 간디 공동체는 사회 속에서 소수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이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가득 차 있었다.

<참가작>

행복한 꿈을 꿔던 교육활동을 마치며

나 혜 지
교육학과

<교활 0일차>

본격적인 교활을 가기 전에 여러 번의 약안 작성, 피드백, 리허설을 하였다. 우리 총괄단 수업은 부스 활동과 체육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을 구상했었는데, 우리 총괄들끼리 약안을 작성했을 때는 이만하면 완벽한 약안이고, 선생님들이 읽어보았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피드백 과정에서 부스 활동에 필요한 책상과 걸상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부스 활동에서 과목에 편성된 부스 개수가 프로그램 선생님 수량 맞지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체육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다 칠 수 있어서 준비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든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교사 혼자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하지만, 이를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 없이 그대로 교육 활동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아이들은 수업의 미흡함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업에서 얻어가는 것이 지식과 아이들 간의 의사소통, 즐거움이 아니라 지루함, 따분함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이 좋은 수업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생각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교사들 간의 수업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질 좋은 수업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정기적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 뿐만 아니라 같은 교과 선생님들이라도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교사 참관

수업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교구들을 논산여자중학교에 놓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분반 총괄들이랑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했다. 물론,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맘대로 진행할 수도 있었다. ppt를 미리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의했던 이유는 아이들과 첫 만남이기도 하고, 이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분위기가 편안해질 수도 있고, 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지브리 영화인 토토로 컨셉으로 ppt를 만들어 놓아서 토토로가 읽어주는 편지에 내 목소리를 입혔다. 보이시엔이라는 더빙 동아리에서 더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인 것을 모르게 목소리를 입히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녹음해서 컨셉을 조금 더 살렸다. 그랬더니 다른 분반 총괄 선생님들이 자신들도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재미있게 녹음하고 보내줬었다. 그랬더니 1일 차 때 아이들과 선생님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재미있었다고 말해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많은 경험이 결국 하찮지 않고,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곳에서도 쓰인다는 사실이었다. 더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다. 그리고 쓸모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더빙 경험을 예상하지 못한 교육봉사 활동에서 이용했다. 이처럼 나 자신이 계속해서 경험을 쌓다 보면, 그 경험이 나중에 어디서든지 활용될 수 있고, 나의 밑바탕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

<교활 1일차>

대망의 교활 1일 차! 교활 0일 차 때 분반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하고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아이들과 선생님들 간의 어색한 기류 없게 하려고 노력했다. 진진가 게임, 줄줄이 말해요, 줄줄이 그려요, 와 같은 게임을 하면서 같이 협동하고, 서로서로 알아가는 활동 위주로 준비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활동했고, 점차 서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아이들이 긴장하면서도 내가 재미있게 진행하고, 어색했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때 깨달았던 사실은 아이들은 선생님의 열정과 준비성을 잘 알아차린다는 사실이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이만 하면 꽤 괜찮다고 생각하여 수업 준비를 미흡하게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

생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 그래서 수업을 미흡하게 준비하면 아이들은 지루해한다. 내가 겪은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내가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으로 교활 시작 전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옆에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총괄단 전체가 어떤 컨셉으로 ppt를 제작할 것인지 상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와 분반 총괄 선생님들이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상의하였기 때문에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준비성과 열정을 느껴서 재미있게 활동했다.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그 수업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와 열정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이 경험을 양분 삼아 수업 준비할 때 더욱 꼼꼼히 준비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활 2일차>

‘총괄단을 이겨라’라는 프로젝트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수업 이외에도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행했다. 각 총괄단 분들이 준비한 게임을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하고 나중에는 그 도장판을 총괄단이 운영하는 매점에 가지고 가면 상품 뽑기 권으로 바꿔 주는 프로젝트였다. 게임을 하면서 총괄단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발음 게임을 했었는데,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을 아이들이 3번 안에 발음하면 되는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두려워하다가 내가 계속 아이들에게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점차 다가와 줬고, 그로 인해 게임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다음에는 아이들이 먼저 발음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먼저 말해주면서 나를 굉장히 많이 따라줬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친해지는 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렇게라도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를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은 다가오기 어렵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깨달았다. 또한,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아이들은 금세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잡고 같이 놀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고, 어떤 수업은 이

부분에서 조금 재미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먼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벽을 느끼고 다가가기 어려워한다. 내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나도 똑같았다. 나도 먼저 다가오시는 선생님이 좋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진 선생님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친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아이들도 나의 마음에 응답하여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다. 느낀 점 또 한가지는 아이들은 수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교류자라는 것이다. 수업을 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수업 혹은 선생님들이 다가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를 선생님께 말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를 선생님께 말하면 선생님은 그 피드백을 영양분 삼아서 더 꼼꼼하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고,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혹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업을 준비해야 교육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물론, 나도 이번 교육봉사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교육은 실험할 수 없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봉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업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업 준비하는 것이 안 된다면, 아이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보완점을 받아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사회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변화한다.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언젠가는 아이들과 맞지 않는 수업 방식을 채택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이번 교육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교활 3일차>

한 수업이 유독 일찍 끝났던 날이었다. 원래는 아스키코드와 비트 등을 활용해서 기획한 수업이라 늦게 끝나거나 딱 맞게 끝나는 수업이어야 했는데, 아이들이 정보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친 내용이기도 해서 손쉽게 문제를 풀고, 스토리에 몰입하면서 진행하다 보니 선생

님들의 예상보다 너무나 일찍 끝났었다. 분반 총괄이었던 나와 주 교사였던 선생님들이 제일 당황했었다.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고, 당연히 어렵고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던 활동들이 아이들이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풀렸다. 우리 분반 이외에 다른 분반에서는 어려워서 늦게 끝났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알 수 있었던 점은 사전지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려워할 수도 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전지식이 없다면 하나하나 기초부터, 사전지식이 있다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간단하게 짚고 어려운 것까지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초 중에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초적인 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사전지식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심리학을 배우면서 인지주의에서 스키마 형성이 지식습득과 지식 형성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배웠었다. 이때는 어렵풋하게 예시를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교육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전 지식이 형성된 것이 교육심리학에서 배운 스키마 형성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점이 있다면 같은 지식이라도 어떻게 배우는지에 따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스키코드의 경우에 아이들이 정보 시간에서 배웠다고 했는데, 정보 시간에 주로 암기식으로 배웠다고 했다. 시험도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없었다고 말해줬다. 하지만, 이번 수업에서 그렇게 외웠던 지식을 활용하면서 다시 배우니까 재미있었다고 말해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같은 지식이라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내가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따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지식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활 4일차>

우리 총괄단 수업이 있는 날!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피드백을 많이 받고, 약안도 계속해서 수정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체육 수업인 만큼 아이들의 집중력이 다른 수업들에 비해 굉장히 낮을 것이고, 이는 곧 선생님의 말씀에 잘 안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 수업이다 보니 아이들의 부상 위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 다녀오는 것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수업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스 활동을 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를 교실에서 체육관으로 이동해야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옮겨야 해서 선생님들의 체력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줬었다. 그래서 체육 활동 이후에 체력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말해주셨다.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교육은 아주 많은 외부의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경험에서는 준비과정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시간, 교육정책, 학생들 진도, 시험 등등 훨씬 더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외부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차이가 크다. 나 자신도 책상 옮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을 몰랐고, 이것이 수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을 통해 교육이 그 자체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변수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활 5일차>

교활 마지막 날!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날이었는데, 아이들도 아쉬웠는지 마지막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었다. 나 자신도 마지막 종례했을 때 굉장히 헤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울컥했다. 그런데 지민이가 선생님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어젯밤에 꽃을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종이꽃을 전달해줬는데 그 마음씨가 너무나도 고마웠다. 정말로 뿌듯했고, 행복한 교활이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고, 점차 선생님들한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떨려 했던 것이 헛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번 교육 봉사가 나한테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었고, 행복한 꿈을 꾸 것처럼 뿌듯함이 정말 컸다. 또한, 이번 경험이 내가 미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을 미리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점이 교육 봉사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고, 선생님들과 피드백하고, 미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생각해야 할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 활동은 완벽해야만 한다는 처음 생각에서 외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엔 불가능하다. 고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물론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확인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이번 교육 봉사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완벽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수업 방식은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서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참여가 적을 것으로 생각했던 수업 방식은 의외로 아이들의 반응이 열정적이었다. 이를 통해서 교사 혼자서 이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생각하고 완벽한 수업을 만들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교사와 아이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완벽한 수업을 만들기란 정말 어렵지만, 다른 교사와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반영하려 노력한다면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보다 더 좋은 수업, 완벽함에 한 발짝 더 가까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똑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관점에 따라서 중앙의 피사체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가장자리에 있는 피사체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소홀히 볼 수도 있는 이 피사체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적인 사진을 완성하게 된다.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한 사람의 관점으로는 수업을 완성할 수 없다.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교사 한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업 환경, 수업 받는 아이들 등 여러 요소가 모여 수업을 구성한다. 따라서 교사 혼자만의 관점으로는 수업을 완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관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아이들, 다른 교사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봉사에서 정말 내가 추후 교사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생각들을 미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참가작>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

신 지 혜
유아교육과

여름방학을 하고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친구들의 봉사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였다. 불현듯 채워야 할 봉사 시간의 존재가 떠오른 나는, 우리 지역 교육봉사 모집 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 끌렸던 곳이 바로 “우리 작은 도서관”이었다. 이주배경청소년(외국인 아동청소년) 친구들의 방과 후 교실 수업을 지도하는 봉사 활동이었는데,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신청을 하기 위해 가능한 날짜를 보니, 한참 뒤인 8월 25, 26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어찌 됐든 두 날짜를 모두 신청하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재밌게 방학을 보내다가, 22일 월요일에 담당자 선생님께 봉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받았다. 연락 없이 당일에도 오지 않는 봉사자들이 꽤 있어서 미리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였고, 나는 바로 참석 가능하다고 답신을 보냈다. 늘 건강하시라고 말해주신 친절한 담당 선생님의 문자에, 나는 더욱 이번 봉사가 기대되었고, 25일이 되어서 점심을 먹고 청바지와 아끼는 하늘색 카라 티셔츠를 입고 우리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2시부터 7시까지라서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 것도 참 좋았다.

30분쯤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한 우리 작은 도서관의 정원에는 알록달록 꽃들이 잔뜩 피어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동화 속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께서 밝게 웃으시며 나를 반겨주셨고, 짐을 놓는 곳에 데려다주시며 봉사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러시아권 학생들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12명, 고학년 8명, 중학생 2명 등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다. 이 친구들을 위해 한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목 중심으로 교육봉사를 하는 것인데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학년 학생들이 오고, 4시부터 6시까지는 고학년 학생들이 올 것이라고 하셨다. 공부하는 곳으로 가니, 나 외에도 3명의 대학생 교육 봉사생 분들이 각자 1~3명씩 아이들을 맡아서 자리에 앉으셨다.

1교시에는 수학 공부를 했다. 내가 맡은 아이는 이름이 디마라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거나 낯을 많이 가릴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인사를 하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다. 나이를 물어보니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우리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 공부를 하었는데, 디마가 거의 모든 문제를 척척 풀어내어 굉장히 놀랐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숫자 계산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 공통이니, 디마가 한국에 왔다고 숫자 계산을 못하거나, 적는 것을 내가 못 알아볼 일이 없었다.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바로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맞출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GOOD!”, “맞았어!”, “잘하네!” 하는 등의 칭찬을 해주니 아주 좋아하였다. 더하기를 할 때 손가락으로 세어서 푸는 경우도 많았지만, 아이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며 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구구단도 한국말로 잘 외웠다.

2교시도 8살 친구들의 간단한 덧셈과 뺄셈 공부를 하었는데, 이번에는 스네자나와 멜리나를 맡았다. 나의 왼쪽에 앉은 스네자나는 간단한 풀이를 바로바로 잘 풀어내었는데, 가끔 숫자를 뒤집어 적는 등의 실수가 있어서 수정해 주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지 않고 상당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보기가 좋았다. 오른쪽에 앉은 멜리나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도 척척 풀어내었는데, 계산할 때 손가락을 이용하여서 실수가 있었다. 두 친구 모두 바르게 앉아서 잘 풀었고, 역시 잘 풀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친구를 맡아서, 한 친구를 도와주고 있으면, 다른 친구가 혼자 풀고, 한 친구를 매기고 있으면, 다른 친구가 혼자 풀었어야 했는데, 스네자나가 특히 관심을 많이 받으려고 해서 멜리나가 상대적으로 조용히 혼자 푸는 경우가 많았다. 멜리나 쪽을 보고 있으면, 스네자나가 내 팔을 콕콕 두드린다던가, 지우개 두 개를 세워 눈사람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던가 등의 행동을 해서 이목을 끌었다. 스네자나가 그렇게 하면 귀여워서 좋기는 했지만, 자꾸 스네자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혼자서도 조용히 잘 푸는 멜리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2명의 친구에게 관심을 공평히 주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나중에 20명 가까이 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공평히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 방법을 찾아보아야겠다.

3교시에는 3명의 10살 친구들을 맡았다. 비까, 에리카, 디아나라는 이름의 아이들이었는데, 비까는 정말 명화에 나올 것 같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종이처럼 새하얀 피부에 반 묶음을 한 금발의 머리카락, 기다란 속눈썹과 푸른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는데, 옷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와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며 치맛자락을 동그렇게 휘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디아나의 외모도 반대의 느낌으로 인상 깊었는데, 살구색 피부에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카락, 쌍꺼풀이 없는 날카로운 눈매에 짙은 고동색의 눈동자를 가져,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외모였다. 다른 아이들과 특별히 다르게 너무나 서양적이고, 너무나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두 아이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나라로(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왔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니며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얼굴만 보고는 한 사람의 내면을 전혀 유추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다.

우리는 3교시에 (백의 자릿수) X (십의 자릿수) 계산 공부를 했는데, 이 수업 시간에는 수학 강사님이 오셔서 칠판에서 수업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 설명을 듣고 계산을 시작했다. 강사님께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보드마카를 활용하여 한국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풀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다들 잘 풀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한 명씩 다시 해주었는데, 디아나는 1~2번만 설명해 주어도 굉장히 잘 풀었다. 그리고 조금만 설명을 더 해주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었다. 그러나 비까와 에리카는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나는 비까의, 강사님은 에리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옆에 앉아서 도와주었는데, 강사님과 선생님들 말로는 비가가 원래 잘하는 아이라는데,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도 연달아서 문제를 틀리자, 비가가

하고 싶지 않다며 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책상에 문었다. 토닥토닥 원래 어려운 부분이라 막히는 게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비까의 마음은 여전히 토라진 상태였고, 손에 연필을 쥐여줘도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할 뿐이었다. 계속 부추겨봤자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 풀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풀어도 되지~”라고 말하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에도 다녀왔는데, 잠시 다녀오니 비까가 다시 처음의 생기를 되찾았었다. 내가 푸는 방법도 보여주고, 친구들이 푸는 모습도 보여주니, 비까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지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후로도 몇 문제를 풀어냈다. 안 풀리는 문제에서는 눈물을 보일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이 역시 그만큼 완벽히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에 보이는 모습이라 생각이 된다. 아이들도 완벽히 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과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막혔을 때, 뭔가를 하고 싶지 않아 할 때는 잠시 시간을 주고 스스로 다시 그걸 원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까를 다 봐준 다음 에리카에게도 가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고전하고 있기에 비까와 디아나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해주고, 내 풀이도 보여줬는데 강사님의 반복된 설명을 듣고 나서인지 금세 알아차리고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계산을 술술 해내었다. 문제를 술술 잘 푼 것도 칭찬할만하지만, 더욱 칭찬하고 싶은 멋진 점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끝까지 붙들고 도전하려는 태도였다.

4교시부터는 저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고, 고학년 학생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도 수학 공부를 했는데 테이야라는 친구가 나를 보자마자 나에게 꼭 붙어 안겨서, 선생님께서 테이야와 다리아를 나에게 맡기셨다. 3학년인 테이야는 곱셈과 나눗셈을 했고, 4학년 다리아는 분수의 덧셈을 공부했다. 테이야는 빨간색과 남색이 섞인 캡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캡모자를 사서 눈에 들어왔다. 두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번에도 수학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을 나에게 말하면 도와주었다. 수학 문제는 프린트된 학습지를 나눠주면, 거기에 이름을 적고 풀기 시작하는데, 테이야는 자신의 이름을 한국어로 적지 못할 정도로 한국어와 친하지 않은 듯했다. 학습지를 받자, 자연스럽게 다리아에게 넘겨주었고, 다리아는 그걸 받아 테이야의 이름을 써서 돌려주었다. 둘의 이런 콧비 같은 모습을 보고 다리아에게 둘이 자매냐고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친한 사이인 듯했는데, 다리아가 이름을

적어주는 것 외에도 테이야를 잘 챙겨주었다. 테이야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더워 보여서 모자를 벗겼는데, 머릿속에 땀이 가득했다. 그래서 모자를 살짝 벗어만 놓았는데,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하기 싫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로 테이야가 문제를 풀지 않고 놀고 싶어 하는 듯한 눈치를 보였다. 한 문제씩 집어주며 풀라고 할 때는 척척 잘 풀었지만, 내가 다리야를 보고 있으면 풀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몰입을 깨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교시가 되어서는 테이야가 받아쓰기 공부를 하러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다리야와 둘이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다리야는 한국어를 잘 쓰고, 대체로 잘 활용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어를 되게 많이 썼다. 우리는 한국어 문장 생각해서 쓰기, 한국어로 질문에 답변하기 등의 공부를 하였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지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지혜예요.)” 중간중간 집중이 잘 안될 때 쉬어가는 시간을 짧게 가졌는데, 다른 친구들이 우리 자리에 놀러 왔을 때 아주 옛날에 외워둔 러시아어 표현을 말했더니, 일순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 아주 반짝였다. 아이들은 한껏 상기된 목소리와 살짝 어색한 발음으로 내게 “선생님 러시아어 할 수 있어요?” 물었고, 나는 아주 조금만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다들 굉장히 신이 나 보였다. 이 순간 나는 아이들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후에 러시아어를 더 하지는 않았지만 다리야는 아주 집중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5교시가 끝이 났다.

마지막 6교시에는 안 니키타와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안이 김스를 하고 있어서 테이야와 다리야처럼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 교재를 큰소리로 읽으면서 한국어를 익혔는데 안은 한국어를 꽤나 능숙하게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읽고 나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에서는 정답률이 아주 낮은 것이다. 안이 글자를 보고 소리 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글자 자체만을 읽는 듯했다. 그래서 읽을 때 이 사람(필자)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하고,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방금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물어보았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듯했다. 그래서 듣고 파악하는 건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가 천천히 글을 한 번 읽어주고, 문제를 풀

어보았는데 그래도 잘 풀지 못하였다. 얇은 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보다는, 짧은 문장을 다양하게 학습하면서 읽거나 듣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해 보였다. 얇과 한 교시를 함께 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잘 느낄 수 있었다.

6시가 넘어서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배웅을 해주고, 뒷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용했던 학용품들을 원래 자리로 옮기고, 지우개 가루를 치우고, 책상과 의자를 닦고, 교육봉사 일지를 작성하였다. 다른 교육봉사생 분들과 인사를 하고 통성명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느 학과를 다니는지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마음씨가 곱고 상냥하신 것이 느껴졌다. 모두 개강이 코앞이라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되겠지만,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것이다. 7시가 되기 30분 전부터는 수업 시간에 만나지 못했던 중학생 여자아이의 생일 축하 준비를 도왔다. 칠판에 HAPPY BIRTHDAY를 적고, 폭죽, 케이크 등을 그려 알록달록 예쁘게 꾸몄다. 생일 축하송 음원을 찾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이를 불러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런데 음원이 우리가 아는 그 해피 벌쓰데이 투 유~ 노래가 아니라, 조금 더 빠른 템포의 노래였던 것이다. 우리는 당황해서 빠르게 다른 노래를 찾느라 허둥지둥 대고 있었는데, 도서관의 한 선생님은 오히려 재미있게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따라 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재미있어서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졌다. 생일의 주인공 여자아이도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쪽 어색한 표정으로 등장해서 있었으나, 선생님의 춤과 노래에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사춘기의 중학생 아이들이 세워둔 장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선생님의 유머 감각을 보고, 나도 저렇게 유머 감각을 길러서 아이들과 아주 친해질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오늘 봉사를 끝마치며 집으로 돌아갈 때 손에 메로나를 쥐어주셨고, 나는 맛있게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보통 같았으면 5시간이나 외출을 하고 돌아왔으니 얼른 씻고 뺏었을 텐데 이날은 왠지 그냥 자기가 아깝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 방 청소도 하고, 아이들과 더욱 쉽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들어가서 러시아어 숫자를 공부했다. ноль, один, два, три, четыре, пять, шесть, семь, восемь, девять, десять.

다음 날이 되어서 나는 아끼는 다른 남색 카라 티셔츠를 입고, 새로 산 캡 모자를 쓰고 우리 작은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새로 산 모자를 처음으로 개시한 것도 좋았고, 오늘도 귀여운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좋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에 다다랐고, 어제와 같이 짐을 놓고 선생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자리로 가서 앉았다. 오늘은 봉사생 분이 나 외에 1분밖에 없었다. 내가 1교시에 맡을 아이는 8살 알렉산드라였다. 알렉산드라는 애교가 굉장히 많았는데, 말도 굉장히 안 들었다. 의자에 눕듯이 앉아, 바른 자세로 앉을 것을 여러 번 말해도 고치지 않거나, 잠깐 물을 마시고 오면 내 볼펜을 숨기는 등 장난꾸러기 짓을 많이 했다. 그런데 동시에 애교도 많이 부려서 이런 장난들이 밍지 않고 귀엽게 보였다. 또 재밌었던 것이, 알렉산드라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른쪽 발에 모기 물린 곳을 긁고 있었는데, 어찌나 간지러워하는지 연필을 잡아야 하는데 긁는 것을 멈출 수 없어 보였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며 테이프를 작게 떼어서 발에 붙여주며 “이제 안 간지럽지?” 하니 정말 그 뒤로는 발을 긁지 않았다. 나도 이게 먹힐 줄은 몰랐는데 아이가 하도 간지러워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한 것이 통해서, 다행히 이후로는 연필을 쥐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간단한 덧셈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열심히 풀지는 않았지만, 풀기로 마음먹은 문제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모습을 보였다.

2교시에는 알렉산드라, 다니엘의 받아쓰기 수업을 맡았다. 다니엘은 알렉산드라와 동갑인 8살 남자아이였다. 받아쓰기는 방에 들어가서 하였는데, 바깥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이 더욱 말을 안 들어서 참 곤란했다. 다니엘은 틈만 나면 책상 밑에 들어가거나 피아노 밑의 공간으로 들어갔고, 가끔 창틀에 팔을 얹고 창밖을 응시하기도 했다. 다니엘의 사정을 나는 전혀 모르지만 어딘가 숨고, 떠나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알렉산드라는 의자를 45도 각도로 세우며 위험한 자세를 계속했고, 받아쓰기할 단어를 불러주어도 전혀 적지 않았다. 이 상황이 계속되니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다행히 다니엘은 받아쓰기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 우선 다니엘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 단어를 쓸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칭찬해 주었다. 다니엘은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이후에 불러주는 단어들도 열심히 적었다. 사과, 한국어 등 총 6단어를 불러주었는데 완벽히 적은 단어는 없었지만 맞게 적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다는 것이 잘 느껴졌다. 첫 번째 단어를 불러주었을 때 알렉산드라가 전혀 적지를 않아서 왜 이러는 건지, 뭐가 싫은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가 적어달라고 말을 하였다. 내가 칠판에 정답을 적으니, 알렉산드라가 종이에 똑같이 단어를 적었다. 알렉산드라는 받아쓰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글을 적을 줄 몰랐을 뿐이었다! 이걸 알고 난 후로는 1 단어를 불러주고, 2 다니엘이 맞게 적었는지 확인하고, 3 칠판에 정답을 적고, 4 다니엘이 단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5 알렉산드라가 바르게 적었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 번 순서를 잡으니, 뒤의 단어도 진도를 잘 낼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4문제를 마치고는 다니엘이 갑자기 창가로 가서 창밖을 응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다니엘을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팔을 창틀에서 떼려고 하였으나, 그럴수록 힘을 주어서 오히려 더욱 꼭 달라붙었다. 여기에 알렉산드라까지 나를 도와 합세하니, 아이들이 이 상황을 놀이 상황으로 받아들여 당기기 놀이가 되었다. 많이 웃고, 재미는 있었지만, 받아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설득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도 창가에 딱 붙어 있던 다니엘이었지만, 딱 2문제만 더 하자라는 말을 하니, 바로 스르륵 팔을 내리고 자리로 돌아와 받아쓰기를 하였다. 그리고 약속대로 2문제를 더 쓰고는 다시 창가로 가 창밖을 응시하였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나와 알렉산드라는 칠판에서 단어를 따라 썼는데 알렉산드라가 계속 단어를 따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못 쓸걸~”, “이건 진짜 어려운 단어인데~”와 같은 도발적인 말을 해야 했다. 앞으로 이 두 친구를 움직이게 하려면 다니엘은 딱 필요한 만큼 약속을 하고 그걸 지켜야 하고, 알렉산드라는 도발적으로 부추겨서 승부욕을 불태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그걸 잘 파악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잘 공부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다.

3교시에는 막심과 수학 공부를 했다. 막심은 내가 최근 1년 동안 본 생명체 중에 제일 귀여운 아이였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과 동그란 얼굴형이 그 귀여움을 더욱 배가시켰다. (십의 자릿수) X (일의 자릿수) 계산을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계산을 했다. 가끔 (일의 자릿수) + (일의 자릿수)를 했을 때 십이 넘어가는 경우 계산을 틀리기도 했지만, 다시 생각하였을 때는 맞출 수 있었

다. 계산을 잘하는 막심도 아직 8살이라 그런지 손가락을 활용해 계산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막심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너무너무 귀여웠는데 아주 멋진 면모도 가지도 있었다. 모든 학습지를 해결하고 마지막 한 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3문제만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교시의 시간이 끝났는데, 쉬는 시간을 알리는 선생님의 소리에도 꿈쩍 않고 끝까지 문제를 풀며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참,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어제 공부한 러시아어 숫자 표현이 유용히 쓰였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숫자 계산을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던 것이 모두 숫자였기 때문이다! 어제는 러시아어 숫자 표현을 몰라서 ‘다들 계산을 할 때 뭘 저렇게 중얼거리는 거지?’ 생각만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한국인들과 똑같이 러시아어로 “이이는 4.. 육팔은.. 육팔은.. 육팔은.. 48..”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막심이 학습지에 답을 적기 전, 외쳤던 숫자를 듣고 바로바로 칭찬을 해줄 수 있었고, 틀리게 계산을 한 경우, 숫자와 plus, minus를 활용해 빠르게 설명과 수정을 해줄 수 있었다.

4교시에는 색칠놀이를 했다. 선생님께서 색칠을 할 수 있도록 굵은 선으로 그려진 그림을 프린트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아이들은 각자 색연필로 원하는 색으로 칠하였다. 내 옆에는 막심과 알렉산드라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두 친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중에 와인 그림이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와인을 잘 몰라서 그냥 뛰어넘거나 아무 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막심은 나에게 이것이 어떤 물체인지 물어보고(어른들이 마시는 포도 주스라고 함), 그 성질을 파악하여 알맞게 그림을 색칠하였다. 그냥 시켜서, 혹은 대충 일을 하지 않고, 분석적으로, 정확히 일을 하는 막심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알렉산드라는 꼼꼼히, 그리고 알록달록 예쁘게 그림을 색칠하였다. 물체의 원래 색을 생각하기보다는 딱 보았을 때 예쁘도록 왼쪽에서부터 무지개 빛깔로 색칠한다던가, 조금 선을 튀어나왔을 때 지워달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함께 수학 공부를 했던 디아나가 막심의 옆 테이블에 있었는데 디아나는 아이가 색칠한 것이란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히 튀어나온 부분 없이 작품을 완성했다. 아이들이 모두 저마다의 성격대로 일을 완수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5교시에는 다리아, 테이야와 한국어 공부를 했다. 테이야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름도 쓸 수 없을 정도로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단어를 따라 쓰고 뜻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다리아는 모르는 단어도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어를 잘 쓸 수 있었다. 6교시에는 테이야, 스니잔나와 한국어 공부를 했다. 스니잔나는 가끔 조사를 쓸 때 실수가 있었지만, 거의 정확하게 한글을 쓸 수 있었고 사진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유추하여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다. 7교시에는 테이야, 안나와 함께 수학 공부를 했다. 5~7교시에는 아이들과 한국어, 수학 공부도 했지만, 나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주는 시간도 가졌다. 시작은 내가 테이야에게 나도 오늘 캡 모자를 쓰고 왔다고 알려주기 위해, 옆 친구에게 모자가 러시아어로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단어를 배운 후, 짐을 두는 곳에 놔뒀던 모자를 쓰고 와, 테이야에게 보여주며 “кепка!”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주 좋아하였고, 주변에서 나에게 더욱 많은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GOOD이 러시아어로 뭘지 물어보아 “хорошо”도 배우고, “красиво (Beautiful)”, “учёба(공부)”, “да(예)”, “нет(아니요)”, “математика(수학)”, “пока(헤어질 때_안녕)”, “учитель(선생님)”, “телефон(핸드폰)”, “지혜”, “책을 읽다”도 배워 3교시 동안 총 12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한 단어를 똑바로 쓸 때마다 모두 아주 감탄하며 칭찬해 주었고, 내내 작은 목소리로 기가 죽은 듯이 말을 하던 스니잔나도 신나게 단어를 알려주며 마치기 전에는 러시아 알파벳까지 표로 만들어서 그려주었다.

귀여운 아이들도 보고, 봉사 시간도 채우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밝고, 목소리도 크고, 아이들에게 참 잘 대해주시다고 칭찬도 듣고! 이번 여름방학에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을 하나 더 저장할 수 있었다. 뒷정리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감사했다며 우리 작은 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언제나 다시 방문해달라고 하셨다. 더 멋진 내가 돼서 꼭 겨울 방학 때 다시 방문할 것이다! 다시 방문할 겨울방학 때 간단하게라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동안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러시아어를 공부해야겠다.

<참가작>

멀리서 봐야 보인다

안 소 정
컴퓨터교육과

종강을 하기 전, 나는 어떻게 하면 대학생 첫 방학을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고민 끝에 교육봉사를 한번 해보기로 했고, 모교에 교육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들께서 허락해주신 덕분에, 종강 후 바로 모교에 교육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주일 넘게 교육봉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은 보람찬 시간이었다.

내가 하는 교육봉사는 선생님들의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똑같이 짝 채워 8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는 늦잠을 자던 여느 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모교로 향했다. 출근길에 학생들과 차들로 뺨뺨한 걸 보면서 아, 정말 내가 고등학교에 다시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등학교 재학 시절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았다. 학교에 도착하고, 먼저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서관 임무를 맡았다. 도서관 책들을 정리하고, 한 서가에 있는 책들을 다른 서가로 옮기는 단순 노동직이었다. 나 때와는 다르게 도서관이 리모델링되면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공부 환경이 되어있었고, 시험기간 또한 겹쳐서 훨씬 많은 학생들이 붐볐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사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소통이었다. 사서 선생님은 학생들이 도움을 청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서 선생님께 도서관 일은 물론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것 같다. 사서 선생

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학생과 대화를 원활히 이어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첫째 날이 끝났다. 정말 색다른 경험에 신기해하면서 정신없이 하루가 끝난 것 같다. 생각보다 학교시설이 많이 달라진 것에서 놀랐고, 선생님들과 내가 같이 급식을 먹는 것도, 나보다 어린 학생들이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다 신기했다. 물론 피곤함도 있었다. 그동안 활동하지 않은 시간대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역시 체력은 학생 때나 교사라는 일을 하나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보니 앞으로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학교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내가 맡은 일에 적응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줄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다. 사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학생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보조하면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눈으로 많이 보고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점점 늘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감에 힘을 얻어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시험 팁도 주는 등, 학생들과의 교감을 많이 시도하고 이루어 나갔다.

또 점점 일에 적응하면서 더 다양한 일들에 대해 배웠다. 특히 가장 기억이 나는 건 결재서류를 내가 직접 써보는 것이었다. 담당 선생님께서 결재서류 쓰는 유형을 알려주시고는, 여러 번 나에게 써 보도록 시키셨다. 처음에는 학생 때 눈대중으로 많이 봤던 거니까 잘 할 수 있겠지 하고 약간 가볍게 여겼는데 띄어쓰기, 온점 하나하나 등 생각보다 규정이 엄격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하나의 결재문서에 대해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했고, 신청해도 각종 선생님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역시 선생님들의 서류는 철저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한번 더 느낀 것 같다. 아무튼 학생 때 많이 보던 선생님들이 올리던 결재문서를 내가 직접 작성하고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정말 교사가 된 기분이었달까? 꿈같은 경험이었다.

또 하루는 선생님들께서 졸업생 특강을 부탁하셨다. 나는 교육계열이다 보니

교육 쪽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으셔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다. 알겠다고, 맡겨만 달라고 자신을 보였지만, 진짜 그날은 좀 많이 긴장한 것 같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게 설레는 것은 물론, 내가 과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가 너무 긴장이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선생님께서 모아서 뽑아주신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답하려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취약한 질문은 동기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준비해갔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그날이 왔다. 학생들 5~6명이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나를 반겼고, 미리 받은 질문에 대해 답을 했다. 한 시간 가량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학교 후배들이어서 그런지 더욱 꿈을 다들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어려움은 없었고, 학생들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해줘서 더욱 뿌듯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재미있었던 건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시간이었던 것 같다. 모교에서 봉사를 하면서 좋은 점은, 아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학교에는 교원대 나오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교원대의 역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었고, 이 경험 역시 너무 신기했다. 또 학생 때는 선생님들과 하지 못했던 인생 이야기, 교직 생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여기에서 느끼고 배운 점, 교훈들이 정말 많았다.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에 대해 꿈꾸고 있는 나 자신이 어리석게도 교사에 대해 아는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학교 현장에서 보고, 듣다 보니 내가 몰랐던 모습들을 더욱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을 다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다. 선생님께서 요즘은 우리 때와 다르게 학생들이 코로나 시대다 보니 아이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더욱 강해졌고, 아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욱 많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연도에는 학생들에게 아기들 다루듯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하셨다. 요즘은 더구나 학생들에게 혼을 내기 조심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선생님도 많다고 하셨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건들거나 혼내기 어려워하는 선생님들, 별점만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

고 있다고 하셨다. 이럴수록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고치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 과거에 비해 힘들어진 교직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진정한 교사의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위대한 것도 아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지 않을까? 이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나의 스승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은 것 같았고, 나도 이러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교육봉사를 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늘었다. 나도 미래의 선생님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 때 아 나도 저랬었나? 생각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입장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학생 때는 나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멀리서 지켜보니 선생님의 입장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기도 한다. 학교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니 학생과의 의사소통 등 배워야 할 점과 좋지 않은 점이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를 통해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나의 입장만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침착하게 생각한 후 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바른 길로 이끄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알찬 기회를 가졌던 이번 여름이었다.

<참가작>

똑같은 것보다 조금씩 다른 것이 더 좋아

양 소 영
윤리교육과

내가 다녀온 교육봉사 활동인 무극중학교 어울림캠프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기부추진단에서 진행하는 교육현장 활동이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기부추진단은 본교 학부생들의 현장 활동 경험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나는 이 단체의 단원으로 속해있고, 올해 여름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진행하는 어울림 캠프의 총괄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어울림 캠프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그중에서도 분반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분반총괄의 역할이었다. 캠프는 5일 동안 학생들은 등하교, 선생님들은 학교 인근 숙소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육현장활동 중

첫날, 학교에 도착해서는 1분반 교실에 들어가 에어컨을 켜려고 했는데 안 켜졌다. 생각보다 학교시설이 나빴다. 분반 책상 배치하고, 티비를 켜서 레크리에이션 피피티와 자리 배치도를 깔아두고, 배경음악을 틀어 놔다. 중간에 에어컨이 켜져서 다행이었다. 밖이 소란스러워서 봤더니 캠프 수혜 학생들이 도착해 다목적실로 이동하는 소리였다. 사전답사 때도 아이들을 슬쩍 봤을 때 키가 되게 컸던 기억이 있었는데 음 진짜 크더라. 러시아어를 필두로 태국어, 중국어가 들렸다. 학생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캠프 오터를 분반 통합으로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목적실로 이동했다.

우리 1분반 친구들에게 명찰을 나눠주면서 하나하나 얼굴을 마주봤다. 이름을 묻자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다. 전체 오티가 끝나고 분반으로 이동해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오랜만에 분반 담임 선생님이로 학생들 앞에 서려니 좀 떨렸다.

분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우리 분반 학생들의 특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직 1학년이어서인지 한국어보다는 모국어가 편한 듯했고, 그래서 소통에 문제가 많았다. 학생들은 내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보조 교사가 하나하나 번역기를 돌려주어야만 말을 완전히 이해했다. 활동 중에 모국어로 조를 넘나들며 말을 나누는 경우가 많았고 나와 프로그램 선생님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앞으로 수업 진행에 있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이들 자체는 순수하고 귀여웠다. 그리 소극적이지는 않아 발표도 곧잘 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시간에 총괄단 수업이 있어서 음악실로 먼저 이동하여 수업을 준비했다. 다른 친구가 메인이 되어 준비한 첫 번째 총괄단 수업이었다.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 비누에 양각, 음각을 활용하여 도장을 만들어보는 수업이었다. 수업 아이디어는 내가 제공하고 구체화는 그 친구가 맡았다. 그래서 수업 파트 분배도 친구 위주가 되게 조정했다. 전날 걱정했던 것보다 전반적인 수업 진행은 매끄러웠다. 물론 중간에 혼동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웃긴 건 내가 그렇게 보조교사분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수업에서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내가 화상을 입었다. 전자레인지에 비누 베이스를 녹이고 나서 꺼내다가 흘러넘친 비누액을 손으로 만졌다. 꽤나 뜨거웠다. 응급처치를 위해 급하게 가사실로 가 물을 틀었는데 단수가 되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냅다 얼음을 꺼내 손에 쥐고 다시 수업을 들어갔다.

수업에 대해 자가 피드백을 하자면, 학생들 언어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된 첫 수업이라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1분반 학생들이 모둠을 오가며 모국어로 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가 비누 만들기 활동을 지도해야 하는 단계에서 수업 진행 순서를 헛갈려 도장 구상도 그리기를 진행하려 했다. 수업 흐름 속

지가 잘 되어있지 못했던 것 같아 반성하는 부분이다. 다음 수업은 없지만, 또 다른 총괄단 수업에서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피피티에 사용되는 단어, 수업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조교사 의존도가 높았던 수업이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하는 어울림 캠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되도록 주교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1분반 학생들의 경우 수업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다. 시간 분배는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색소로 도장이 잘 찍히지 않아 난감했다. 그리고 비누 표면이 고르지 않아 도장이 잘 찍히지 않았다. 만약 다음 수업이 있다면 색소 대체재를 찾아보는 것과 사포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보았을 것 같다. 그리고 수업 내용과는 별개로 내가 생각보다 수업 진행하면서 머리카락을 많이 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수업을 진행할 때는 시작하기 전부터 머리를 묶고 수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업에 대한 총평을 남기자면, 썩 만족스러운 수업은 아니었으나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총괄단 수업은 빈 시간표를 메꾸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과목으로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총괄로 참여하는 교육현장활동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로 감사한 일이다. 비록 피드백 사항을 반영해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들 앞에 선생님이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이 소중한 기회에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나 자신에게 부끄럽고 아쉬웠던 것 같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그리고 사실 6번째 교육현장활동이지만, 이번 수업은 내가 주교사로 진행을 맡은 첫 번째 수업이었다. 3번 분반총괄으로 참여했고 그중 2번 총괄단 수업을 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주교사였던 적이 없었다. 이번에 처음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 앞에 서는데 되게 떨리고 긴장되었다. 그 떨림과 긴장감의 근원을 찾아보면, 사실 나 피드백 시간에 말 많이 하는 편이다.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았을 때 뭐든 부족한 점, 개선점을 나름 잘 찾아낸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남의 수업에 대해 이런저런 피드백 많이 하는데 정작 내가 수업을 못하면 너무 웃기지 않겠는가. 실

제로 다른 교육현장활동을 함께 간 선생님들이 내게 내가 주교사가 되어 하는 수업도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다는 말을 꽤나 여러 번 하셨어서. 꽤나 부담스럽고 긴장되었다. 그래서 수업 끝나고 처음으로 피드백 시간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드백 회의 시간을 두려워하던 프로그램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일차. 이 날부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1분반 아이들 4명이 '결석'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대형 교육현장 활동의 경우 아이들 3~4명의 결석이 분반 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지만, 1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2분반 체제로 활동을 하였기에 3~4명의 결석, 그것도 한 분반에서의 대거 결석은 분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총괄단 간 논의를 거쳐 분반 통합을 하고자 했다. 앞으로 쪽 많은 비가 올 것이고 이로 인한 결석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었으며, 아직 분반별로 나누어 진행하는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분반 통합 시 시간표 중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비록 수업 횟수가 1회로 줄어들기에 프로그램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없기에 분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선생님들께 공지를 드리게 되었다. 선생님들께 공지를 드리던 바로 그때, 담당 선생님께서 급하게 들어오셔서 아이들이 9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학생들이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어서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한 시간 십분이 지나서야 학생들이 등교했다.

3일차에는 전날 폭우경보가 내려 학생들이 거의 등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떨고 있었다. 심장을 붙잡고 등교했는데, 다행인 건 학생들이 무려 5명이나 와줬다는 거! 6명 중 5명 온 거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좋더라. 반갑게 조례를 하고 바로 수업을 들어갔다.

피드백 회의가 끝나고는 다 같이 다목적실로 이동해 학생들에게 전할 문구를 담은 사진을 찍었다. 마법의 3일차라는 말이 있다. 어떤 학교 교육현장 활동이든 3일차가 되면 학생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끼리도 친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이번 학교에서도 똑같았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는 같이 수업을 하는 친구와 3시간 정도 무극 파

티시엘 수업 준비를 했다. 생각보다 아이들 언어 수준이 낮아서 각 나라 언어를 담은 학습지 다시 만들었다. 피피티 슬라이드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내가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4일차 저녁에 1분반 친구가 코로나 자가 키트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게 되었다. 곧바로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도 이를 알고 계셨으며, 늦은 시간이지만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선 프로그램 선생님들께 키트를 지급하여 전원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행히 선생님들은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분반 친구 한 명이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었고,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 모두가 양성임에도 계속 출석하였음이 밝혀졌다. 무극중 측에서도 비상이 걸린 듯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보건 선생님 및 교감 선생님과 긴 연락 후, 교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5일차 활동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하셨다. 사실상 활동이 끝난 셈이었다. 물론 코로나가 확산되었으니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기는 무리가 있었다. 총괄단 측에서도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 수료식만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총괄단으로써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찬성했다. 근데 사실 5일차에 총괄단 수업으로 무극 파티시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내가 4개월 간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수업 약안과 예산안을 쓰고 두 번의 댓글 피드백과 리허설을 거쳐 준비한 수업이었다. 총괄단 다 같이 사전집행도 하고, 캠프 시작하고 나서도 학생들 모국어로 추가 유인물을 만들고, 다른 수업 빠져가면서 가사실과 음악실에 교구를 세팅해놨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 앞에 수업하는 선생님께서 서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더욱 아쉬웠다. 물론 전공 과목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지만,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한 수업이기에 그 실망감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애써 티는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내 바람대로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행히도 코로나 검사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음성이 나왔다. 급하게 버스 임차 시간을 바꾸고 예약한 점심과 간식을 취소하고 시간표를 변경했다. 그리고 나는 수료식 영상을 마무리하고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잠에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롤링 페이퍼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가니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고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께서는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짧은 5일 동안 현직 교사들이 2년 동안 겪을 일들을 다 겪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현장에서는 이번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변수들에 대응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워가길 바란다고. 또 학생들을 위해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학생들이 이번 캠프 활동을 너무 좋아했다고 말해주셨다.

감동이였다. 내년이 정년이신 한국어 학급의 담당 선생님이셨다. 사실 이런 캠프, 교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귀찮은 일이다. 방학 중에 학교에 나와야 하고, 시설 대여도 해줘야 하고. 또 학기 중에도 이런저런 연락들과 공문들로 번거롭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말 본인이 맡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자, 학생들이 무언가를 얻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이 캠프를 2년에 걸쳐 함께해주셨다.

어울림 캠프는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캠프이다. 다문화. 사실이 말이 주는 의미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 중에 학생들은 다문화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근데 교사가 그 학생들을 '다문화'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타 학생들에게도 그 학생이 일반 친구가 아니라 '다문화'가 된다는 거다. 야 '다문화' 너 이따 끝나고 남으래. '다문화' 너네 방학에 캠프 한다면? 이렇게. 무심결에 나 또한 학생들을 학생 그 자체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타이틀에 가두고 생각하고 대하지는 않았을까 성찰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의 면담 이후 비대면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마니또를 맞추고, 수료식 영상을 틀어줬다. 몇몇 학생이 울었다. 나도 눈물이 찔끔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고 싶다고 선생님들에게 줄 게 있다고 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이지만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총괄의 입장에서는 좀 버거웠다. 총괄단 상의 하에 학교 밖에서 2m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나서 청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분반 학생들이 학교 밖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울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청소하느라 아이들을 보러 내려가지 못했다. 짐을 다 옮기고 버스에 타고 나서도 학생들이 끝까지 우리

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들었다. 우리가 뭐라고 집에서 먼 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와서 선물과 편지를 주고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아이들이 한없이 사랑스러웠다. 사실 이런 애정을 받을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전 교육현장 활동의 여운이 오래 지속되었고, 오랜 업무에 지쳐 번아웃이 오기도 했었기에.

교육현장 활동 후

무극중 교육현장 활동 기간 내내 분반총괄로는 나름 열심히 임했지만, 선생님들과 친해지거나 유대감을 쌓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리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무극중 교육현장 활동 직전에 있었던 여러 일들로 인해 내 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관계를 쌓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있었고, 누군가를 믿고 내 내면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달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은 아닌가 아쉬움이 남기는 한다.

이번 무극중이 내 마지막 어울림이 될 것 같다. 어울림은 사실 진입장벽이 참 많이 높다. 지원자 수가 적어 프로그램 질도 보장하기 어렵고, 학생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기에. 그렇지만, 새로운 걸 현직 교사가 되어 시도해보는 것보다, 학부생일 때 부딪혀보고 도전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문화 어울림 캠프는 충분히 매력적인 교육현장활동인 것 같다. 내가 언제 다문화 학생들만을 데리고 수업을 해보겠고, 함께 어울려 보겠는가. 교직에 나가서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이기도 하고, 만약 교직에 나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거라면 시행착오가 참 많았을 것 같다. 학부생이고 실수가 허용될 때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울림 친구들의 뽀짝뽀짝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눈동자, 해맑음이 함께하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한다는 거. 이것도 굉장한 매력이다.

4개월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일주일이었다.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활동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학생들, 보람을 느끼는 선생님들을 보며 '빛을 발함'을 느꼈다. '똑같은 것보다 조금씩 다른 게 더 좋아.' 이는 무극중 학교의 슬로건이다. 나는 무극중학교 교육현장활동을 통해, '서로 달라도 하나

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교육현장 활동에서의 여러 활동들을 매개로, 그리고 서로가 나눴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을 매개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무극중에서 하나가 되어 열정을 발하고 행복을 누렸던 지난 일주일간의 추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무극중학교 어울림캠프는 내가 어떤 면에 빠져서 교사를 꿈꿨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였는지 다시금 느끼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내 뜨거웠던 22학년도 여름을 보내주고자 한다.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내릴 때마다 나는 무극중학교가 생각날 것 같다.

<참가작>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

이 예 은
초등교육과

복학 후, 나에게 남은 것은 식은 열정과 결여된 자신감이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알찬 수업과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겠노라 다짐했던 20살의 나는 온데 간데 사라지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점점 위축되어가는 내 어깨만 남아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나에게 학생을 위한 열정과 고민이 보인다면 응원해 주셨고, 현장 경험의 색다름과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다. 그렇게 이번 방학에, '찾아가는 자유학기제'에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함께 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눈빛은 햇살보다 따스했다

오랜만에 교실에 나아가는 길은 꽤 설레기도 하였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고, 눈이 일찍 떠져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처음 교실에 들어섰을 때, 나를 쳐다보는 수십 개의 눈동자에 자기소개를 하는 것에도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가빠져 화장실로 도망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런 나를 기다려주었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여나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내가 건넨 칭찬 한마디가 그 학생에게는 어찌면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내가 날린 엄지 척 한 번과 칭찬 한마디가 아이들의 웃음으로 돌아와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하였다.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다

4D 프레임, 예술기반 등의 다양한 수업이 있었지만, 나는 '밸런싱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섰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변남석 강사님'을 도와 준비물을 나누어주거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강사님의 수업을 도와 게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대학에서는 교과 과목에 대한 고민을 주로 했다면, 강사님의 수업은 교과목 외의 세상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어쩌면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해나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또한, 이번 찾아가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다양한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년에 따라, 혹은 같은 학년에서도 학급에 따라, 수업의 분위기는 달랐고 학생들의 성격도 달랐다. 미션을 성공하면 손을 들어 선생님을 외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조용히 혼자서 완수해내는 친구가 있기도 하였다. 교실 뒤편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앞에서 바라볼 때와는 달리 새로운 학생이 눈에 띄기도 하였다. 때로는 새로운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봐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다양한 색깔의 교사, 나는 어떤 색일까

함께하는 선생님도 각자의 스타일이 달랐다. 강사님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다. 나는 박수나 큰 목소리로 학생들을 집중시키려고 한 반면, 넉넉한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하나 하나 보여주는 선생님도 계셨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발문, 칭찬 방식, 설명 방식 및 사고유도 방식을 볼 수 있었다. 또 학생들과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선생님도 계셨고, 반면 이전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계셨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학생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네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나는 어떤 선생님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목소리 큰 선생님, 교구 정리를 도와달라던 선생님, 또는 따봉을 날리는 선생님. 다양하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수업 속에서 '나를 어떤 선생

님으로 만들어나갈지'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민하고 생각 하면, 그 진심은 전해지게 되어있어요.'라고 하시던 교수님의 말씀처럼,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칭찬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집중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진 찍는 것에 예민하지는 않을지. 그렇게 고민한 흔적들이 또 하나의 빛이 되어 학생들을 비추었길 기대한다.

흔히들 교직은 대학에서의 공부와 현장에서의 경험이 정말 다르다고 말한다. 다양한 수업 지도서를 보며 발문을 계획해도, 막상 만나는 학생들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늘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번 교육 봉사는 위축되어 있던 나에게 문을 두드리는 경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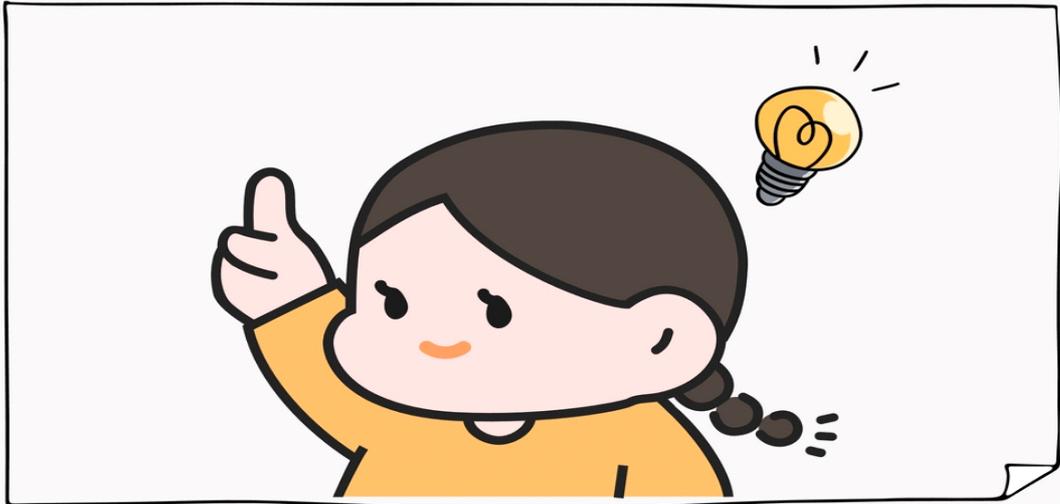
교사가 되어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려면 사랑을 많이 모아놔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교실에 나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치유 받거나 힘을 얻기도 하였다. 학생, 알바생, 친구의 자리에서보다 선생님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나 또한 학생들을 통해 위로받고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또 교실로 돌아가, 따뜻한 햇살이 되어 서로를 비추는 교사가 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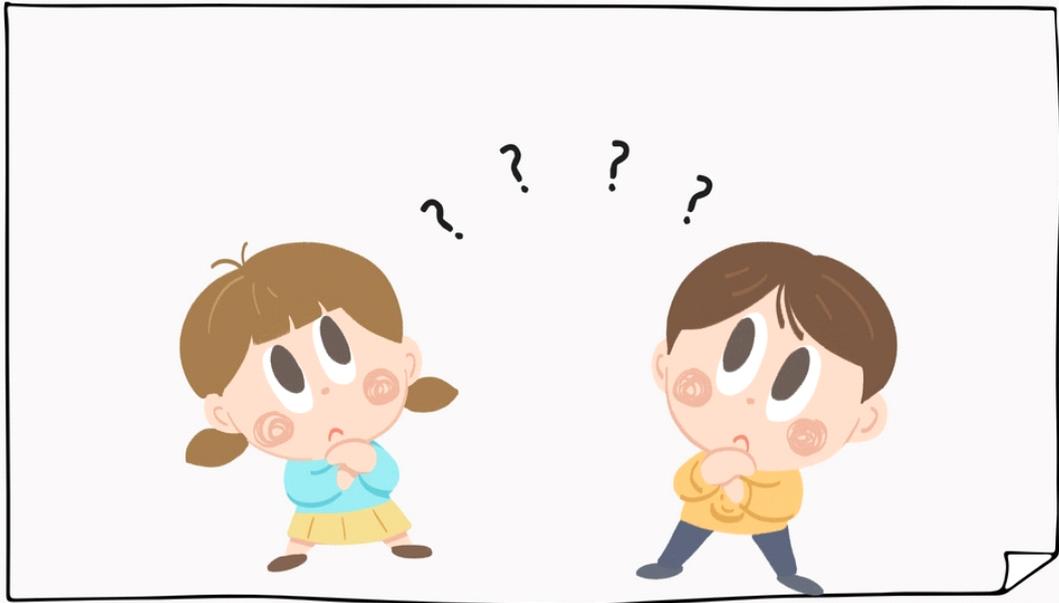
<참가작>

사범대생의 유치원 봉사 일기

이 주 현
수학교육과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원대 수학교육과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학생은 교육봉사를 유치원으로 가기로 했어요!



유치원에 간 첫 날!!
걱정과 긴장 그리고 설렘이 공존하였습니다.
배정받은 반은 6살 반인 고운반이었습니다
반에 들어가니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이
학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날은 예고도 없던 물놀이 날이었어요. 당연히 어린 5, 6, 7살 아이들은 암전히 놀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옷이 쫄딱 젖어버렸지 뭐예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이 학생도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네요!

첫날은 행사가 있었으니 특별한 일과가 있었지만...
과연 평상시 학생의 일과는 무엇이였을까요?

9:00 등원
9:00~11:00 청소하기
11:00~12:00 놀이지도
12:00~13:00 급식지도
13:00~14:00 청소하기
14:00~15:00 간식지도 및 놀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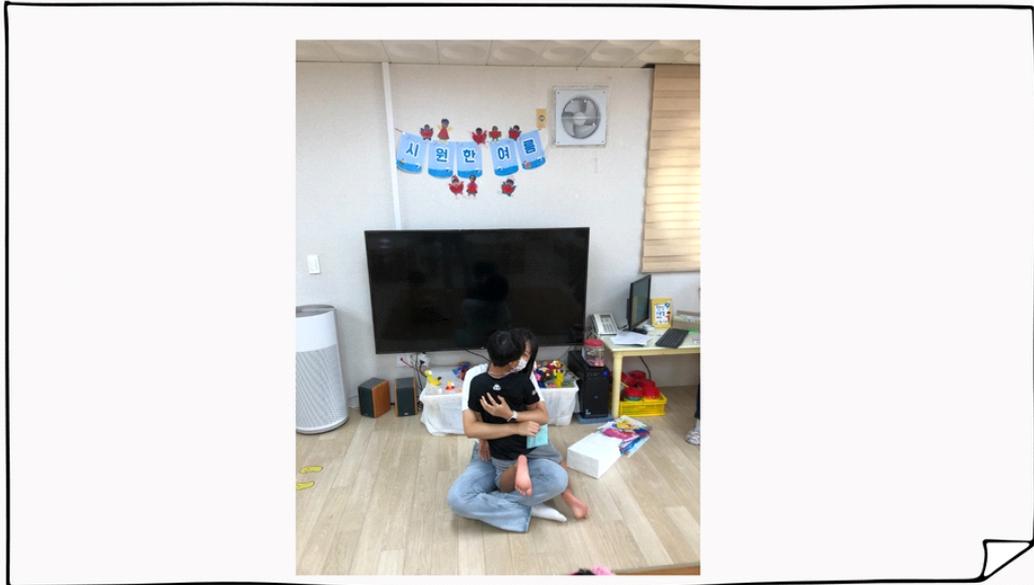
사실 가기 전에 유치원교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단순한 업무밖에 없고 아이들과 놀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지만.. 막상 직접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체력을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 소통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또한 유치원 내 청결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에 힘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약 10일간 봉사를 했어요. 모두 기억에 남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두 아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친구는
고운반에 쌍둥이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중 동생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안기고 보호본능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항상 선생님 안아주세요~~하며 달려오면 안아줄 수 밖에 없었어요!!
행동이 느리고, 발달도 형에 비해 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씨는 정말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정리시간이 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선생님 잘했죠??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지요!!
그리고, 이 친구의 쌍둥이 형같은 경우 항상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게 너무 사랑스러
웠고, 역시 순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형제였어요!

이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잘 안기고 보호본능을 느끼게 해준 친구였어요. 행동이 느리고, 발달도 형에 비해 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씨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정리시간이 되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선생님 잘했죠?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지요. 그리고 이 친구의 쌍둥이 형 같은 경우 항상 동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두번째 친구는 항상 말투는 무심하지만 점점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름 따뜻한 아이예요!!

겉은 상남자처럼 생기고 말도 가끔씩은 상처받게 하는 친구인데
마지막 주에 이 친구가 블록 놀이를 하면서 공주님을 만들길래
'OO아 이거 뭐야? 공주님이네?? 선생님 답았따!!' 이러니까
'선생님 답았어요' 이러는 친구였어요! 항상 보면 장난만 치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약간의 말투만 바뀐다면 정말 천사가 될 아이였어요
이러한 과정을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학교에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두 번째 친구는 항상 말투는 무심하지만 점점 이야기를 하다보면 나름 따뜻한 아이예요. 항상 보면 장난만 치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약간의 말투만 바뀐다면 정말 천사가 될 아이였어요. 이러한 과정을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학교에서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유치원 봉사를 하면서 일주일은 방학이 끼어져 급식지도에 힘쓰게 되었는데
요! 방학 동안은 원내에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먹는 양이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역시나, 편식도 많았고 편식 지도 역시 선생님들의
역할이었죠! 또한, 6살 아이들은 아직 혼자 급식을 가져오고 가져다 놓기가
어려웠는데, 이것들 지도하는 곳도 유치원이었어요. 생각보다 유치원 아이들에
게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육기관이었어요!



추가적으로 몇일간은 7살 슬기반과 지내게 되었는데
슬기반은 고운반과 다르게 굉장히 활발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었어요
체력도 남달랐고요!!

특히나 대부분 글자도 읽을 줄 알아
책도 스스로 잘 읽는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1살차이는 크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덕분에 마지막날 슬기반 친구들에게 편지도 받았습니더!!



앞으로 사범대생으로 중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그때 만나게 되는 학생들이
바른 중고등학생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전 교육기관에서의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의 교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참가작>

여름에 남겨온 아이

차 시 운
음악교육과

사범대 학생의 정체성은 다소 특이합니다. 선생이자 학생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 교원대학교에 와서 “한국교원대” 혹은 “음악교육과”라는 이름을 앞세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원대 재학 1학년 차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연했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학부 수업만 겨우 따라가며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업 지도의 체계도, 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교원대생”이라는 이름 앞에 과외를 하고,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나이만 어른이던 20살 풋내기 대학생이, 2년이 흘러서는 과외, 학원 알바, 멘토링, 교육 봉사 등 갖가지 경험을 하며 이제는 스스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웃음이 지어집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남들은 “고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좋은 단어라고 했지만, 저는 이 단어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한계치에 부딪힐 때 한 칸씩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기부추진단원으로서, 그리고 한국 교원대 학생으로서 처음으로 했던 가장 어려웠고, 그보다 더욱 의미 있었던 교육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합니다. 그날은 하염없이 어설피고, 노력하려는 마음만 앞섰던 때였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던 원석의 기록을 꺼내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삼삼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1일차_2021.7.26.월

자백하자면, 사실 이때부터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레크레이션이 합쳐진 수합본 ppt를 띄웠어야 했는데, 레크레이션만 있는 이전 ppt를 띄워주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맨 첫 수업이라, 준비 시간 때문에 딜레이 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벌어주셔서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때는 생각보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잘 따라와 주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총괄의 소개를 누락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웃기게도,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은 추상적으로 기억해 놔서 칠판 한 구석에 첫날부터 적어놓고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기소개도 종례 시간에 짬막하게 진행했고, 다음날 조례 때 나머지 총괄분들의 소개와 누락한 오티도 짧게 진행해서 어찌 저찌 수습은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주로 수업 시간에 사진을 찍고, 여러 조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이라 아이들 이름은 전부 외우지는 못했지만, 나름 활달하고 성실한 아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리도 깔끔히 하고, 칠판도 자진해서 지우는 모습들이 정말 착하고, 보기 예뻐합니다.

[그날의 일기를 읽으며] 캠프 1일차

이날은 수곡중에 처음 교활을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활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분반총괄을 맡아 반의 담임쌤이자 프로그램 쌤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도 변수에 대비하기 벅참에도, 철없이 ppt 확인조차 해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한, OT와 레크레이션을 전체총괄이 아닌 분반총괄인 제가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당일에 알게 되어 급하게 원맨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 당시, 수곡중 교활에 이미 많이 참여해 본 3,4학년들이 많아 레크레이션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게임이고, 친목 도모가 목적인만큼, 우리 반의 광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나름 보조교사 선배들의 기분을 띄워줬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들도 이끌고, 반 아이들도 지도해야 하는 이 역할이 낯설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 마냥 난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프2일차_2021.7.27.화

2일 차에는 다른 분반 수업을 도는 보조교사분들 자리를 메꾼다고 조 안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교사 분들이 애써 아이들을 타이르고, 텐션을 올려주어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재미없다거나, 졸립다거나, 시니컬하게 “다 아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죠”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학습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 자기주장이 강하고 혼자 모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 멀리서 보기에는 조 자체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사실 열심히 고민하며 조용히 잘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 묵묵히 척척 따라오는 학생... 학생 유형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물론 흥미로웠던 점이고, 힘들었던 것은 학급의 한 아이가 걸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점이었습니다. 은따 문제는 실제 학교에서도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나 “5일의 교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섞이게 하자니, 다른 아이들이 거부할 것 같고, 강제성이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식 시간에 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있어서 “왜 여기서 먹고 있니”하고 물어보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렇다”라고 둘러대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해서 “그렇구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좀 무력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내는 수업 시간에 그 아이가 “양아치가 정말 싫다”고 재차 언급하는 점이나, 사연지를 적으려 한다거나, 종례 때 가장 늦게 나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전체총괄 정의로 선생님이나 1분반의 보조교사분들께도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이후로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주고 그 아이와 다른 반 아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읽으며] 캠프 2일차

사실상, 첫날은 아이들과도, 선생님과도 첫 만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어색함을 푸는 것만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일 차부터는 기존에 형성

된 학생들의 관계적 측면에서 비롯된 갈등을 보고 고민해야 했고, 선생님들에게 다소 날이 서 있고 직설적인 말들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지만, 만약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단순히 체력적으로 지쳐서인지, 저와의 관계가 불편해서인지, 수업의 내용이 어렵고 듣기 힘들어서인지를 분간해야 할 때의 기분은 사실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도 학생들이 즐겁게 들어주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했고, 제 당일의 기분이나 컨디션에 상관없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학생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면 저도 학생들을 따라 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만드는 무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가 얼마나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맞춰 나가려 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소통해보려는 노력이 있다면 학생들 또한 저에게 귀 기울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날 학생에게 들었던 “다 아는데 그냥 들어주는 거죠”나 “수업이 싫다, 공부 싫다”라는 등의 푸념들도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신선하고 즐거운 시간이 좋지만, 수업 시간은 약간의 지루함과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유희적인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적인 면과 능력치를 올리는 인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멘토링에서 저는 평소 수업을 잘 듣지 않고, 결석도 많이 하고, 비행 행위도 저지른다는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수업은 잘 안 듣는데 체육수업은 열심히 참여해요. “제 말을 이해해주셔서,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요.” 아이들은 인간관계에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현에 다소 미숙하기도 하고, 잘못이나 실수도 자주 저지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면 마음이 항상 예쁘고, 따뜻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교사가 마음을 열어두고, 학생들이 기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은따의 문제는, 사실은 지금도 어려운 문제이지만, 아이들의 관계 사이에 개입하기보다는 은따 관련된 학생들과 자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아이들 스스로 상황을 바꾸어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도록 시키는 신이나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후 멘토링에서도 왕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았지만, 옆

에서 기다리고, 같이 소통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위인은 아니더라도, 마음이 답답할 때 토로할 수 있는 대나무라도 되자는 것이 제 모토입니다. 멘토링을 하며 왕따 문제로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리고, 옆에 친구들도 생기고, 취미도 늘어가며, 점점 밝아지는 모습들을 보면 아이들은 항상 자라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캠프3일차_2021.7.28.수

전체총괄 선생님의 의견으로 이날은 점심을 선생님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지만,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3일차부터 슬슬 아이들의 이름이 거의 외워지고, 아이들의 개성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행동 특성, 가치관 등등..

하지만, 보이는 게 많아지는 만큼 아이들이 가진 아픔들도 보여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가치에 대해 다루는 수업 시간에 “인내”를 중요 가치로 두는 아이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 아이가 자신을 때렸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뒤의 결과를 생각하였고, 남자아이가 때렸다고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유독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도,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나름의 상처가 있었고, 그걸 자신의 방법대로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걸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여전히 은따 학생이 뒤에서 혼자 밥을 먹기에 제가 같이 먹자고 하니, 선생님이어도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때 다행히 보조교사 분께서 “선생님 친구 없어. 나랑 같이 먹어줄래?”라고 하였고, 선생님의 재치 덕에 제가 이를 받아치며 “쌤도 친구 없어. 선생님이랑 같이 먹어줄 수 있어?”라고 말했고,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 다른 반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조 와서 먹어요!”라고 말할 때도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여차 저차 밥을 먹었는데, 사실 이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외모에 민감하고 자존감이 낮을 나이에, 선생님들과 밥을 먹으려니 마스크를 일부러 잘 안 벗고 밥을 먹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생님과 학생의 도시락이나 후식이 달라서 이를 보여주는 것도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쉬고, 자기들끼리 놀고 싶을 것이고, 보조교사들도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모두에게 잃을 것들이 생긴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나름의 의미는 있었지만, 한번의 시도로 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를 읽으며] 캠프 3일차

“3일차부터 슬슬 아이들의 이름이 거의 외워지고”라는 문구를 보니 떠오른 점인데, 이때는 인원이 7-8명 남짓한 아이들 이름과 얼굴 매칭하는 것 하나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늘어나며 느끼지만, 열정을 가지고 순간에 자주 임할수록 능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학교 측에 전화하는 것, 학생 혹은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 학생들 이름 외우는 것 하나하나가 다 어려움이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은 일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람들과 일적인 소통을 하는 것에 이제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저를 보며 1년 전과는 다르긴 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읽어보니 훈훈하다가 “보조교사들도 휴식시간이 필요한데 모두에게 잃을 것들이 생긴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나름의 의미는 있었지만, 한번의 시도로 족한 느낌이었습니다.”의 문구에서 어린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미디어에서 비추어진 왕따 학생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며 치유를 해주던 노련한 교사의 모습에 대한 동경도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미디어와는 다릅니다. 하루 이틀 은따 학생과 밥을 먹는다고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지도 않고, 은따 학생들의 힘든 감정들을 공감해주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조금이라도 동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헌신적이고, 정의로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일매일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나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교사의 휴식 공간과 휴식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업무 시간과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자주 느낍니다. 교사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전을 해야 학생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제 자신의 요건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교사에게 필요한 소양인 것 같습니다.

캠프4일차_2021.7.29.목

아이들은 2일차 때부터 많이 친해져서 서로 사진도 찍고, 노는 것을 봐서 나름 안심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보조교사분들의 이름도 잘 못 외운 아이들이 꽤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아침부터 혼이 나갈 뻔했는데, 바로 아이들이 영상 편지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례 때 선생님들 몰래 좀 일찍 들어가서 “수고하신 보조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점심 시간에 짧게 영상편지 한 번 찍어보는 거 어때?”라고 하니 너무 단호하게 “싫은데요”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당황했습니다. 마음으로 울면서 “그래..? oo이는 어때?”하며 한 명 한 명한테 다시 물어보니 “저도 별로..”, “그건 좀 썩 쓰러워서 싫어요”, “저도 싫어요”, “싫은데요”라는 답변들 사이에 오직 하나의 “저는 괜찮아요ㅎㅎ”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조교사 몰래 해야 하는 촬영이라 이걸 어찌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이때 2분반 분반총괄께서 “칠판에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하는 것 어떠냐”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초반에 이 아이디어들을 말하니, “쌤 근데 사실 영상편지 찍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해서 멘탈이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착해서 제 말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일단 아이들 밥 먹이고, 칠판 꾸미게 하니 싫다던 모습과는 상반되게 아이들은 그 어느 반보다도 열심히 칠판을 꾸몄습니다. 칠판 꾸미고, 그사이 한 명 한 명 짚막하게 인터뷰하고, 단체로 구호 외치고 부랴부랴 정리했습니다. 이때 솔직히 시간이 오버되어 선생님들 하나둘 들어오길래 멘탈 한 번 더 날아가서 비밀로 하려던 거 이미 반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수업 도중 아이가 우는 일도 있었는데, 어찌저찌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이가 굳이 얘기를 털어놓지 않아 하기에 교구실에 가서 과자 몇 개 쥐여 주며 달랬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각자 수업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차분하고 열심히 따라오길 원하시는 선생님, 적극적이고 활달하게 참여하길 원하시는 선생님.. 생각보다 수업이란 게 다양하고, 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사진 콘테스트도 진행했는데, 전날에 급하게 추진한 거라 공지를 초반에 잘못 내서 사진 몇 개를 다시 찍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지를 또 잘못 내렸지만, 불평불만 없이 따라주신 보조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날의 일기를 읽으며] 캠프 4일차

제 입으로 저를 평가하는 단어로는 우습지만, 정말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볼 때는 별 것 아닌 일들에 멘탈 부서지는 모습들, 힘들어하고 동요하던 모습들이 정말 어설퍼 보이고, 이름만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가벼운 말장난에도 흔들리고, 아이가 수업 도중 우는 상황도 엄청 대단한 큰 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멘토링을 반복하며 느끼는 점이지만, 아이들은 항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기복, 그로 인한 분노나 서러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나가고, 자신들의 힘으로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해나갑니다. 이런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아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날이 서 있었던 것은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학생들을 사랑하니까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게 교사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주변에 교직에 계신 분들을 볼 때도, 학생들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리히 프롬이 하는 말처럼 “사랑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고, 아이들은 그저 저와 함께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저는 성공한 교사인 것이 아닐까요?

캠프5일차_2021.7.30.금

정신없는 5일차였습니다. 일단, 전날 영상 편집을 못 다 끝낸 상태에서 아침에 부랴부랴 영상을 다 편집하고, 립덱 찍고, 아침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수업 때 사연지를 읽어야 했는데, 은따 학생의 장문의 사연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읽으면 난감하고, 이것만 안 읽는 것도 이상하고, 학생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스쳤는데, 보조 교사분들과 의논하면서 해답을 얻어서 다행히 수업을 여차 저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다음 수업이 슈링클스 만들기였는데, 초반에 구운 슈링클스들이 찌그러졌다거나 구멍을 안

뚫었다며 불만이 나와서 슈링클스 공장을 가동하며 몽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하느라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좀 슬펐습니다. 다행히 보조교사분들이 멘탈을 잘 챙겨주셔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슈링클스 만드는 시간에 제 노트북으로 노래를 틀어놓느라 노트북 전원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전원이 이렇게 빨리 나갈 줄 모르고 교기단실에 충전기를 두고 왔습니다.. 문제는 수료식 영상 완성본을 노트북 화면 말고 다른 곳에 업로드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음원만 안 씌운 편집본 파일은 있었기에 점심시간에 급하게 재편집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빌려 영상을 지각했지만 어찌저찌 만들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노트북으로 영상 옮기는 법을 몰라서 영상 송출하는데 또 한 번 애먹었는데, 다행히 보조교사분들의 케어와 2분반 분반총괄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버스 시간에 놓치지 않고 수료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혼란스럽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의 일기를 읽으며] 캠프 5일차

사실 이 일기에는 매우 순화되어 나와 있지만, 잠도 전혀 못 잔 상황에서 은따 학생이 슈링클스 수업 때 “제 슈링클스가 찌그러져서 다시 만들래요”, “쌤,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새 거 주세요”, “제 물건 떨어졌는데 주워주세요”라는 등 제가 학생 주변으로만 가면 이런저런 것들을 시켜서 스트레스 받았습니 다.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끄는 행위인 것은 알지만, 이를 받아줄 정도로 대인배가 아니었기에 저는 혼자 교구실에 슈링클스를 구우며 욕 한 마디를 했습니다. 보조교사 한 분이 이때 교구실에 들어와서 아직도 저는 1년이 지나도록 놀림 받았습니 다. 이때를 생각하면 대처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받아주기보다는, 행동을 다른 학생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정 해주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학생의 투정을 받아 주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 영상을 틀며 뒷구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서 만들었는데, 음원을 입히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점심시간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숙한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너무 과분했기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감상평]

많은 사건과, 고민과,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기회가 된다거나, 업무적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소통해보면서 관계의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면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화 내지 않고 잘 수습해주신 선생님들, 1분반 친구들, 힐링이 되었던 채영이, 응원과 힐링이 되었던 선생님들 모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 수곡중 교활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의 일기를 읽으며] 갈무리하며..

여기까지가 그날의 기록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은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모자랐을 때였지만, 첫 교육봉사 때 선배인 동료 교사들과 이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었기에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차피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은따 당하는 학생을 좀 더 챙겨주고, 대처에 있어서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불안정한 행동, 날이 선 말 하나하나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하고, 교사도 성장하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말을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도, 선을 넘을 때 자를 수 있는 강단도, 사리판단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담을 알려드리자면, 2021년 겨울방학 때에도 저는 수곡중을 재방문하였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반의 아이들을 맡았고, 이때도 에피소드가 꽤나 많았지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하계 때 맡았던 1학년 친구들은 저에게 여름캠프 때 미안했다고 말을 했던 일입니다. 서로 어설퍼던 만큼, 성장할 초석이 되었던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책임감을 알려준 그 날의 기억에, 그날의 사람들에게, 그날의 그곳에 저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참가작>

순간이 영원하기를

홍 윤 재
윤리교육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물으면 '교원대에 다니고 있고 윤리교육을 전공하는 홍윤재입니다'로 소개했으나, 속으론 '염세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되뇌이곤 한다. 스물셋이란 시간은 어찌보면 짧기만 할 수 있다만, 그 짧아만 보이는 생애 동안 나에게 신념처럼 박힌 것은 시간 앞에 남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시간 앞에 영원한 것은 없었다. 분명 가슴이 터질 듯 행복한 순간도, 피가 끓을 정도로 고통스럽던 순간도 있었으나 그 순간뿐이었다. 없으면 죽을 것만 같던 사랑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분노도 모두 시간에 쓸려나갔다. 사랑이 사라져도 내 호흡기는 여전히 건강히 잘 기능하고 있으며,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사람도 그 순간이 지나니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꾸준히 만나고 있다. 그 순간들이 쓸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황량하기만 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일상의 대부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어 버렸다. 어떤 것이든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임에 불과함을 깨달은 까닭이다.

21년 7월 여름, 다락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낸 교육봉사의 시간 역시 나에게겐 생각 외로 즐거웠던, 하지만 여전히 스치는 어떤 순간이었다.

당시의 나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자꾸 어디론가 침전했다. 아마 가장 큰 구멍은 실연이었다. 꽤나 오래 만났고 그래서 신뢰가 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과 썩 끝이 좋지 못한 이별을 맞았다. 과장 없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감는 밤까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 몸부림쳤는데, 그런 고통을 억눌러가며 공부를 해야 했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서 마음껏 힘들어할 수도 없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던 나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또한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지나갈 것임을 아는 까닭이었다.

그런 나에게 교육봉사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생각보다 큰 위안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미선이와 찬우이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미선이와 2학년이었던 찬우는 서로 집안끼리 알고 지낸 지 오래인지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거나 짓궂은 말로 놀렸다. 한 번은 미선이가 갑자기 찬우의 볼록 튀어나온 배를 잡더니 내게 대뜸

“이게 뭐예요?”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배?”

하고 말하는 나의 목소리에는 아마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을 게다. 성별이 다른 아이의 신체를 저리도 스스럼없이 잡는 것은 내 일상에선 볼 수 없었던 일이었으므로. 미선이는 찬우의 둥근 배 그리고 나의 당황이 그리도 재미있는지 한참을 깔깔대다 상상도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내 말랑이에요”

그 모양이 너무 웃겨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막을 수 없었고, 깔깔대는 미선이와 속없이 배시시 웃는 찬우가 귀여워 둘의 머리를 쓸어보는 내 손을 막을 수 없었다.

둘은 특히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술래를 잡는다는 어떤 목적이 정해져 있거나, 어디론가 숨는다거나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달리기만을. 도대체 그것이 뭐가 재미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늘 어디론가로 뛰어갔다 다시 뛰어 돌아오며 깔깔대었다.

그런 둘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내 유년시절이 반추되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겠지 하며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도 저렇게 서로의 성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생각조차 않고 스스럼없이 그저 순수하게 놀았었다. 순전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깔깔대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성별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고려

하며 사람을 만나는 어른이 되었고 달릴 땐 항상 어떤 목적이 있었다. 너무도 달라진 나와, 아이를 보자 왜인지 가슴이 퍽 시려왔다.

한편, 이런 일도 있었다.

말주변이 없는 나는 주로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곤 했는데, 여럿을 들거나 업어주는 것을 가장 많이 했다. 다른 아이들을 업어주느라 지쳐 이젠 그만 쉬어야지 하던 차에, 찬우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조용해진 틈을 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던댕니, 저도 업어주세요”

혀 짧은 찬우의 귀여운 말씨를 들으니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지친 몸이지만 아이를 업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말랑이’를 가진 찬우의 몸은 여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무겁기도 하였고, 변명을 조금 하자면 내가 앞서 말했듯 지쳐있었기에 업는 데에 실패해버렸다. 문제는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것이다. 아이를 든 상태로.

몸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떤 의지였는지 나도 놀랍지만, 아이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가 내 위로 떨어지도록 몸을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전달되었는지 찬우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다행히도 다친 곳 없이 놀라기만 하여 별 일 없이 지나갔지만 찬우의 표정이 왜인지 굳어있고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만 같았다. 이미 사과를 백번은 하였으나, 왜인지 찬우의 표정이 울음이 가시고도 좋지 않아 신경이 쓰였다. 왜 그럴까, 아직 나에게 미움이 남아 있을까,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찬우가

“던댕니 드세요”

하며 내게 사탕을 건넸을 때 그 모든 것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찬우는 날 놀라게 한 게 미안해서 표정이 굳어있었고, 미안함에 다가오지 못했던 것이다. 순수하고 귀엽기만 해 보였던 아이의 깊은 속은 가슴을 따스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봉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변변찮은 인사도 없이 아이들과 나는 헤어졌다. 설명할 수 없는 시림과 따스함이 이것을 끝으로 시간에

묻혀 영영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 순간 퍽 서글펐지만, 그런 서글픔마저 곧 사라질 것임을 나는 알았다.

나의 예상대로 시간이 흘렀고, 흐르는 시간 속에 학업, 알바 등 여러 일상에 치여 살다 보니 잠깐 느꼈던 순간의 시련함과 따스함의 흔적은 찾기가 힘들었다.

영영 지워진 것만 같던 시간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학교에 교육봉사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락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했어야 했다. 어떤 영화나 소설의 한 장면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은 우연이었다.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기에, 그리 오래 머무를 생각은 없었다.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던 나를 붙잡은 것은 찬우의 허 짧은 소리였다.

“던멍니”

하고 용케 나를 기억하며 반기는 녀석의 허 짧은 소리와, 역시 여전한 ‘말랑이’가 풍기는 귀여움은 여전히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했고, 가슴을 따스하게 만들었다. 미선이 역시 나를 잊지 않고 반겨주었다. 그 둘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은 퍽 놀라웠다. 솔직히 나는 이제 그 둘의 얼굴이 어렴풋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선생님이 거쳐 갔을 시간 동안 나를 잊지 않고 알아본 그 둘이 너무도 고맙고, 또 미안했다.

한 해가 지나고 찬우는 3학년이, 미선은 4학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미선은 찬우의 ‘말랑이’를 스스럼없이 만지고, 둘은 아무 목적 없이 뛰어다니기만 해도 깔깔대었다. 달라진 것이라면 내가 이번에는 찬우를 업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둘을 보니 그때와 똑같이 가슴 어딘가가 시려웠고 또 따스하며, 포근해졌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의 근원을, 지금 와서 다시 설명해보면, 그들이 내게 위안이었던 까닭은 어떤 그리움이 아니었을까 싶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수치심을 알게 되어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나 또한 미선과 찬우처럼 구별을 모르고 뛰기만 해도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겠지, 그 그리

운 순간들을 나는 미선이와 찬우를 통해 다시 보았을지도 모른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무언가를 알게 된 나는 무언가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색은 앓았으나, 나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나 돌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을 그 누구보다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구별을 모르고 뛰어다니던,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즐겁던, 그 외 시간에 쓸려나가 영영 사라진 그 모든 무언가들을.

또 하루는 짧아 또다시 그 아이들과 나는 헤어져야 했고 가슴이 포근한 만큼, 또 곧 사라질 것이 뻔하기에 돌아오는 버스 안이 서글펐다. 하필, 영화처럼 낭만 있게 창밖엔 비가 내려, 서글픔과 빗소리에 잠겨 생각했다. 어떤 것은 영원하지 않을까 하고.

미선이와 찬우가 나를 기억했듯이, 그들을 다시 보았을 때 처음처럼 나의 마음이 시리고 따스하고 포근했던 것처럼, 어떤 무언가는 영원하지 않을까. 아니, 사실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을까. 시간에 묻혀 잠깐 잊은 것뿐이지. 가슴이 터질 듯한 행복도, 피를 끓이던 고통들도 잠깐 잠겨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계기만 있다면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나의 낭만 없는 우연과 찬우, 미선이의 순간이 그러하듯

사실 어떤 순간만큼은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이런 순간들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란다. 찬우와 미선이는 어떠할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 그들이 나의 나이가 되었을 때엔, 어쩌면 나의 이름과 얼굴이 어렴풋할지도 모른다. 어렴풋하다 못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들도 어떤 계기가, 낭만이 없더라도 우연히 있다 한다면 이런 순간들을 나와 같이 반추하지 않을까.

시간에 묻혀, 이 모든 감정들이 묻히더라도, 이런 감정들만큼은, 영원하기를 바란다. 잠깐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간 떠오르기를, 그들에게도 또 나에게도. 하여, 이런 순간들만 영원하여, 그들이 나와는 달리 세상을 조금 따스하게, 따스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본다.



제1회

교육봉사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문의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

Tel. 043-230-3854~7 E-mail. ceri@knue.ac.kr Website. ceri.knue.ac.kr

